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곡성군 생존피해자 구술생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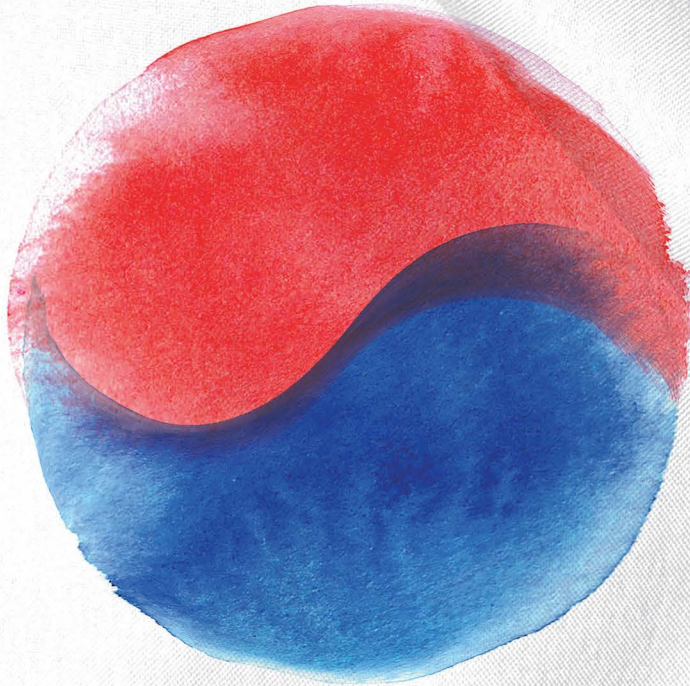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곡성군 생존피해자 구술생애사

조준원 편저



## 발간사

# 우리 조국의 아픔을 담아

구한말 조선은 주변 제국주의 강대국가들의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침략의 마수에 휘둘러야만 했습니다. 조선 고종(1875년)때, 일본의 군함 운양호가 강화해협까지 불법 침입하여 한·일간의 총격전이 오고 간 충돌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듬해(1876년) 일본은 오히려 운양호의 피해보상과 함께 수교를 강요하며 다시 강화도에 무력 입성해 한·일간의 불평등한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굴욕적인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개방이후 한일합병(1910년)에서 8·15광복(1945년)까지 35년 간 일제강점기의 철저한 민족말살 무단 식민지 통치정책으로 뼈아픈 수난과 시련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본이 중일전쟁(1937년) 이후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면서 시작한 동원정책은 모집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폭력을 동반한 강제동원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우리

민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군수물자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권력을 앞세워 군인, 노무, 군속, 위안부 등의 강제동원으로 우리민족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약탈하는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러시아 등지의 전쟁터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조선인 군인들과 군속자들, 국내 각지의 탄광과 철공소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폭력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수많은 노동자들.....

일본의 만행에 의하여 우리고장 곡성군민 또한 예외 없이 수많은 물적 피해와 함께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끔찍한 만행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곡성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 세 분의 구술생애사를 우리 조국의 아픔을 담아 곡성문화원 학술총서로 발간합니다.

일본에 의하여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당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역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구술과 함께 본 학술서적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 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곡성문화원장 **고 광 운**



## 서문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죄(謝罪)는 국가 의무이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수많은 악행과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들은 사회·경제적 수탈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군인(軍人)동원, 군속(軍屬)동원, 노무(勞務)동원, 성(性)동원 등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압적인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전쟁터와 일본군위안소 그리고 국내·외 노역장 등에 강제로 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만행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인정과 사과문이 담긴 “고노 담화”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의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면서 그들의 전쟁범죄를 정당(正當)화하고 있다.

지금도 늦었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및 진심이 담긴 반성과 사죄(謝罪)는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올바른 역사의식 없이 전쟁범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서도 기록되었듯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보상은 일부 국외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등을 제외하고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강제동원피해자와 위로금을 받지 못한 국외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족수난(民族受難)의 35년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사실 등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과 시선이 다소 안일(安逸)하고 소홀(疏忽)하다고 느꼈다. 이는 우리정부가 초등학교 교육부터 일본의 전쟁범죄, 강제동원, 과거청산에 따른 배상과 사죄 등 일제강점기 역사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면 정부관계자들이나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轉換)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무리 안타깝고 슬픈 역사도 조사하여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강물처럼 흔적 없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곡성군의 “오경섭”, “김경남”, “홍희조” 세 분과 같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인생행적(人生行蹟)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역사에 바르게 기록되어 후세(後世)에 전승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

2021년 5월

편저자 **조준원**

## - 일러두기 -

1. 이 책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強制動員)에 관한 학술서 발간을 목적으로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 세 분 어르신들의 강제동원에 관한 “구술 증언”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2. 이 책은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 세 분 어르신들의 “구두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출간하였으며, 학술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국내·외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일제강점기 강제인력동원에 관한 용어와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강제동원”, “강제노동”, “강제연행”, “강제징용”, “전시노무동원”, “공출”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4. 이 책에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동원’을 본고(本稿)의 용어로 선택하여 표기하였다.
5. 본문내용은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 세 분 어르신들께서 구술하시면서 표현한 말과 사투리 등을 최대한 발음하는 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단어 등이 우리말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표기가 많다.

6. 이 책에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 세 분 어르신들께서 실명(實名)으로 수록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편저자가 임의로 어르신들의 개인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술 속 인물 등을 비실명으로 표기하였다.
7. 구술연구의 특성상 개인 구술에 의존함에 따라 본문 중에서 일부 내용이 변형되거나 왜곡되어 기록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본문에 수록된 내용은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8. 이 책은 편저자 조준원의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도 구술자료 수집사업 보고서”와 한국학호남진흥원 “역사적 사건 인물 발굴을 위한 2019년 인문학 기반 및 역사자원 활용사업 보고서” 일부를 보완·수정하여 게재하였다.
9.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들을 곡성문화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제나 전재를 금한다.

## 목차

발간사 .....	2
서문 .....	4
일러두기 .....	6
일제강점기 강제동원(強制動員) .....	12
조사 과정 .....	26
구술조사	
1. 김경남과 “여자근로정신대(女子勤勞挺身隊)” .....	32
2. 오경섭과 “해군군속(海軍軍屬)” .....	40
3. 홍희조와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 .....	44
4. 일제강점기의 “곡성군(谷城郡)” .....	49
5. 구술조사 결과 .....	51
구술조사의 연구사적 의의	
1. 「히로시마 구레 조선인 동원공 폭동사건 재판 기록」과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동원공 폭동사건」 비교 분석 .....	60
2. 강제동원 “노역장 이동경로” .....	65
3. 강제동원 “희생자” .....	68
4. 강제동원 생존피해자와 “6·25 한국전쟁” .....	71



추가 구술조사 및 향후 과제

1. 추가 구술조사 .....	74
2. 향후 과제 .....	76

김경남·오경섭·홍희조 “구술 비교”

1. 오경섭의 2016년과 2018년 “구술 비교” .....	80
2. 김경남의 2017년과 2018년 “구술 비교” .....	85
3. 홍희조의 2019년 “구술 비교” .....	88

2016년 오경섭 구술과 2017년 김경남 구술

1. 오경섭 구술(2016년) .....	95
2. 김경남 구술(2017년) .....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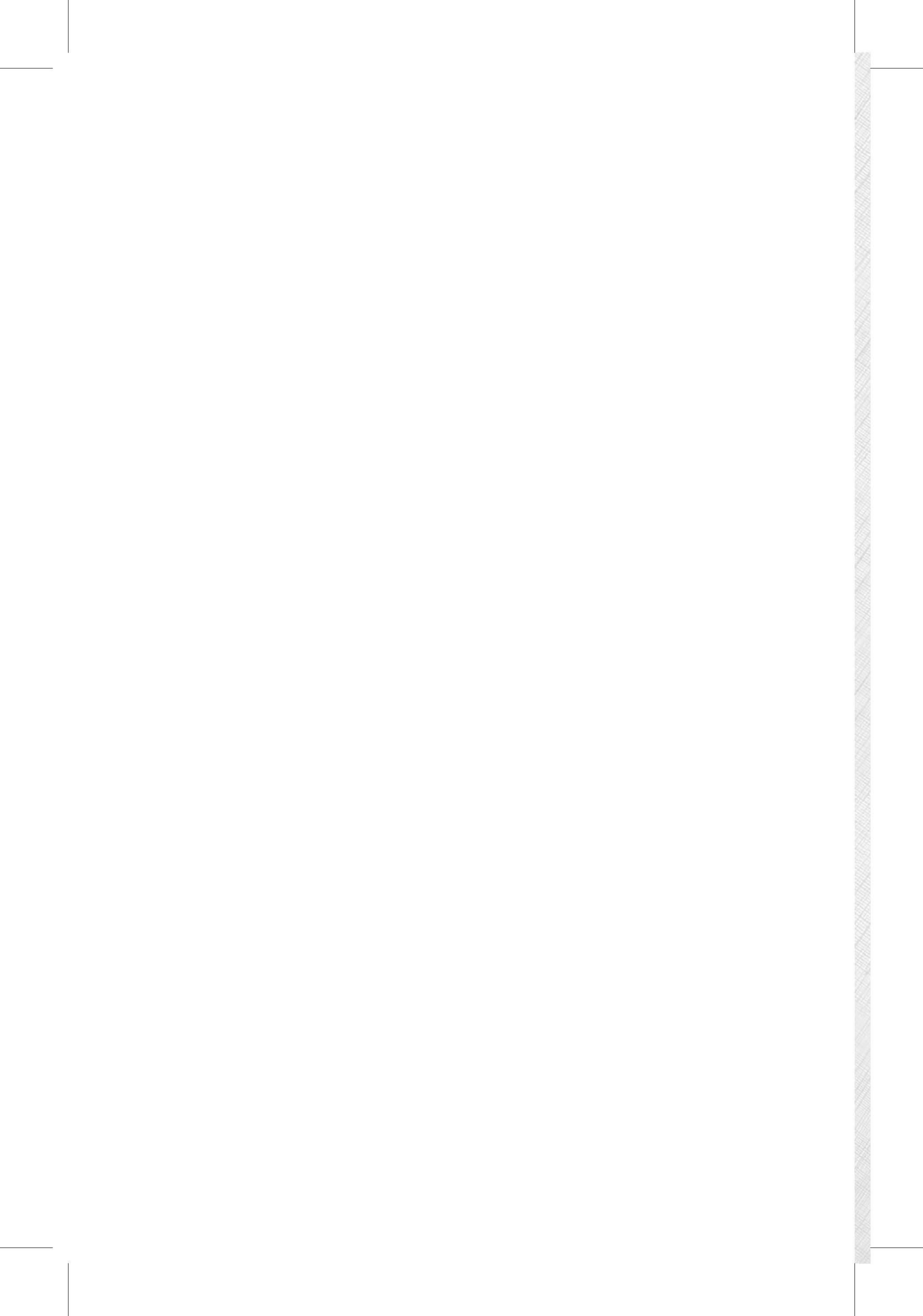
오경섭 “구술 생애사”(2018년) .....	116
---------------------------	-----

김경남 “구술 생애사”(2018년) .....	194
---------------------------	-----

홍희조 “구술 생애사”(2019년) .....	224
---------------------------	-----

면담 후기 .....	305
-------------	-----

참고문헌 .....	318
------------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強制動員)**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sup>1)2)</sup>이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해 제국 영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적·물적·자금 동원정책을 의미한다.<sup>3)</sup>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조선인 노동력으로 강제동원되었던 군인과 군속 그리고 노무자 등의 피해자들을 본고(本稿)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라고 규정하였다.<sup>4)</sup>

일제는 1938년 전쟁수행을 위한 자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sup>5)</sup>을 제정·공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강제동원을 실행하였다. 그들

---

1) 국내 외 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인력동원에 관한 개념과 용어들이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하고 강제 징용, 강제동원, 강제노동, 강제연행, 노무동원, 공출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동원”을 본고의 용어로 선택하여 표기하였다.

3)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5)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인적·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활용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공포한 전시통제 기본법으로 폐망 후 1946년 4월1일 폐지되었다.

은 국가총동원법 이후 단계적으로 공장·사업장관리령,<sup>6)</sup> 신문지 등 게재 제한령,<sup>7)</sup> 국민근로보국협력령,<sup>8)</sup> 국민근로보국협력령 시행규칙,<sup>9)</sup> 노무조정령,<sup>10)</sup> 여자정신근로령<sup>11)</sup> 등을 공포하여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러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군수물자 생산과 수송 등을 위한 수많은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 등을 수탈하였다.

한반도에는 조선총독부<sup>12)</sup>가 1938년 5월부터 지역할당을 통해 적극적인 강제동원을 시작한 이후,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인의 재산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협박, 납치, 회유, 취업사기 등의 수단을 통해 조선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로 동원하여 폭력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노동력을 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태평양 전쟁터 한복판에 강제 투입된 군인들, 일본군 군사기지와 비행장 그리고 군용 철도 등의 건설현장에 동원된 군속들, 국내·외 탄광과 광산 등에서 노역한 노무자들, 협박과 납치 등으로 일본군의 성(性) 착취 대상이 된 일본군‘위안부’<sup>13)</sup> 등 강제동원 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

6) 1938년 5월 3일 공포.

7) 1941년 1월 10일 공포.

8) 1941년 11월 21일 공포.

9) 1941년 12월 1일 공포.

10) 1941년 12월 6일 공포.

11) 1944년 8월 23일 공포.

12) 1910년 8월29일 설치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폐지되었다. 일제는 조선총독을 일본 황제의 친임관(親任官)으로서 조선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총독의 일관된 정책은 식민지적 지배를 위한 탄압과 경제적 착취, 민족정신의 말살에 있었다. 36년간의 식민지 총독정치의 지배체제가 빚어낸 결과는 학살·기아·투옥·고문·추방·착취 그것이었다(사천시, 『사천시사』, 2003년).

13) 일제 공권력에 의한 납치, 협박, 인신매매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군위안소에 끌려가 일본군의 무자비한 성폭력, 성적학대 등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피해여성들.



이처럼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의 전쟁터와 노역장 등에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다. 또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강제동원피해자들이 노역장에서 부상과 장애를 입고 불구의 몸이 되는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강제동원 조선인피해자들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서야 조국 해방과 더불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참혹한 일제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1945년 해방이후 75년이 지난 지금의 일본 정부는 이전 내각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과문이 담긴 “고노 담화”<sup>14)</sup>와 “무라야마 담화”<sup>15)</sup>을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왜곡·부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반복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박경리<sup>16)</sup>는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일본인에게는 차라리 예(禮)를 차리지 말자. 아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뺏아버리려 든다.

일본인에게는 곱배상<sup>17)</sup>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곱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부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sup>18)</sup>

---

14) 1993년 8월 4일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공식성명으로 정식명칭은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이다.

15)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에 관하여 사죄한 성명으로 식민지배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하였다. 정식명칭은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이다.

16) 소설가(여, 1926년-2008년).

17)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상.

18) 박경리, 『일본산고』, 마로니에북스, 2019년.

올바른 역사의식 없이 지금과 같이 전쟁범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본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도 늦었지만 일제의 전쟁범죄와 강제동원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피해배상 및 진심이 담긴 반성과 사죄는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정부 또한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규명하고,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sup>19)</sup>를 취해야 했다. 이와 같은 난제를 매듭 짓기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1945년 8·15일 광복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sup>20)</sup>과 1975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sup>21)</sup> 등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65년 한일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일부 보상금을 받았으나, 협상 과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론 짓지 못한 상태에서 일괄 타결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한 해석이나 사용처는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10여 년이 지난 1975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보상이 시작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전체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원을 받은 것은 아

---

19) 조치(措置).

20) 한일 양국의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한일기본조약(한일 협정)이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의 회담이다. 정식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21)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이후 정부는 1971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채권 등 증서에 대한 보상으로 74,963건, 66억 1,695만원(1인당 30원)을 지급하였다. 합계 약 91억 8,255만원 규모로서, 이는 한일 청구권자금 중 무상 3억분의 5.4%에 해당한다(박명희, 「이슈와 논점」, 제15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12월 26일).

니었으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기초 조사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시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 일부인 22만여 명이 피해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조사는 약 8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당시 피해조사는 국내·외 강제동원에 대한 모든 조사를 진행, 이 중 19만여 명에 대하여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였다.”<sup>22)</sup>

위와 같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지원대책 등을 위하여 우리 정부에서 2004년 발족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sup>23)</sup>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하여 2005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집계한 지역별 접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sup>24)</sup>

---

22)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23)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독립기구로 2014년 폐지되었다.

24)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들을 위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추가 접수가 이루어졌다.



### 강제동원 피해 지역별 접수 현황<sup>25)</sup>

(단위: 건)

시도	계	위원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접수	228,126	11,837	14,892	7,950	5,649	5,008	4,682	5,207	2,162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접수	21,367	7,857	13,245	23,420	23,537	32,992	24,282	21,138	2,901

위의 ‘강제동원 피해 지역별 접수 현황’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부는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았으며, 이를 위한 심사를 2015년 말까지 완료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2,792건의 위로금·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통하여 지급이 결정된 것은 77,780건으로 6,334억원이었다.<sup>26)</sup>

정부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에 대한 법률”을 근거하여 위로금을 사망 및 행방불명자에게는 1명당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상자에게는 장애정도에 따라 1명당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급하였다.<sup>27)</sup>

25)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26) 박명희, '이슈와 논점', 제15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12월 26일.

27) 1975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보상금 30만원을 지급 받은 피해자의 경우 1명당 234만원을 뺀 금액이 지급되었다.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으로부터 급료, 수당 등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생존피해자들에게는 의료지원금을 매년 8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다.<sup>28)</sup>

하지만 강제동원피해자 지원 대상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 한정하여 국외 강제동원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미 피해 신고를 통하여 위원회로부터 국내 강제동원피해자로 결정된 2만 3,000여 명은 위로금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sup>29)</sup>

### 강제동원피해자 지원현황(2007년 ~ 2014년)<sup>30)</sup>

(단위: 건, 백만원)

	계	위로금		지원금	
		사망· 행방불명	부상 장애	미수금	의료 지원금
지급(건)	77,780	19,372	16,583	17,284	25,541
결정 금액	633,481	362,147	103,172	52,344	115,718

출처: 행정안전부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 “강제동원피해자 지원현황”과 “대일항쟁기 강

28) 전쟁터와 노역장 등에서 부상과 장애를 당한 후 귀국하여 고향 등지에서 사망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9)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30) 행정안전부, 재인용 - 박명희, '이슈와 논점', 제15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12월 26일.

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기록된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입장에서 드러나듯이 일제의 만행에 의한 군인, 군속, 노무자, 일본군‘위안부’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은 일부 국외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등을 제외하고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강제동원피해자와 위로금을 받지 못한 국외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매듭지어야 될 국가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지원을 하는 정부정책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하며, 이 같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외 학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증대가 필요하다.<sup>31)</sup>

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한 명칭들 또한 우리나라 학계에서조차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하고 강제징용, 강제동원, 강제노동, 강제연행, 노무동원, 공출 등의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함께 명칭의 통일 또한 시급하다.<sup>32)</sup>

---

31) 하승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구제 -한국정부의 피해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2011년.

32) 정혜경,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도서출판 선인, 2013년.

『고노 담화 전문』

###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sup>33)</sup>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됐으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지(戰地)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에 관해서는 일본을 별도로 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

어쨌거나 본 건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 또 그런 마음을 우리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식견 있는 분들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회피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같은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

덧붙여 말하면 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돼 있고 또 국제적인 관심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1993년 8월 4일

내각관방장관 고노

---

33) 나무위키(<https://namu.wiki>).

『무라야마 담화 전문』

### 내각총리대신 담화<sup>34)</sup>

지난 대전이 종말을 고한지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금 그 전쟁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내외의 많은 분들을 상기하면 만감에 가슴이 저미는 바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며 그것을 위하여 기울인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지(英知)와 꾸준한 노력에 대하여 저는 진심으로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내진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 아시아·태평양 근린제국, 미국, 구주제국과의 사이에 오늘날과 같은 우호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본은 평화롭고 풍요로워 졌지만 우리는 자칫하면 이 평화의 존귀함과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근린제국의 국민들과 협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세계평화를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근린 아시아제국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 연구를 지원하고 각 국과의 교류를 비약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하는 평화우호교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힘을 기울이고 있는 전후 처리문제에 대하여도 일본과 이들 나라와의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저는 앞으로도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이라는 길목에 이르러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다보며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시기, 국가정책을 그르치고 전쟁의 길로 나아가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렸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잘못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와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또 이 역사로 인한 내외의 모든 희생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에 입각하여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척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하여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유일한 피폭국이라는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핵무기의 궁극

적인 폐기를 지향하여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간요(肝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이며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는 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념할만한 때에 즈음하여 신의를 시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을 내외에 표명하며 저의 다짐의 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1995년 8월 15일

내각총리대신 村山富市

---

34)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홈페이지(<https://www.kr.emb-japan.go.jp>).



# 조사과정

## 조사과정

일제의 협박, 납치, 회유 등에 의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손해를 당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피해실상은 광복 후 급격한 사회 변동의 와중에서 후손들에게도 미처 전하지 못한 채 사라져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한 맺힌 사연들을 찾아서 우리역사에 바르게 기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0년 12월 현재까지 약 5년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곡성군 생존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관련자료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곡성군 11개 읍·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구술 채록과 함께 개인생애사와 설화 조사를 병행하였다.

2018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업<sup>35)</sup>으로 곡성군 11개 읍·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강제동원 생존피해자들을 찾아뵙고 구술 채록하였다.

---

35)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도 구술자료 수집사업."

2019년에는 한국학호남진흥원 지원사업<sup>36)</sup>으로 조사대상을 태평양 전쟁 강제동원피해자 및 유가족으로 확대하여 영상 채록과 함께 구술 조사를 하였다.

2018년 조사 당시 곡성군 11개 읍·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강제동원 생존피해자는 일제의 군속<sup>37)</sup>동원으로 인한 해군군속 노역 피해자 곡성군 오곡면<sup>38)</sup> 오경섭과 여자근로정신대<sup>39)</sup> 피해자 곡성군 고달면<sup>40)</sup> 양금석 그리고 곡성군 삼기면<sup>41)</sup> 김경남 이상 총 3명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직원에 의해 15세에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되어 광주 방적공장 노역생활 등을 경험한 1930년생 김경남은 2017년 조사 당시와는 다르게 2018년에는 거동이 여의치 않으셔서 가급적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계셨다.

하지만 2020년 12월 현재에는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곡성군 삼기면 자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삼기면 마을 인근의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신다.

김경남과 동일하게 여자근로정신대로 광주 방적공장에 강제동원을

---

36) 한국학호남진흥원, “역사적 사건 인물 발굴을 위한 2019년 인문학 기반 및 역사자원 활용사업.”

37) 지금의 군무원.

38)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우곡면과 오지면을 병합하여 오곡면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1973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오곡면 묘천리가 곡성면으로 구분되어 가고, 오지8구가 1983년 행정구역변경으로 오지6구에서 분리되어 법정리 10개리에 22개 부락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39) 일제 강점기 말기에 조직된 태평양 전쟁 수행을 위한 노동력 착취 조직으로 1944년 8월 23일에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공식적으로 출범된 여성 노동력 동원단체이다.

40) 조선 세종 1440년에 필도제로 남원(南原)의 고달방으로 분역되었으나, 1906년 9월 구례(求禮)에 편입되었으나, 1914년 3월 곡성군으로 편입 고달면이라 칭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41) 1910년 이전 조선에는 원등리가 옥과현 겸방면에, 여타 마을은 삼기면에 속해 있으면서 향약의 향장을 두어 통치해 왔었다. 1910년 10월에 면장으로 개칭하였고, 1914년 3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를 폐합하여 삼기면이라 개칭하여 26개 자연부락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한 1929년생 양금석은 1942년 당시 고달면 자택에서 집안일을 하던 중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하여 붙잡혀 집밖으로 나온 후 3명의 여성들과 함께 광주에 있는 방적공장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광주 방적공장에서 밤낮 교대로 일하면서 가끔씩 광목 1개를 급료로 받았으며, 1945년 해방이후 본인 스스로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곡성으로 돌아왔다고 하셨다.

고달면으로 귀향한 이후 마을사람들이 강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하고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등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워하셨다고 증언하셨다.

하지만 2017년 조사 당시에 건강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구체적인 면담 및 구술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에석하게도 2020년 12월 현재에는 작고(作故)하셔서 고인(故人)이 되어 영면(永眠)에 드셨다.

자택에서 순경 등에 의하여 해군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태평양전쟁을 겪고 고향으로 귀향한 1922년생 오경섭 또한 2016년과 2018년 조사 당시 많이 연로하셨지만, 2020년 12월 현재 다행히 99세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생활하시는데 건강상 무리가 없어 보였다.

2018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조사 당시 세 분 생존 피해자들의 건강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금석을 제외한 김경남과 오경섭 두 분을 우선적으로 구술채록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태가 파악되지 못한 곡성군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와 피해 규모 등에 대한 현황파악



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다. 더불어 이분들의 구술을 통해 일제강점기 당시 곡성군의 여자근로정신대 동원 시기와 방법, 군속(해군군속) 동원의 형태와 인원, 이동경로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오경섭의 태평양전쟁 참전경험, 대만 태남항<sup>42)</sup>의 태평양전쟁 해군전함 참전대기 상황, 필리핀 민다나오에서의 전쟁경험, 귀국과정과 함께 6·25 한국전쟁 당시 곡성군의 실상과 자원입대 등을 통한 참전과정, 전투상황 등에 대해 구술 채록하여 이를 기록에 남기고자 하였다.

또한 김경남의 강제동원과 동원 당시상황, 개인감정,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에서 노역생활과 경험, 광복 후 곡성으로의 귀향과정, 귀향 후 가정생활 등을 조사하여 곡성군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피해자의 한평생 삶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9년에는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지원으로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생존피해자와 유가족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2018년에 미처 파악되지 못한 1921년생 이춘식, 1927년생 김갑영, 1930년생 홍희조 이상 3명의 강제동원피해자가 생존하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김갑영과 이춘식은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직접 구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체적인 면담 조사를 하지 않았다.

홍희조 또한 노환에 의한 난청(難聽)으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 배우자인 임이순과 함께 곡성읍 죽동리 자택에서 구술조사를 진행하였

---

42) 대만 타이난시의 항구.

다.<sup>43)</sup> 홍희조가 경험한 전라남도 여수의 강제동원 경험과 귀향, 평안남도 강서군까지의 이동경로와 노역장 생활, 귀향과정 그리고 6·25 전쟁 당시 곡성군의 실상 등에 대하여 영상 촬영과 휴대폰 음성 녹취 등을 통하여 구술채록을 진행하였다.

---

43) 보청기를 사용하였다.

# 구술조사

1. 김경남과 “여자근로정신대(女子勤勞挺身隊)”
2. 오경섭과 “해군군속(海軍軍屬)”
3. 홍희조와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
4. 일제강점기의 “곡성군(谷城郡)”
5. 구술조사 결과

## 1. 김경남과 “여자근로정신대(女子勤勞挺身隊)”<sup>44)</sup>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자료 수집과 생존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구술조사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1개 읍·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곡성군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sup>45)</sup>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작성된 “곡성군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피해 신고관리대장” 이외의 사진, 일기, 소집영장 등의 강제동원과 관련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된 곡성자료는 당시의 신문자료 이외에는 거의 소실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생존해 계시거나 구술조사가 진행된 강제동원피해자 김경남, 오경섭, 홍희조 3명과 빙애님,<sup>46)</sup> 장영규,<sup>47)</sup> 김판용<sup>48)</sup> 등 피해 유가족들의

44) 조선여자근로정신대(朝鮮女子勤勞挺身隊).

45) 2004년 3월 5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2010년 3월 22일 폐지되었다.

46) 강제 군인동원피해자 유환복의 배우자.

47) 강제 군인동원피해자 장맹규의 동생.

48)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김천만의 자녀.



구술에 따른 자료 보존이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곡성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인 김정남의 구술은 매우 귀중하게 보존되고 전승(傳承)되어야 할 역사적인 구술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15세의 김정남이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되어 노역생활을 한 광주 지사공장<sup>49)</sup>은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이그룹”<sup>50)</sup> 계열사인 “가네보”<sup>51)</sup>가 1930년 광주 학동에 제사(製絲)공장을 설립한 이후 전남에서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는 목화와 누에고치 등을 대규모로 약탈하기 위하여 준공한 “가네가후치공업의 가네보방적 전남공장”<sup>52)</sup>이다.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은 2020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본사를 두고 광주광역시와 익산시, 천안시, 영암군 등에서 원사와 데님, 자수사, 염색사, 재봉사, 직물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섬유제조업체인 “전방주식회사”<sup>53)</sup>가 해방이후 적산<sup>54)</sup>기업으로 불하받아 운영했던 전남방직의 전신이다.

1935년 광주 북구 임동에 3만 추<sup>55)</sup>의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을 설립한

---

49) 제사(製絲)공장.

50)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태평양전쟁 패망 이후 미국 등의 연합군에 의해 해체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 (구)미쓰이 재벌 산하의 회사들이 다이이치물산회사를 중심으로 재결합하여 지금의 일본을 대표하는 3대 기업 집단으로 발전하였다.

51) 1944년 가네가후치공업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52) 미쓰이 재벌 계열 회사인 가네가후치(가네보)는 1887년 설립된 도쿄면상사가 1893년에 가네가후치방직(주)으로 회사명을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광주를 비롯한 경성, 철원 등에 제사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원료공급을 위하여 전국 각지에 뽕나무밭과 양잠장을 운영하였다.

53) 전방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chonbang.co.kr>, 회사소개).

54) 해방이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소유의 기업과 부동산 그리고 동산 등을 총괄하여 부른 이름이다.

55) 면사를 뽑아내는 정방기의 구멍.

가네가후치공업은 1945년 당시 조선인 노무자가 약 3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사업이 확장된 기업이었다. 하지만 강제동원된 조선인 여자노동자들에게 가한 혹독한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그리고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남원시 등 전라도 각지의 10대 어린 소녀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여자직공으로 충원하는 실태 등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일제강점기 당시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은 많은 어린 소녀직공들이 장시간의 노동과 감독자들의 끊임없는 구타 등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탈출하는 것이 빈번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작업장과 기숙사 사이에 통로, 높은 담장,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어린 소녀직공들은 감독관들의 감시를 피해 끊임없이 방적공장 탈출을 시도했다. 그때 당시 가네가후치공업의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에 강제동원된 어린 소녀직공들의 연령은 대부분이 12세에서 15세에 불과하였다.<sup>56)</sup>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강제로 고향을 떠나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의 기숙사에 수용된 어린 소녀직공들은 정신적, 신체적 억압에 의하여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노동을 하게 되었다. 감독자들의 잦은 구타와 열악한 작업장 환경 그리고 질병과 산재에 의한 사망 등은 군인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이와 같은 노동환경의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으로 15세의 김경남을 강제로 소속시켜 동원한 단체는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정신대(挺身隊)”<sup>57)</sup>로 알려져 있었던 “조선여자근로정신대(朝鮮女子勤勞挺身隊)”

56) 시민의 소리(<https://www.siminsori.com>, 2013년 05월 09일).

57) 곡성군은 1944년 3월 군수, 경찰서장, 세무서장, 상공회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정신대(挺身隊) 결성식을 거행하였다(곡성군, 『곡성군지』, 2018년).

이다. 이 단체는 일제가 조선인들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 조직한 근로정신대 중에서 조선 여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하여 만든 관변조직이다.

이 같은 조선인 징발단체인 정신대<sup>58)</sup>는 태평양전쟁의 전시체제에서 일제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녀조직 모두를 의미하며, 이름 그대로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부대를 뜻한다. 정신대는 일제강점기 1940년대 이후의 신문, 특히 친일신문인 “매일신보”<sup>59)</sup>에 자주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성들에게 정신대는 자신들을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하게 만드는 여자근로정신대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여자근로정신대원들 중에는 일제의 폭력과 사기 협박에 의하여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들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비참하고 불행한 여성들도 있었다.<sup>60)</sup>

일제가 태평양전쟁 수행을 위한 전면적인 군수 전시체제 전환에 의하여 국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를 조직하였으며, 근로정신대와 동일한 의미의 여자근로정신대를 조직하여 조선 여성들을 한반도와 일본 등의 국·내외 군수공장, 방직공장, 광산 등의 다양한 곳에서 강제노역을 하게 하였다.

---

58) 일본군과 같은 부대의 단위 편제인 대(隊)로 이루어졌다.

59) 조선총독부가 대한매일신보를 강제로 매수한 후 제호를 변경하여 1910년 08월 29일 창간하였으며, 1945년 11월 10일 폐간되었다.

60)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출판부, 2004년.

이와 같은 근로정신대와 여자근로정신대 등의 노동력 징발단체들을 통한 조선인들의 강제동원은 모집,<sup>61)</sup> 할당제,<sup>62)</sup> 관 알선<sup>63)</sup> 그리고 태평양전쟁의 패전이 가까워지자 국민징용령 개정으로 국가 공권력 개입을 통한 징용<sup>64)</sup>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차별하게 이루어졌다.

일제는 1938년 국가총동원법, 1939년 국민징용령<sup>65)</sup> 등의 법령에 의거하여 만 16세 이상 40세까지의 조선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용을 실시한 결과 산업현장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국가노무대책의 일환으로 여성들의 노동력에 대한 집중적인 수탈을 실시했다. 1943년 일본 차관회의에서 “여자근로동원 촉진에 관한 건”<sup>66)</sup>을 결의하였으며, 1944년 “여자정신대제도 강화방책요강”<sup>67)</sup>을 결의하여 국민등록자인 여자를 여자정신대로 조직해서 필요한 업무에 협력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같은 해에 “여자정신대원 인수 촉 조치 요강”<sup>68)</sup> 결의와 “여자정신근로령”<sup>69)</sup>을 공포하여 일본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시

---

61) 1939년 9월~1942년 2월.

62) 1942년 5월~1945년 8월.

63) 1942년 2월~1945년 8월.

64) 1944년 9월~1945년 8월.

65)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1939년 7월 전쟁 수행을 위하여 일본인 및 식민지민을 강제로 동원시키기 위해 시행한 명령이다. 1940년 10월과 1941년 12월, 1943년 7월, 1944년 2월 개정을 통해 징용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해 갔다(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네, <http://contents.history.go.kr>).

66) 1943년 9월 13일 결의.

67) 1944년 3월 18일 결의.

68) 1944년 6월 21일 결의.

69) 1944년 8월 23일 공포.

행하였다.<sup>70)</sup>

이와 같은 법적근거로 일제는 12세부터 40세까지의 결혼하지 않은 조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 까지 끊임없이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들 여성들이 강제로 투입된 노동현장은 도쿄아사이토방적<sup>71)</sup>, 미쓰비시중공업<sup>72)</sup>, 후지코시<sup>73)</sup> 등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군수공장, 무기의 원료가 되는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 양금석과 김경남의 경우와 같은 방적공장 등 다양한 곳이었다.

여자근로정신대는 조선 여성의 노동력 갈취를 위한 강제동원이라는 점에서 일제의 잔인무도한 공권력에 의한 납치, 인신매매 등으로 전쟁 위안소(慰安所)에 강제로 끌려와 일본군에게 성폭력과 성적학대를 당한 성(性)동원(일본군 '위안부')과는 의미와 제도의 차이점에서 구분되

---

70) 서울고등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항소심 소송 판결문', 2019년 1월 30일.

71) 2013년에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이 발표한 일본에 현존하는 34개 전범기업 중의 하나이다.

72)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일본 최대의 중공업 회사이자 방위산업 기업이며,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 3대기업 중의 하나이다. 1870년 미쓰비시의 설립자 이와사키 야타로는 정부 소유의 나가사키 조선소를 리스하여 풀스케일 조선소로 운영한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가사키 조선소는 전후에도 미쓰비시의 핵심 조선소로 남았다. 1934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은 일본 제국 최대의 민간 기업이었으며 전투기, 기차, 전함 등을 제조하였다. 식민지 국민 강제동원으로 유명하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군사 무기를 미국에게 판매 하여 많은 소득을 올렸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73)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기계공구 제조사인 후지코시는 1928년 도야마 시에서 창업했다. 그 후 항공기나 군함 등의 무기 부품을 생산하면서 군수공장으로 발전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전황이 악화되면서 후지코시는 부족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의 소녀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군부에 로비를 한다. 곧이어 1944년, 직접 한국으로 가 어린 아이들을 연행한다. 후지코시 사사(社史)에 따르면 그 수가 여자 1090명, 남자 540명 등 모두 1600명을 넘는다. 한국인 여자동원공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임금마저 착취했다. 후지코시는 침략전쟁의 적극 가담자를 자칭하고, 어린 소녀들을 강제 연행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전범 기업이다. 패전 후에는 일본정 부로부터 막대한 전시보상 혜택을 받아 살아남았다. 후지코시 상표인 'NACHI(나치)'는 쇼와(昭和) 일왕이 타고 다닌 배 '나치(那智)'에서 인용한 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직 '천황을 숭배하고 국가와 혼연일체가 돼 침략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절 반성도 하지 않는 기업임을 자임하는 셈이다(경향신문, <https://www.khan.co.kr>, 2010년 06월 06일).

고 있다. 하지만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정신대, 여자근로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종군위안부<sup>74)</sup> 등의 명칭이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곡성군 양금석, 김경남의 안타까운 사례처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여성들이 귀향이후에도 지금까지 가족과 친지, 마을사람 등에 의하여 거듭되는 상처와 피해를 당하고 있다.

### - 사 례 -

“해방이 되자 ‘광주의 방직공장’에서 나와 혼자서 버스를 타고 곡성으로 귀향하였지만, 마을사람들이 일본군‘위안부’로 오해하고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등으로 매우 힘들고 괴로웠다.”

- 양금석의 구술 -

“내가 ‘위안부 귀향자’로 오해 받을까봐 어릴 적에 곡성에서 ‘광주 방직공장’으로 강제 징용된 억울한 사실을 차마 가족들에게 조차 이야기하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왔다.”

- 김경남의 구술 -

이 같이 잘못된 사회적 인식에 의한 편견과 차별 등의 결과가 나타난 김경남과 양금석의 사례(實例)에서 보여 지듯이 일제강점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과 단체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

74) 종군위안부는 “성(性)동원 피해여성들이 일제의 강제성 없이 스스로 군대를 따라가 위안부가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 매우 부적절한 용어이다.



교과서 등에서 정신대, 군 위안부, 종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 등의 용어를 명확한 정의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이 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를 동일(同一)하게 생각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와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sup>75)76)</sup>

75) 정신대는 남 녀 성별에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상징적인 용어였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광의의 정신대가 아닌 협의의 정신대로 수용되어 정착되었다. 즉 ‘일본군‘위안부’와 동일한 의미로 수용되어 확산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한반도와 일본 등에서 일하다 온 노무동원 여성피해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결과를 낳았다. 8·15 해방 이후 집을 떠난 소녀들이 겪은 참상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신대=일본군‘위안부’라는 도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국 사회에 제기하는 과정에서 단체 명칭에 ‘정신대’를 사용하면 ‘정신대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는 등식이 확립되었다. 그 결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가족들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나, 한국 정부나 사회는 이 문제를 방기했다. 그 정도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할머니들이 대다수였고, 현재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는 할머니도 계셨으며, 심지어 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발각되어 쫓겨난 기구한 할머니도 계셨다. 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가증스럽게 평생을 속이고 살았다는 비난과 거짓말쟁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다문화방송신문, <https://www.wdmnews.kr>, 2020년 01월 20일).

76) 정혜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한 교과서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0년.

## 2. 오경섭과 “해군군속(海軍軍屬)”

곡성군 강제동원 군속 생존피해자인 오경섭이 당시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sup>77)</sup> 마을 자택에서 순경 등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생활을 한 일본 나가사키<sup>78)</sup> 좌세보<sup>79)</sup> “해군군속(海軍軍屬)”은 지금의 군무원으로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군속(軍屬)”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군속은 군무원 이전에 사용되었던 용어이며, 군무원(軍務員)은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육·해·공군 본부 및 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군속동원”은 우리나라 특별법<sup>80)</sup>에서 ‘군속’이 아닌 ‘군무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는 당시 ‘조선인들의 군속 강제동원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77)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는 1리부터 8리까지 총 8개의 마을이 있다.

78) 일본 규슈 북서부에 있는 현.

79) 일본 규슈 나가사키 현에 있는 특례도시이다. 19세기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발전하였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가 있어 군사항구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8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

“군속의 강제동원 경로도 다양하고 동원지역에 따라 동원방식과 사후(死後) 명부관리도 가변적이었으며, 각종 법령에 의한 동원과 현지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차출 및 신분 전환 방식이 적용되기도 했다.

당시 군속은 군노무자와 기타 군 요원으로 문관, 운전수, 간호부, 포로감시원 등으로 분류되었는데, 다수는 군부, 고원, 용인이라 불리는 군노무자였으며, 군노무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포로감시원이었다. 포로감시원은 타이완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충당했는데 한반도에서는 1942년 6월에 모집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각 읍면에 인원수를 할당하여 면서기와 순사들을 앞세워 3,223명의 청년들을 강제동원해 노구치부대에서 2개월간 사격과 총검술 등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한 후 한반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뉴기니, 미얀마, 태국 등의 포로수용소에 배치했다. 이들은 패전 이후 연합군에 의해 포로에 대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BC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보르네오 등지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었지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본 당국의 철저한 책임 회피와 식민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129명이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20명이 처형되었다.”<sup>81)</sup>

일본군 군속으로 필리핀 만다나오 전투까지 경험한 오경섭의 사례처럼 태평양전쟁의 최전선 해군기지에 배속된 해군군속, 아시아의 최전

---

81)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방에서 군인들을 지원하는 육군군속, 전쟁의 포화 속에서 비행장과 군 용도로 등의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육·해군 군속 등 수많은 조선인들이 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인 만큼이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당시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동원 되었던 조선인은 아래와 같이 155,567명으로 이 들 중에서 육군군속 11,337명 사망, 해군군속 11,375 명 사망으로 총 22,712명의 강제동원 군속 조선인들이 고향으로 돌아 가지 못하고 사망하였다.<sup>82)</sup>

강제동원 조선인 군속<sup>83)84)</sup>

구분	강제동원 연도	강제동원 군속 조선인 수(數)			
		복원(명)	사망(명)	소계(명)	
강제 군속동원	육군군속	1938년~1945년	66,315	11,337	77,652
	해군군속	1938년~1945년	66,540	11,375	77,915
	총계(명)		132,855	22,712	155,567

위의 표에 드러나듯이 수많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군 군속 생존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해를 보상해주는 국가

82) 추정치(推定値)이다.

83) 정운현, 『일제동원 8백만을 위한 진흥사』, 월간 옵서버, 1991년.

84) 이상훈, 『강제동원 및 피해보상의 문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10년.

적 차원의 노력이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학계 등 민간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나 연구 또한 일제의 강제동원이 근대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3. 홍희조와 “근로보국대(勤勞報國隊)”

홍희조는 일제에 의하여 원통하게도 1942년과 1945년 두 번이나 근로보국대로 강제동원을 당하는 피해를 입으셨다. 처음에는 13세의 어린나이에 강제 지명되어 전라남도 여수에서 노역생활을 하셨다. 귀향 이후 영장이 발부되어 16세에 같은 마을 양이식(양이석)<sup>85)</sup> 등과 함께 평안남도 강서군<sup>86)</sup>의 제철소 관련 노동현장으로 두 번째 강제동원을 다녀오셨다.<sup>87)</sup>

홍희조는 마을의 동장<sup>88)</sup>에게 “보국대(報國隊)”<sup>89)</sup>로 지명되어 여수에서 첫 번째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는 곡성군에서 발부한 영장이 나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서군으로 강제 동원을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셨다.

---

85) 양이식으로 구술을 하셨으나, 추후조사 결과 양이석으로 확인됨.

86) 평안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군이다. 동쪽은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동군 중화군과 마주보고 있으며, 남쪽은 용강군, 서쪽은 서한만 그리고 북쪽은 평원군과 서로 접하고 있다.

87) 홍희조의 사례처럼 노무자로 동원되었던 조선인들이 귀향이후 지명 또는 명장 등에 의하여 1~2차례 노동현장으로 강제동원 되어 노역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치않게 발생하였다.

88) 지금의 마을 이장.

89) 국민근로보국대의 약칭이다.



이와 같이 본인과는 무관하게 마을 동장의 지명과 곡성군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강제동원을 당한 홍희조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일제강점기 당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조선인 강제 노무동원을 책임진 사람은 군과 읍·면 단위 지방관청에서 근무하는 노무계(勞務係) 공무원이었다.<sup>90)</sup>

군에서 읍·면에 동원할 조선인 노무자의 수를 배정하면 읍·면사무소의 노무계가 책임지고 모집인원을 채우는 형태였다. 각 지역의 읍·면사무소 노무계는 구장, 경찰, 동장 등을 활용하고, 회유, 협박, 강요를 통하여 읍·면에 배정된 조선인 노무자를 충원하였다.<sup>91)</sup>

홍희조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명되어 강제 노역생활을 하게 된 보국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가장 많은 조선인 강제동원피해자가 발생하였던 “국민근로보국대(國民勤勞報國隊)”을 일컫는 용어이며, ‘근로보국대’ 또는 ‘보국대’로 약칭해서 사용되었다.

근로보국대는 “근로를 통해 나라를 지킨다”는 뜻으로 일제가 “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sup>92)</sup>에 의거하여 학생, 여성, 농촌 등의 조선인들을 강제동원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다. 1939년 경기도에서 처음 운영하였으며,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근로보국대의 편성은 각 부·읍·면의 학교, 청년단, 정·동·리(町·洞·里),

90) 1940년 이후 태평양전쟁이 점차 가열하여 감에 따라 한국인 노무자를 동원하여 근로보국계 한다는 미명하에 “노무계”를 두었다가 1943년 전시동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무계를 ‘동원과’로 승격시키기에 이르렀다(사천시, 『사천시사』, 2003년).

91) 서혜선,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산의 조선인 노무자 실태에 관한 연구 (1939~1942년)」,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2013년.

92) 1938년 7월 1일 시행.

부락연맹(部落聯盟) 등 각 단체마다 필요성에 따라 편성되었다.<sup>93)</sup>

강제동원 분야는 총 동원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에 관한 업무, 총동원 상 필요한 운수, 통신, 위생, 구호에 관한 업무, 군사작전에 필요한 토목건축 업무에 주로 동원되었는데, 노약자, 불구자, 환자 등을 제외하고 근로 능력을 가진 전 조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sup>94)</sup>

이와 같은 근로보국대는 일제 공권력에 의한 군인, 군속, 노무, 일본군 ‘위안부’ 등 여러 가지 유형의 강제동원 중에서 “노무동원(勞務動員)”<sup>95)</sup>의 한 형태이다.

노무동원과 같은 조선인 강제 인력동원 피해자는 일제의 계획적·조직적·폭력적인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동원되어 국내·외 각종 산업 현장에서 노동력 등을 강제로 착취당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이 주로 강제동원되었던 지역은 한반도,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사할린 등지들이며, 그 곳에서 주로 군수공장, 군 기지 건설현장, 광산, 항만물류작업장, 제철소, 토목건축현장 등에 투입되어 노동력을 갈취 당하였다. 이 같은 강제 노무동원피해자들의 지역별 노무자 동원 작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96)</sup>

93) 이상의, 『1930~40년대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동원체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3년.

94) 조원준, 『일본 강점기하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에 관한 실태연구 - 일제말기 노동력 동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2006년.

95)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하여 정책적, 조직적, 집단적, 계획적으로 진행한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9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2005년 2월부터 2015년 11월 말까지 ‘강제동원 작업장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작성하였다.

### 동원 지역별 노무자 동원 작업장 실태<sup>97)</sup>

지역	작업장(개소)	주요직종
계	12,095	
한반도	7,467	탄광, 광산, 항만 운수, 군수 공장, 군 공사장, 토목건축 공사장
일본	4,119	탄광, 광산, 항만 운수, 군수 공장, 군 공사장, 토목건축 공사장
남사할린	77	탄광, 삼림 채벌장, 토목건축 공사장, 공장
태평양	112	광산, 군 공사장, 항만 운수, 토목건축 공사장, 공장, 농장
동남아	4	공장(제철소), 농장
중국·만주	316	탄광, 군 공사장, 토목건축 공사장, 농장

위와 같이 노무자로 국내·외 노역현장에 강제동원 되었던 사람들은 일본 정부 공식 기록에 의하면 ‘연인원은 5,782,581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반도 내의 노무자 강제동원은 보국대를 활용한 도내(道內) 위주의 동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sup>98)</sup> 이들은 1주일~1개월 동원<sup>99)</sup> 또는 3개월 내외<sup>100)</sup> 등 단기간 동원이 일반적이지만 동원 횟수가 “다수”라는 점이 특징이다.<sup>101)</sup>

이와 같은 사실은 전라남도 여수와 평안남도 강서군으로 두 번이나 강제동원 당한 홍희조의 사례에서도 증명(證明)이 된다. 이처럼 근로

97)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98) 도내(道內)동원이란 거주 지역과 동일한 도 관내에 있는 지역으로 동원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99) 학생 강제동원.

100) 주민(일반인) 강제동원.

101)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보국대로 동원된 노무자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2~3회 정도 추가적으로 강제 노무동원을 당하였으며, 일부는 군인 또는 군속 등으로 재차 강제동원 되는 피해를 입었다.

곡성군 생존피해자 홍희조의 사례처럼 만주사변<sup>102)</sup> 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될 때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 피해자들은 2004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자료에 따르면 총 7,879,708명으로 국내 6,126,180명, 국외 1,390,063명, 군속 363,465명에 달하였다.<sup>103)</sup>

이같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 공권력에 의해 가혹하고 혹독한 환경의 노동현장에서 강제 노역생활을 하였다.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매듭 짓는 세부 법안(法安) 등의 방안마련과 함께 시행(施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102) 일제가 1931년 9월 중국 동베이(東北) 지방을 침략한 전쟁으로 중일전쟁의 발단이 되었다.

103) 국가기록원, '강제동원피해자 명부' - 명부소개, 2020년.

#### 4. 일제강점기의 “곡성군(谷城郡)”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김경남과 오경섭 그리고 홍희조가 살고 있었던 일제강점기 당시 “곡성군(谷城郡)”은 일본이 병합된 조선을 식민 지배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1913년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고 이듬해에 부·군·면을 통폐합(統廢合)<sup>104)</sup>하는 과정에서 1914년에 창평군<sup>105)</sup>에 예속되었던 옥과군을 곡성군으로 통합하고 곡성면을 소재지로 군청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구례군 고달면, 순천군 주암면 구촌, 남원군 금암면 석전리 등을 곡성군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도상면과 예산면을 합쳐 곡성면<sup>106)</sup>으로, 오지면과 우곡면을 합쳐 오곡면으로, 옥산면과 수면을 옥과면으로, 지면을 검면으로 통합하여 곡성군과 옥과군의 14개에 이르는 면을 10개면으로 통폐합하였다. 1910년 곡성면에 공립 곡성보통학교<sup>107)</sup>가 개교되었었으며, 1917년 옥과면에 사립 양영학교가 공립 옥

---

104) 일제에 의하여 1914년 3월과 4월에 전국의 부·군·면 통폐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05) 지금의 담양군 창평면.

106) 지금의 곡성읍.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곡성면이 곡성읍으로 승격되었다.

107) 지금의 곡성중앙초등학교.

과보통학교<sup>108)</sup>로 개칭되어 운영되었다.

1919년 3월에 곡성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1920년대에  
는 곡성노동회, 옥과노동회 등의 사회주의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였  
다. 1930년대에는 전국적인 농촌계몽이 전개되면서 곡성군 또한 야학  
과 청년회 등이 조직되어 활발한 계몽운동이 진행되었다. 1940년대의  
곡성군은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군수품 보급과 일본군 총원 등을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민간인 강제동원, 물품 수탈, 농산물 약탈 등을 자  
행하여 수많은 곡성군민들이 피해를 입었다.<sup>109)</sup>

8·15 해방이후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곡성면이 곡성  
읍으로 승격됨으로써 11개면에서 1읍 10면 126 리로 개편된 후, 1983  
년 2월 15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석곡면 운룡리가 순천시 주암면에 편입  
됨에 따라 현재의 1읍 10면 125리가 되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곡성군 총 세대수는 15,414세대로서 총 인구수 28,039명<sup>110)</sup>이며, 남자  
13,707명(48.9%), 여자 14,332명(51.1%)이다.<sup>111)</sup>

---

108) 지금의 곡성군 옥과초등학교.

109) 곡성군, 『곡성군지』, 2018년.

110) 외국인 제외.

111) 곡성군 홈페이지(<https://www.gokseong.go.kr>).



## 5. 구술조사 결과

### 1) 2015년~2018년 구술조사 결과

구술조사란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들이 경험한 과거의 사건 또는 생애사 등을 구술하여 영상, 음성, 문자 등으로 기록된 녹취록에 의거해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구술조사는 구술 면담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증언 채록에 의지한다.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개인의 내밀한 의식과 기억을 채록하여 문헌자료화 하는 하나의 개인 생애사의 역사서이다. 따라서 개인의 생애사를 증언하여 채록하는 구술자들은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구술조사의 결과물인 구술자료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소유되어 몇 세대에 걸쳐 구술적으로 전승되는 구전(口傳)<sup>112)</sup>과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회고로서 구술사(口述史)<sup>113)</sup> 두 범주

---

112) 구전(Oral Tradition).

113) 구술사(Oral statement).

로 구분되며, 구술사는 구술증언(口述證言)<sup>114)</sup>과 구술생애사(口述生涯史)<sup>115)</sup>를 포함한다.<sup>116)</sup>

이와 같은 구술조사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곡성군 11개 읍·면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의 개인 생애사를 구술 채록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및 배우자의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의 구술진술(口述陳述) 등을 통한 곡성군의 강제동원 자료 수집과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2017년 구술조사 당시에는 군속(해군군속) 오경섭 그리고 여자근로정신대 양금석과 그동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알려지지 않았던 삼기면 김경남까지 총 3명이 생존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었다. 곡성군과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협회 등의 관련 기관과 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던 김경남을 2017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소기의 성과로 볼 수 있었다.

조사당시 오곡면 1922년생 오경섭, 고달면 1929년생 양금석, 삼기면 1930년생 김경남. 세 분께서는 고령의 연세에 의하여 건강이 많이 연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강제동원 생존피해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2018년에 양금석을 제외하고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수집 사업”으로 그동안 강제동원 생존피해자로 파악되지 않았던 김경남의 여자근로정신대와 오경섭의 군속(해군군속) 그리고 6·25 한국전쟁 경험 등에 대해

---

114) 구술증언(Oral Testimony).

115) 구술생애사(Oral History).

116) 지영임, 「구술을 통해본 일제하 제주도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사회와 여가」, 『한국사회사학회』, 제7집, 2006년.

여 구술조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 김경남의 가정환경과 소학교 시절, 강제동원 형태와 이유, 강제동원 노역장의 경험, 귀향 후 결혼생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오경섭이 경험한 일본 해군기지 노역장 이동과정, 일본 노역생활과 휴가과정, 태평양전쟁의 참전내용, 필리핀 민다나오 전투 희생자와 귀향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김경남, 오경섭이 경험한 8·15광복 직후의 곡성군 상황, 6·25 한국전쟁 당시 곡성군의 실정(實情), 인민군과 빨치산, 오경섭의 6사단 중부전선 전투 및 부상 그리고 대구와 부산 야전병원 입원 등에 대하여 구술체록 하였다.

조사 당시 마주보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경남과 오경섭 두 분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하여 얼굴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들이 구술한 내용들이 변형(變形)되고 가공(加工)되지 않도록 공적인 감정으로 바르게 기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김경남과 오경섭 두 분께서 경험하고 구술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사실 등은 일제 식민통치의 또 다른 증거(證據)들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곡성군의 지역사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귀중한 역사 자료들이다.

## 2) 2019년~2020년 구술조사 결과

2019년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및 배우자” 이외에도 “형제자매와 자녀들”까지 ‘구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 미처 파악되지 못한 곡성읍 대평리<sup>117)</sup>(강제동원 당시 거주지) 1921년생 “이춘식”, 죽곡면<sup>118)</sup> 동계리<sup>119)</sup>(강제동원 당시 거주지) 1927년생 “김갑영”, 곡성읍 묘천리<sup>120)</sup>(강제동원 당시 거주지) 1930년생 “홍희조” 이상 3명의 강제동원피해자가 생존하신 것으로 추가 조사되었다.

죽곡면 동계리에서 노무자로 강제동원을 당하신 1927년생 김갑영은 2019년 조사 당시 곡성읍에서 살고 계셨으나, 문밖을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여의치 않았다. 가족들과 유선으로 협의하여 김갑영의 기력이 조금이라도 회복된 이후에 구술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20년 12월 현재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면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으로 국외 강제동원을 다녀오신 1921년생 이춘식 또한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곡성읍 대평리 자택에서 생활하고 계셨다. 의사소

---

117)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는 1리부터 3리까지 총 3개의 마을이 있다. 큰 마을이라 하여 대리(大里)라고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거 대리와 마평(대평 3리)을 합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118) 백제 22대 문주왕 475년부터 고려말 창왕 1389년 “곡성현청”을 지금의 곡성읍으로 이설할 때까지 곡성군의 소재지였다.

119)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는 1리부터 3리까지 동계, 창기, 삼송 총 3개의 마을이 있다.

120)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는 1리부터 2리까지 총 2개의 마을이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오곡면에 속하였으나, 1973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곡성읍(당시 곡성면)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이 어려워 간접적으로 칠남매의 자녀 중 셋째 딸인 1957년생 이숙자를 통해서 2019년 12월 10일 구술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2020년 9월 22일에 작고(作故)하셔서 영면(永眠)에 드셨다.

전라남도 여수와 평안남도 강서군으로 두 번이나 강제동원을 다녀오신 1930년생 홍희조는 2019년 10월 2일 자택에서 배우자인 1933년생 임이순과 함께 구술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에 건강이 여의치 않으셔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안타깝게도 2020년 9월 6일에 작고(作故)하셔서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셨다.

홍희조의 2019년 구술 조사에서 본인의 가정환경, 어린 시절의 경험, 강제동원 방식, 강제동원 당시 주변 환경, 두 번의 강제동원 당시 본인 마음, 첫 번째 전라남도 여수 노역의 경험, 두 번째 평안남도 강서군 강제동원의 경험, 두 번의 강제동원 당시 이동수단과 경로, 귀향 후 본인의 생활, 6·25 한국전쟁 당시의 경험, 본인의 가정생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2019년과 2020년 2년 동안 강제동원피해자의 배우자 박덕례,<sup>121)</sup> 빙애님,<sup>122)</sup> 배태민,<sup>123)</sup> 양덕례,<sup>124)</sup> 조경님<sup>125)</sup> 등과 김묘순,<sup>126)</sup>

---

121)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김기호의 배우자.

122) 강제 군인동원피해자 유환복의 배우자.

123)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박일권의 배우자.

124) 강제 군인동원피해자 박성만의 배우자.

125)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권이정의 배우자.

126)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김형구의 동생.

장영규,<sup>127)</sup> 양순례<sup>128)</sup> 등의 형제자매, 김경식,<sup>129)</sup> 김오남,<sup>130)</sup> 김판용,<sup>131)</sup> 권신태,<sup>132)</sup> 이은배,<sup>133)</sup> 이숙자,<sup>134)</sup> 문철호,<sup>135)</sup> 박종모,<sup>136)</sup> 박형관,<sup>137)</sup> 조숙,<sup>138)</sup> 정성해,<sup>139)</sup> 양귀현,<sup>140)</sup> 차옥자,<sup>141)</sup> 신금순<sup>142)</sup> 등의 자녀들과 조카 등 다수의 곡성군 강제동원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구술조사를 진행하였다.

본인들이 강제동원피해자인 남편과 부모, 형제 등에게 전해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방식, 노역장 이동경로, 귀향 후 생활 등과 유족들의 강제동원에 대한 인식, 사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에 대한 인식,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사죄,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생각, 자녀들에 대한 희망 등을 문답식으로 구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곡성군 강제동원피해자 유가족 구술 조사의 결과물을 의미한 구술 자료로서의 보존과 연구 활용이 용이한 “녹취록 제본” 및

---

127) 강제 군인동원피해자 장영규의 동생.  
 128)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양원식의 동생.  
 129)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김주동의 자녀.  
 130)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김형구의 자녀.  
 131)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김천만의 자녀.  
 132)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권이정의 자녀.  
 133) 강제 군속동원피해자 이강희의 자녀.  
 134)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이춘식의 자녀.  
 135)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문희선의 자녀.  
 136) 강제 군속동원피해자 박린기의 조카.  
 137) 강제 군인동원피해자 박성만의 자녀.  
 138)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조용근의 자녀.  
 139)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정사문의 자녀.  
 140)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양소판암의 자녀.  
 141) 강제 노무동원피해자 김기호의 제부(弟婦).  
 142) 강제 군인동원피해자 유환복의 지인(知人).



“D·V·D”로 제작하여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게 하였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한 구술조사를 진행하면서 민족 수난(民族受難)의 35년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사실 등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역사적 인식이 다소 안일(安逸)하고 부족(不足)하다고 느껴졌다.

이는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일제강점기 역사에 관한 단위(單元)”을 초·중·고·대학교의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한다면 정부관계자나 일반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혜경박사<sup>143)</sup>가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실상(實狀)을 직시한 다음 글을 우리정부와 국민들께서도 잊지 말고 유념(留念)하시기를 소망(所望)한다.

“아베 신조 수상의 취임과 함께 침략전쟁을 부정(否定)하는 일본 우익의 목소리가 뜨겁다. 역사 교육을 등한시한 한국 사회가 감당할 몫은 무겁고도 무겁다.”<sup>144)</sup>

---

143) 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지원3과장.

144) 정혜경,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도서출판 선인, 2013년.



# 구술조사의 연구사적 의의

1. 『히로시마 구레 조선인 동원공 폭동사건 재판 기록』과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동원공 폭동사건』 비교 분석
2. 강제동원 “노역장 이동경로”
3. 강제동원 “희생자”
4. 강제동원 생존피해자와 “6·25 한국전쟁”

## 1. 『히로시마 구레<sup>145)</sup> 조선인 동원공 폭동사건 재판 기록』<sup>146)</sup>과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동원공<sup>147)</sup> 폭동사건』 비교 분석

곡성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오경섭의 생애사와 관련된 구술 채록과 보존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오경섭의 구술에서 나타난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군속동원공의 폭동과 최근 발견된 히로시마 구레 해군공창 조선인 군속동원공의 재판기록을 비교해 보면 폭동 대상 및 동기 등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로시마 구레 해군공창<sup>148)</sup> 조선인 동원공 폭동에 대한 재판기록은

---

145) 일본 혼슈 남서부 히로시마현(廣島縣)에 있는 도시이다. 산으로 둘러싸인 훌륭한 천연항구로서 산이 많은 섬으로 가리워져 있다. 이렇게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1886년에 주요 해군기지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구레의 조선소와 주물공장에서는 '아마토(大和)라는 사상 최대의 전함을 건조했다. 지금은 수출용 상선과 유조선을 건조한다(다음백과, <https://100.daum.net>).

146) 곤도노부오(近藤伸生), 『히로시마(広島) 구레(呉) 해군공창 조선인징용공들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을 읽고』, 『한일민족문제연구』 225-252, 한일민족문제학회, 2013.

147) 『히로시마(広島) 구레(呉) 해군공창 조선인징용공들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을 읽고』의 원문에는 징용공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동원공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표기하였다.

148) 해군의 함선 병기 등의 제조 수리 등을 맡아보는 기관.

1944년 3월 26일 언도된 해군군사재판으로 “반도인<sup>149)</sup> 공원(工員)들은 물자배급과 식사 그리고 규율 위반자 제재에 대하여 이기적이며 방일적(放逸的) 견해를 갖고 지도원에 반감을 갖고 일으킨 폭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폭동 참여자들이 최고 징역 4년과 최하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은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에 나타난 히로시마 구레 해군공창 조선인 군속동원공들이 일으킨 폭동과 오경섭의 구술에서 나타난 나가사키 좌세보 해군 조선인 군속동원공들의 폭동이 참가 대상, 참가 동기, 참가 과정 등이 거의 동일(同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가사키 좌세보 군속동원공과 히로시마 군속동원공들의 폭동을 다음 <표 1>과 같이 비교 분석 해 보면, 오경섭 구술이 당시 해군 조선인 군속동원공들의 생활환경과 노동환경, 민족적 차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구술기록임을 알 수 있다.

<표 1>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동원공과 히로시마 구레 조선인 동원공 폭동

	나가사키 좌세보 폭동	히로시마 구레 폭동
참여자	조선인 군속동원공	조선인 군속동원공
인원	몇백 명	700여 명
동기	식사 배급 등 조선인 차별	물자와 식사 배급 불만 공원 제재 불만 지도원에 대한 반감
과정	돌과 몽둥이 등을 이용한 폭동	알 수 없음
목적	조선인 차별금지	조선인 차별금지

149) 조선인.



의미	조선인 차별에 대한 항거	조선인들의 생활환경·조업상황·차별상황에 대한 항거
진압	구타 등의 무력진압 주동자 고문(拷問)	알 수 없음
군법회의 재판관	알 수 없음	판사 2명, 법무관 1명, 총 3명의 합의체
적용법	알 수 없음	해군형법, 형법
검찰관	알 수 없음	해군 법무 중위
변호사	알 수 없음	없다(추측)
판결	알 수 없음	독립운동 최고 징역 4년, 최하 1년의 실형판결
피해	홍국열 사망(조선인)	전치 3주에서 1개월 타박상(일본인)

위의 <표 1>에서 나타듯이 나가사키 좌세보와 히로시마 구레 폭동은 조선인 군속동원공들에 대한 식사와 물자 배급 등의 민족적 차별과 불만으로 시작되었다.

히로시마 폭동은 나가사키와 같이 소규모 조선인들의 처우개선 건의와 항의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무력시위로 규모가 확대되어 수백 명의 조선인 군속동원공들이 돌과 몽둥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기록되지 않은 히로시마 구레 군속동원공 폭동에 대한 진압은 나가사키와 같은 일본 헌병의 무력을 사용한 진압과 주동자 색출을 위한 구타와 강제 취조 그리고 고문 등이 거침없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나가사키 조선인 폭동에 대한 군사재판도 히로시마 구레와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선인 군속동원자들에게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단순한 작업장의 조선인 군속동원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노동환경 등에 의한 단순무력 시위가 아닌 조선 독립운동으로 확대하여 과한 처벌을 정당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해군헌병들의 히로시마 구레 군속동원자 폭동 또한,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군속동원자 폭동의 진압과 주동자 색출을 위한 취조와 고문과정에서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홍국열이 사망한 것 같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경섭의 구술에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나가사키 좌세보 또한 일본인 노무자들과 처우를 차별하여 조선인 군속동원공들에 대한 식사 이외에도 피복 등의 물자배급과 과도한 규율 제재 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오경섭의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동원공 폭동 구술”과 “히로시마 구레 해군공창 조선인 동원공 폭동에 대한 재판기록”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당시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군속동원공과 히로시마 구레 조선인 군속동원공들에게 일본인 노무자와 다른 식사와 물자배급 등의 민족적 차별(民族的 差別)이 존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재판기록과 오경섭의 구술 등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조선인들의 생활환경과 노동환경 등을 대략적으로 헤아려 볼 수 있다.

일본군 군속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 군속동원자들 대부분이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군속동원공과 히로시마 구레 조선인 군속동원공과 같이 민족적 차별, 열악한 식사와 물자배급, 과도한 규율 제재 그리고 인권을 무시한 고문과 구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의 비슷한 작업환

경에서 강제노역한 것으로 유추(類推)해 볼 수 있다.

또한 “히로시마 구레 해군 군속 조선인 군속동원공 폭동 재판기록 보관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나가사키 좌세보 해군 조선인 군속동원자 폭동 재판 기록”이 일본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조사하여 일제강점기 강제 군속동원자들의 피해 등을 규명하는 역사자료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 2. 강제동원 “노역장 이동경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의 일부 기관과 사회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들의 구술조사가 거의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학술기관 역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곡성군 오경섭, 홍희조, 김경남의 구술 조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생애와 실태를 파악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경섭의 구술을 통해 본인의 마을인 곡성군 오폭면 오지리에서 군속(해군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일본 나가사키 해군 노역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당시 오경섭은 곡성면<sup>150)</sup>에 소재하고 있는 춘장집 북경원<sup>151)</sup>으로 김형춘,<sup>152)</sup> 김복기,<sup>153)</sup> 홍국열<sup>154)</sup> 등 같은 마을 3명의 청년과 곡성군 전역에서 강제로 동원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함께 집결하여 식사를 하였다. 이후 삼엄한 감시 속에 곡성역에서 대전까지 전라선 상행 기차로 이동한 이후에 경부선 기차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였다. 부산항에서 가마쿠라마루 연락선에 승선(乘船)하여 일본 시노모세키로 이동한 후 자신들이 배치 받은 작업장으로 각자 흩어져 강제 노역생활을 하였다.

흥희조의 첫 번째 강제동원 노역장까지의 이동경로는 오곡면 소재의 곡성역<sup>155)</sup>에서 전라선 하행 열차를 타고 여수의 노역장으로 이동하였으며, 귀향과정도 같은 방법으로 전라선 상행 열차를 타고 곡성으로 왔다.

평안남도 강서군의 두 번째 강제동원 노역장까지는 흥희조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군청으로 집결하여 곡성역까지 걸어서 도착하였다. 이후 여수에서 올라오는 석탄열차의 짐칸을 타고 서울역을 경유하여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평양에서 각자 배정받은 강제노역장소

150) 지금의 곡성읍이다. 1973년 7월 1일 오곡면에 속하였던 묘천리가 곡성면으로 편입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로 곡성면이 읍으로 승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51) 일제강점기 당시 곡성군청 인근에서 중국인 화교가 운영하던 중화요리 식당이며, 지금은 없다.

152)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구 출신으로 일본 나가사키에서 대만으로 이동하면서 헤어진 이후 생사여부 등의 소식을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153)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6구 출신으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미군 폭격으로 사망하셨다고 진술하셨다.

154) 정확하지는 않지만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8구 출신으로 기억나신다고 하셨다.

155) 구) 곡성역으로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에 최초 곡성역으로 개설되어 1933년 10월 15일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1999년 2월 25일 전라선 복선화 완료와 함께 폐쇄되었다. 지금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용 기차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로 트럭 또는 열차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남의 구술에서는 타의(他意)에 의해 여자근로정신대로 소속되어 강제동원된 곡성군 여성피해자들이 광주에 있는 가네가후치공업의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으로 배치되는 과정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노역장 이동경로는 해군군속 오경섭과 근로보국대 홍희조의 사례처럼 각각의 마을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곡성군 소재지가 있는 곡성면의 군청 또는 중국집으로 집결하여 단체로 이동한 방법 등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김경남 등 곡성군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피해자들은 삼기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차량으로 광주 가네보방적 전남공장까지 이동한 이후 작업부서에 배치되어 노역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곡성군지 등의 지역사 관련 사료(史料)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사실들이며, 연구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일제강점기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던 곡성군민들의 억울한 피해사실 등을 규명하고 밝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강제동원 “희생자”

김경남의 구술을 통하여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사실이 나타나지 않았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1명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김경남이 강제동원 될 당시 함께 있었던 삼기면 “수산리<sup>156)</sup> 처녀 1명”과 “연봉리<sup>157)</sup> 처녀 1명” 그리고 광주 가네보방직 전남공장에서 같이 노역한 “옥과댁 1명”과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옥과댁 남편 1명”, “오지리 처녀 1명” 총 남녀 5명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김경남은 곡성으로 귀향한 후 지금까지 그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들 5명 모두의 성명 등 구체적인 신상내력에 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였다.

차후(此後)에 김경남이 구술한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홍희조 또한 평안남도 강서군으로 함께 강제동원된 피해자들로 “양이석”, “유환복”, “김개식”, “유경옥” 등을 진술하였으나, 이들 중에서

---

156)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이며, 1리부터 2리가 있다.

157) 곡성군 삼기면 과소 1리를 일컫는 지명이다.



양이석 만이 배우자의 성명과 함께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피해신고 관리대장에서 명단이 확인되었다. 미처 조사되지 않은 유환복, 김개식, 유경욱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그들의 억울한 피해사실 등을 밝히고 기록해야 한다.

오경섭이 구술한 군속(해군군속) 강제동원희생자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홍국열”은 나가사키 좌세보 조선인 군속동원공 폭동 당시에 실질적인 조선인 폭동을 주도한 전라북도의 이리(裡里)<sup>158)</sup> 대학생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주동자로 누명을 쓰고 일본 해군 헌병들의 구타와 잔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향인 곡성으로 강제 귀향한 후 사망하였다.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군속(해군군속) 강제동원희생자 “김복기”는 오경섭과 함께 나가사키 좌세보에서 노역을 한 이후 소속 해군 부대가 태평양전쟁에 참전하게 되어 본인도 군속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대만 태북항을 거쳐 필리핀 민다나오 해군기지에서 강제 노역하던 중 일본군 패전으로 민다나오의 민가와 밀립 등에서 패잔병으로 숨어 다니는 와중에 미군 전투기의 기관포 사격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오경섭은 미군 전투기의 무차별한 폭격에 의하여 김복기 시신을 미처 수습하지 못하였다고 매우 서글퍼하셨다.

이와 같은 군속(해군군속) 강제동원희생자 홍국열과 김복기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그들이 억울하게 당한 죽음을 해원(解冤)하여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에 기록하여야 한다.

---

158) 지금의 익산시이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구술 조사를 진행하면서 군속(해군군속)으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당한 홍국열, 김복기 2명의 신원(身元)과 구체적인 사망 경위 및 사망 원인을 오경섭의 구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오경섭과 함께 같은 마을에서 해군군속으로 강제동원을 당한 청년들인 김형춘, 김복기, 홍국열 3명 모두의 신원을 알 수 있었다.

홍희조의 구술에 의해서는 근로보국대 강제동원 피해자 양이석, 유환복, 김개식, 유경욱 4명의 명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경남의 구술에서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옥과댁 등의 4명과 국외 강제동원피해자 1명을 발굴하였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들인 오경섭, 김경남, 홍희조가 구술한 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피해사실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증좌(證左)들로서 우리나라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져야 할 귀중한 역사적 구술 사료들이다.

#### 4. 강제동원 생존피해자와 “6·25 한국전쟁”

김경남은 한국전쟁 당시 빨치산에 의하여 자택에 있는 쌀과 닭들을 약탈당한 상황과 전반적인 마을 분위기를 이야기하였다. 이 같은 김경남의 구술을 통하여 6·25 한국전쟁 당시 곡성군 삼기면 주민 개인의 심리적인 상황, 마을자체 분위기, 곡성지역 빨치산 등에 관하여 알 수 있었다.

홍희조는 6·25 한국전쟁 당시 처남의 죽곡 태안사 전투참전과 곡성 상황, 죽동마을 분위기, 공산당 청년회, 빨치산 활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홍희조의 구술을 통하여 6·25 한국전쟁 당시의 곡성면의 분위기와 상황, 인민군 이동경로, 공산당 활동사항, 빨치산과 북한의용군 훈련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오경섭의 구술을 통하여서는 6·25 한국전쟁 당시 곡성군 오곡면 청년들의 국군 자원입대 과정과 여수 15연대 훈련환경, 부산진국민학교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의 마음자세 및 훈련내용, 신병들의 부대배치 및 전투참전 등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군 30사단의 신월지구 전투와 낙동강 함안전투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진주, 운봉, 남원, 전주, 영동, 옥천까지의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국군 6사단의 압록강 진격과 중공군 개입으로 인한 임진강 전투, 1·4 후퇴 당시의 참상과 경기도 광주전투 그리고 대구제일병원과 부산야전병원의 안타까운 부상병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군의관들의 피나는 노력, 이승만 대통령 위문 방문 등에 따른 부상병사의 마음 상태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오경섭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함구하고 있었던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의 약탈, 강간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앞으로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과 북한군 등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김경남, 홍희조, 오경섭의 구술은 6·25 한국전쟁에 관련된 곡성군 지역사에 매우 유의미한 구술 자료가 될 것이다.



# 추가 구술조사 및 향후 과제

1. 추가 구술조사
2. 향후 과제

## 1. 추가 구술조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곡성군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곡성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오경섭, 김경남, 홍희조에 대한 구술채록을 하였다. 하지만 조사 당시 생존하고 계셨던 고달면 양금석에 대한 면담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지금은 고인(故人)이 되어 영면(永眠)하셨다.

고인과 같은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으로 강제동원을 당한 생존피해자 김경남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미처 구술하지 않아 기록되지 못한 피해 사실들에 관한 추가 구술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추가 구술 작업을 통하여 전범기업 가네보방적의 전남공장 여성 노역자들의 근로여건, 급여실태, 생활조건, 숙식상황, 규율 조건, 조선인 차별 등의 실체를 규명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경남이 진술한 곡성군 오곡면과 삼기면 등에서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되어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에서 노역 생활을 한 4명의 피해여성과 1명의 일본 강제동원 남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에 재판기록이 남아있는 “히로시마 구레 해군 군속 조선인 동원공 폭동”과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나가사키 좌 세보 해군군속 조선인 동원자 폭동 재판기록” 또한 일본 정부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군인동원, 군속동원, 노무동원, 성(性)동원 등에 의한 강제 동원피해자들의 재판기록이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에도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기록물들에 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사 발굴하여 연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앞서 강조하였듯이 김경남 사례와 같이 자신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가족들이 입을 상처가 두려워 방적공장 등에서 노역한 사실을 숨겨온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부 생존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된다. 고령자인 그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경섭과 함께 해군군속으로 강제동원 되었으나 노역 도중 일본 해군 헌병들의 고문 후유증으로 강제로 귀향한 후 사망한 홍국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미군 전투기의 기관포 사격에 의하여 사망한 김복기 그리고 홍희조가 진술한 양이석, 유환복, 김개식, 유경옥 등 이상 6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해군군속 강제동원 생존피해자 오경섭이 진술한 6·25 한국전쟁 당시의 연합군과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향후 과제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구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본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조선인 강제동원 실태와 피해에 대한 규명(糾明)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빨리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외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규명하고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피해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지원을 하는 정부정책이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강제동원에 관한 개념(概念)의 정립과 함께 명칭(名稱)의 통일을 위한 관련학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앞부분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아직까지 일부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 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한 기록과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못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피해자들에 대한 구술조사와 함께 강제동원피해자 명단, 강제동원 방법, 피해 상황 등을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승되어야 한다.

“아무리 안타깝고 슬픈 개인의 역사도 구술하여 채록하지 않으면 그냥 강물처럼 흔적 없이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인생행적(人生行蹟)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역사에 바르게 기록되어 후세(後世)에 전승되기를 간절하게 소망(所望)한다.”



# 김경남·오경섭·홍희조 “구술 비교”

1. 오경섭의 2016년과 2018년 “구술 비교”
2. 김경남의 2017년과 2018년 “구술 비교”
3. 홍희조의 2019년 “구술 비교”

## 1. 오경섭의 2016년과 2018년 “구술 비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한 2016년, 2018년 오경섭 구술과 2017년, 2018년 김경남 구술 그리고 2019년 홍희조가 구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후(追後)조사를 통해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2016년, 2018년 오경섭의 구술은 강제동원 당시 곡성에서 부산까지의 이동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였다. 2017년, 2018년 김경남 구술 또한 강제동원 당시 나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같았다. 김경남과 오경섭은 구술 당시의 상황과 기억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구술 내용이었다.

2019년 홍희조의 구술 역시 두만강 등 약간의 지명 오류(誤謬)를 제외하고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술이 거의 사실과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오경섭, 김경남, 홍희조의 구술은 곡성군 민들이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해군군속, 여자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으로 강제동원되었던 억울한 사실을 규명하는 구술 사료로서의 가치(價値)가 증명(證明)되었다.



	2016년 구술조사	2018년 구술조사
(1) 어린 시절	<p>※ 주요 구술내용</p> <p>(1) 어릴 적 그때. 십칠 세, 집에서 인자 나무 같은 것도 해오고 그때는, 산에서 갔다 땀기고, 봄이 돌아오면 풀 캐서 거름 장만 허고. 그리고 인자 모자리 한단 말이여. 모자리 해서 그놈을 옛날에는 트랙타가 없어. 전부 쟁기로 손으로 갈아갓고 쓸어갓고 발로 풀 있으면 붉고 써리질 해서 모다봐 옛날에는. 트랙타가 없인게. 그러고 살고 있었지. (중략)</p>	<p>※ 주요 차이점</p> <p>(1) 2018년에는 오경섭의 어린시절 차라온 환경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구술함</p>
(2)~(6) 강제동원	<p>(2) 북경원 짜장집이 방에다가 모다 짜장같은거 사주고, 도망 못 가게 감시를 하고. 트럭. 사람이 탄 것이 아니고 짐승 칸에다가 전부 다 실어. 그러가지고 부산으로 가. (중략)</p> <p>(3) 일본 높은 데가 추워. 눈이 오고, 나가사끼 유다가와라고 하는디. 거기는 갔지 차 타고. 차가 꼬불꼬불 한디 열로 가야 한디, 숙소라고 지어놔던만. 삼 년간을 계약을 하고 갔어. 토공도 있고, 물자 같은 거 실어 날르는 거시지 수송도 있는디.</p> <p>(4) 그러고 있지, 휴가를 한번 보냈어. 인자, 휴가 보낸디 헌병이 따라와 인자.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다가 인계하고 가. 달아나쁜께. 경찰서에다 인계를 하면 인자 지키지 뭐. (중략)</p>	<p>(2) 강제동원피해자들을 곡성면 소재 짜장집 북경원에서 트럭(짐승칸)에 태워 부산으로 이동 한 것으로 구술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는 곡성역에서 전라선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서 경부선으로 부산까지 이동하였다고 다르게 구술하였다.</p> <p>(3) 2106년에는 일본의 추운 날씨와 행선지 등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함.</p> <p>(4) 2018년에는 일본에서 고향 오지리마을로 다녀온 휴가 여정을 기차표와 휴가증 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p>

<p>(2)~(6) 강제 동원</p>	<p>(5) 헌병들이 온 것이야. 뒤로 돌으라고, 싹 뒤로 돌려서 숙소로 온 것이야 도로. 거기서 인자 누가 이런 짓을 허자고 했냐고 두목사람 누구냐고. 막 개때듯이 때브러 이놈들이 사정을 안 봐. 막. 일본 놈들이. 헌병들이. 그놈들이 이런 짓을 허자고 해서 이랬냐? 그럼 어떤 놈들이냐? 막 개 때듯이 때브러 막 죽는다고. 그 두목자도 아니고 하여튼 대학생들 애기들이 그런 거인디, 애기 하나에다가 둘러싸여 브렸어. 어. 사람이 순하고 그 사람이 했다고 해 브러. 잘난 놈들이. 그런 게 날마다 인자 뭐 씌여 갖고 헌병대 왔다갔다하고, 날마다. 결국은 맞아서 골병들어 죽었지. 오지리 사람이여 그 오지리 사람이여. 아이고 그런 세월. (중략) 인자 저 대만 가서 인자 이번에 가면 죽은거인게, 살든 못하거인게 구경이나 허고 가자고. 이제 대만 가서 구경 며칠 하고. 전시에 간게 인자 살 생각은 못 허지. 대만 구경 사흘간 대만서 놀고. 멀리 갈 수가 없어. (중략) (6) 인자 필리핀 민다노 섬으로 갔지. 한 쪽 산 밑에다가 배 놔두고 물자를 실어 날랐지. 저 산 밑에. 비행기가 안 보인데. 안 들킬라고. 근데 인자 차들이 대었는데 몰라볼 것이여? 날마다 인자 물자 실어 날르면서. 배는 안 보이지만. 나는 수송병으로 떨어져서 (중략) 거기는 필리핀 그 산이 높아갖고 날마다 비가 온게 시원해. 여그는 막 뜨거운디. 산에서 요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땡기고. 배에서 막 포를 쏘게 막 땡겼지. (중략) 일본서 해방 났다는 디, 통신이 안된게 해방 된 것도 몰라. 헌병대가 인자 일본 졌은게 내려오라고. 몇 번 그런 말 듣고는 내려왔어. 싹 총같은 거 내블고 살다가 중대장만 칼만 차고 내려 왔는디. (중략)</p>	<p>(5) 2016년에는 일본 해군 헌병들의 구타와 고문에 의한 희생자의 성명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그 당시의 희생자가 홍국열이라고 구술하였다.</p> <p>(6)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 민다나오의 참전 경험과 일본 귀국 상황에 대하여 2018년 구술조사 보다 2016년 구술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구술하였다.</p>
------------------------------	--	--

<p>(2)~(6) 강제 동원</p>	<p>거기서 일본꺼정 간디. 일본 해군본부로. 요꼬스까라는데. 한국말로는 횡빈. 요꼬스까여. 일본 해군본부 요꼬스까라고 하면 도쿄 옆에. 거기 온게로 그래도 해군본부에서 사흘간 쉬게 해 줘.</p> <p>(중략)</p> <p>한국 가고자 헌 사람은 가고, 아니면 안가도 된다고 해. 그러지 집에 올라도 못살아. 나는 와본게 제일 나중애나 왔어. 집에 와서 본게. 다 나와블고 일본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블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나중애 나왔어.</p> <p>(중략)</p>	
<p>(7) 6:25 한국 전쟁</p>	<p>결혼식하고 살고 있는데 육이오가 터졌다고 그라네? 전쟁을 헌단 말이며. 김일성이란 놈이 밀고 내려와.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인민군들이 잡아가고. 그래서 군에 들어가고(자원입대) 여수 15연대 지원해.</p> <p>(중략)</p> <p>미국 애들이. 그렇게 낙동강이 인자 함안 지구에 부산 들어 올라고 집회를 해갖고 있는 인민군 부대를 아주 박살을 냈어. 유엔군 허고 우리 허고 함께.</p> <p>(중략)</p> <p>한번은 소가 나와서 불에서 소가 건들어서 불이 켜져 갖고는 인민군인줄 알고, 알고보니 소래. 검은 대가리가 건들면 불이 켜져 환하게 그라브러. 그렇게 낙동강 전투 끝나고</p> <p>(중략)</p> <p>아이고 막 중공군이 이제 터져나와. 그때 인자 미국서 후퇴 명령을 하고. 중공군이 터져서 포위를 하고. 그래서 모두 포위를 해블고 미군들도 저쪽 서해쪽 서부쪽 바닷가에서 짝 전차 뭐 아무것도 못 갖고나와. 전부 기름 씨끌어서 태워블고 사람만 인자 헬리콥터로 바다로 실어 날랐어.</p> <p>(중략)</p> <p>나는 그때 인자 경기도 광주로 육사단이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어. 나는 거기서 부상을 당해 브렸어. 그 뒤로는 인자 몰라.</p>	<p>(7) 거의 일치한다.</p>

<p>(7) 6·25 한국 전쟁</p>	<p>나는 육사단이 경기도 광주에 주둔해 있을 때 수색 나가서 부상을 당했는디 그 뒤로는 모른 다고. 그게 끝이여.</p>	<p>(7) 거의 일치한다.</p>
<p>(8) 결혼 생활</p>	<p>(중략)</p>	<p>(8) 2016년에는 거의 언급 하지 않았던 본인의 삶에 관하여 2018년에는 구체 적으로 구술하였다.</p>
<p>(9) 구술 상황</p>	<p>(중략)</p>	<p>(9) 일치한다.</p>
<p>(10), (11) 특이 사항</p>		<p>(10) 강제동원 당시의 일본 인과 지도원에 대하여 호의 적이다.</p> <p>(11) 6·25 한국전쟁 당시 일 부 미군들의 약탈 등에 대 하여 구술함.</p>

## 2. 김경남의 2017년과 2018년 “구술 비교”

	2017년 구술조사	2018년 구술조사
(1) 어린 시절	<p>※ 주요 구술내용</p> <p>음력으로 칠월 사일. 삼십 일 년인가 모르겠어. 나 이가 팔십팔 세. 여그 태어나기는 반송, 죽곡 반송 서 태어났어. 그래갖고 저 세 살 먹어서 요리 왔 대. 삼기로 이사왔어 가족이 다. 세 살 묵어서 월 경서 어머니가 이사를 옴서 따라와서 컸지. 삼기에서 커서 삼기로 왔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 셔뵈어 나 세 살 묵어서, 다섯 살 묵어서 돌아가셔 브러 아버지가. 몰라 아버지는. 우리 어무니가 계 가를 오셔갖고 살다가 젊은사람이라 혼자 못 산 게. 살다 요리 왔지. 요집으로 시집을 와 (중략)</p>	<p>※ 주요 차이점</p> <p>(1) 거의 일치한다.</p>
(2)~(5) 강제 동원	<p>나는 이 학년까지 땡기다가 큰애기 공출이 나와갖 고 징용갔단계.</p> <p>(2) 누가 뭐 아버지가 없은게 나를 보냈어. 가서 산 게로 해방돼갖고 와갖고 시집왔지.</p>	<p>(2) 2017년에는 공출 (강제동원)당한 이유 가 아버지가 없어서 라고 하였으나, 2018 년 조사에는 부모가 없어서라고 구술함.</p>

<p>(2)~(5) 강제 동원</p>	<p>(3) 열네 살이 가갓고 열다섯 살에 해방돼서 와갓고 열여섯살에 여그 왔어. (4) 공장으로 인제 위안부! 그런거 말고! 가서 인자 광목 째디 그런거 모집은 갓어도 뭐 난 찌까난게 못 한게. 뭐. 나는 공출을 저그 광주로 옛날에 저그 지사공장, 제국시대에 공출갓당게. 열네 살에 갓은게 해방이 되븐게 미국사람들이 터쳐서 나온다 그래. 일본놈들은 쫓겨서 가블고. 미국놈들은 막 이만해갓고 사람 다 죽인다고 들어갓고 오지리 여자가 한나 불쌍한 여자더마, 작은아버지가 델러와서 내가 따라서 와봘지. 옆에서 돈 준다고 광목 주래 돈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돈도 받도 안허고 따라서 도망와봘어. (5) 여그 옥과댁 성이 거가 있더만, 남편은 일본으로 모집 가 블고 왔는다. 고향사람이라고 그렇게 잘해줘는다. 죽어버렸는가 몰라, 그양반 덕으로 살다가 왔어. 나는 뭐 저그 언니를 델러 왔을때 나는 오지리 사람 따라와서 요집으로 왔당게 (중략)</p>	<p>(3) 2017년에는 14세에 공출되어 16세에 귀향하였다고 구술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는 15세에 공출되어 16세에 귀향하였다고 구술함. (4) 2017년에는 김경남 자신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광주 지사공장으로 공출되어 노역한 것을 강조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음. (5) 2017년에는 자사공장 동료 옥과성(형)의 남편이 일본으로 모집(동원) 갔다고 언급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는 구술하지 않음.</p>
<p>(6) 6·25 한국 전쟁</p>	<p>육이오는 뭐 어찌꺼여 무서서 벌벌 떨었지. 저그 반란군이 쳐들어왔네 산이 가시기한게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얘기를 보듬었지. 아가 울지마라, 막. 괜 찰다 울지마라 그럼서 둘레둘레 방에 찌다가 나뉘더만 그놈을 뺏어갓고 가브러. 나무로 덮어봘는데 찾아갓고 뜯어갓당게. 산으로 다시 올라갓지, 늦그릇도 다 둘러갓고 가. 반란군이 닭도 훔쳐가블고 저 웃동에까지 새가 터졌어 옛날에는 아주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았어. 시방 살기도 좋고 좋은 세상이어. 인자 1953년에 전쟁 끝나고는 이려고 살았지 어찌. 큰아버지와 오빠들이 전부 돌아가셨다 (중략)</p>	<p>(6) 2017년에는 6·25전쟁 당시 반란군에게 쌀과 닭등을 약탈당한 피해 사례와 함께 어두운 마을 분위기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으나, 2018년 조사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음.</p>



(7) 결혼 생활	(중략)	(7) 2017년 조사에는 본인의 살아온 삶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구술하였으나, 2018년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음.
(8) 구술 상황	구술조사에는 매우 호의적이며 적극적으로 구술함.	(8) 2018년에는 일본군'위안부'로 오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조사자의 구술조사를 몇 차례 거절하였다. 같은 마을에 사는 시댁 친척 정삼수들을 통해 설득하여 진행하였다.
(9), (10) 특이 사항	구술조사 다음날 아침 일찍 조사자에게 전화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자신을 일본군'위안부'로 이웃들과 지인들이 오해하여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을 매우 걱정함.	(9) 2018년 조사에는 2017년 보다 소극적으로 구술하였으며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음.  (10) 1930년생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1931년생으로 등록됨.

### 3. 흥희조의 2019년 “구술 비교”

	2019년 구술조사	비고
(1)(2) 어린 시절	<p>구술자 2 : 시방 몇 살이냐고.            구술자 1 : 지금? (1)구십.            면담자 : 아 지금 구십. 아버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중략)            구술자 1 : 아 어디서 났냐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곡성군 오곡면 묘천리.            면담자 : 오곡면 묘천리, 묘천리에서.            구술자 1 : (2)번지는 잘 몰라.            면담자 : 번지는 잘 모르시고.            구술자 1 : 인자 어리니까 넘 어려서 나와본께 몰라.            구술자 2 : 아버지가 얼마 돌아가셔서블고 어머니하고            같이 삼서 형제간이 사형젠디.            (중략)</p>	<p>(1) 1930년생이            나 주민등록상            으로는 1933년            생으로 등록됨.              (2) 출생지 번지            를 모르신다고            하였으나, 추후            조사해 본 결과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147번            지에서 출생함.</p>

<p>(3)~(13) 강제 동원</p>	<p>(중략)  면담자 : 몇 살때 가셨어요?  구술자 1 : (3)열 여섯.  면담자 : 열 여섯 살때 그때 가실때에 뭐 이케 무슨 영장 같은게 나와서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잡아서갔어요?  구술자 2 : 어찌고 갔냐고.  구술자 1 : 어찌고?  구술자 2 : 예. 뒀이 나와서 갔냐 그냥.  구술자 1 : 영장이 나와서.  면담자 : 아 영장이 나와서.  구술자 1 : 군에서 곡성군에서 그때게는 인자 저 자네들은 모르디, 왜냐하든 무조건 동네로 나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동네로 나오든, (4)그냥 약자들 잉.  구술자 2 : 약자들, 약자들.  면담자 : 네 약한사람.  (중략)  구술자 1 : 군대들이 아까 여수항에 거그서 근무 할때도 뭐여 (5)열세살, 열세 살 목어서 가서 할때도 이 곡성에서 한 삼십 명 갔는다.  (중략)  면담자 : 같은 동네에서는 몇 명이나 갔어요  구술자 1 : 우리 동네에서는 (6)(7)양이식이.  면담자 : 양.  구술자 1 : 양이식이.  면담자 : 이.  구술자 1 : 식.  면담자 : 식. 또?  구술자 1 : 나.  면담자 : 아 두 분.</p>	<p>(3) 선날 12월에 강제 동원 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확인결과 양력 1945년 1월 23일을 음력 선달 12월로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마을에서 강제동원 당한 이유를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5) 1942년 13세에 전남 여수로 첫 번째 강제동원을 당하셨다.  (6) 묘천리에서 함께 강제 동원 당한 사람으로 양이식과 유환복을 구술함.  (7) 추후 조사결과 양이식이 아닌 1922년생 양이식으로 1945년 1월 23일 한반도내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확인됨.</p>
-------------------------------	---	--

<p>(3)~(13) 강제 동원</p>	<p>구술자 1 : 응.  면담자 : 양 이식, 그담에 아버님? 양이식 씨는  그때 몇 살이나 됐을까요?  구술자 1 : 우리보다 훨씬 더뭉었지.  면담자 : 아 나이를 더 드셨고?  구술자 1 : 아까 (8)9)유환복이나.  면담자 : 유환복 씨.  구술자 1 : 유환복이나 양이식이나.  면담자 : 비슷한 또래.  구술자 1 : 양이식이 좀 더뭉었고.  (중략)  면담자 : 그니까 아버님이 하신데가 철도 놓는 일  을 하셨네요.  구술자 1 : 어디냐면 저 짝은 황해도고 요 짝은  뫼여 강서군 평안 평안인디 거가 (10)두  만강이여 두만강이여갑고 두만강. 두  만강 사이에서 쇠를 파다가 놓고 그때  는 거 뫼여, 백두산에서 그 전기 발전을  했어. 거 세계적으로 최고 발전을  한다고 내말은 말은 중국을 다 쓰고  우리나라도 썼다 이 이거여, 그래갓고  일본까지 갔. 그 저, 발전을 가지갈라  고 막 했다고 그래쌓고 그러더만.  (중략)  구술자 1 : 나 혼자 못헌담서 죽동에 개식이허고.  면담자 : 예 죽동 김개식 씨하고.  구술자 1 : 이이, 둘이 내가 그 사람을 형님 나 혼  자 박차서 못헌다 그래갓고 저사람을  디꼬 했거든.  면담자 : 죽동에서 온 (11)김개식 씨 그때 한 살 어  린 열네살. 김개식씨하고 아버님하고 같  이 창고를 지키는 일을 하셨네요,</p>	<p>(8) 추후 조사결과 1924  년생 유환복은 1944년  8월 10일 일본군으로  강제징병 당하여 1945  년 10월 귀국하셨다. 부  인이신 1928년생 빙애  님이 묘천리에 살고 계  셔서 2019년 9월 23일  구술 조사하여 채록하였  다.  (9) 조사결과 묘천리 유  환복은 동명이인 또는  유사한 성명의 다른 분  으로 사료됨.  (10) 두만강으로 구술하였  으나, 평안남도 강서군  과 인접한 강은 두만강  이 아닌 대동강이다.  (11) 추후에 일제 강제동  원자 명부,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피해신고  관리대장 등의 관련 자  료들을 조사하였으나,  곡성면 죽동리 김개식은  확인되지 않았다.</p>
-------------------------------	--	---

<p>(3)~(13) 강제 동원</p>	<p>구술자 2 : 그렇고만요. (중략) 구술자 2 : 여수로 갈 때도 영장이 나왔나. 구술자 1 : 아니 그 이장이 그때는 동장이라금서.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이장이 아니라 동장. 거기 영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거 지명제로 잉, 거시기 갖고 요로고 오지리사람들 우리또래들 나보다 나이 작은 놈들 더묵은놈 이어 뭐이 묘천 저 돌이 가 육, (12)유경욱이라고 그사람. 면담자 : 네, 있어요 유경욱 씨. 구술자 1 : 경욱이라는 사람은 나보단 다섯 살인가 여섯 살 그 사람도 갔어. 면담자 : 네, 유경욱 씨. 아. 구술자 1 : 나보다 다섯 살인가. 면담자 : 아, 유경욱 씨도. 구술자 1 : 여섯 살인가 더묵었고 나하고 한번에 갔지. (중략) 구술자 1 : 여수도 여 저 가라고 해서 우리가 돈 벌라고 간 것이 아니라 (13)강제 노동이여!! 강제 노동이여!! 면담자 : 그렇죠, 근데 여수는 좀 대우가 좋은거죠 그나마. 구술자 1 : 근께 열세살 먹어서 내가 어디를 가다니, 강제 노동이여!! 강제 노동!! 면담자 : 그렇죠 아버님. 구술자 1 : 근께 평양 갈때도 전부가 누가 갈라고 하గా이 일허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지 강제 노동이지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갔는디 뭐이강, 지원해서 누구가 가, (중략)</p>	<p>(12) 추후에 일제 강제동원자 명부,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피해신고 관리대장 등의 관련자료들을 조사하였으나, 묘천리 유경욱은 확인되지 않았다.  (13) 구술자는 여수와 강서군으로 두 번이나 동원된 것은 “강제노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하셨다.</p>
-------------------------------	---	--





# 2016년 오경섭 구술과 2017년 김경남 구술

1. 오경섭 구술(2016년)
2. 김경남 구술(2017년)

## 오경섭 구술(2016년)

- ▣ 주 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6·25 한국전쟁.
- ▣ 구 술 자 : 오경섭(1922년생, 95세), 남자.
- ▣ 조 사 자 : 조준원, 오창훈.
- ▣ 조사일시 : 2016년 10월 6일(목) 17시~19시.
- ▣ 조사장소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오경섭의 자택.
- ▣ 조사방법 : 휴대폰과 태블릿을 이용한 녹취.

## 1. 오경섭 구술녹취록 - 수정본(2016년)

### • 어린시절

어릴 적 그때. 십칠 세, 집에서 인자 나무 같은 것도 해오고 그때는, 산에서 갔다 땀기고, 봄이 돌아오면 풀 캐서 거름 장만 하고. 그리고 인자 모자리 한단 말이여. 모자리 해서 그놈을 옛날에는 트랙타가 없어. 전부 쟁기로 손으로 갈아갖고 쓸어갖고 밭로 풀 있으면 붉고 써리질 해서 모다봐 옛날에는. 트랙타가 없인게. 그리고 살고 있었지, 그런디.

### • 강제동원

근디, 일본 놈들. 아니 그 한국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 어이 숨어 갖고 있는 것도 다 갈쳐주고. 한국 놈의 새끼들이. 나쁜 놈들. 이제 다 잡아다가 인자 저 읍에 그 있냐? 북경원 짜장집이 방에다가 모다 짜장 같은거 사주고, 도망 못 가게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인자 있다가 다 잡아다가 차로 와. 트럭. 사람이 탄 것이 아니고 짐승 칸에다가 전부 다 실어.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가. 부산 가면 배가 와서 딱 있더만.

## • 일본

어. 거기 배가 와 있어. 배에 짹 타라 그래. 그럼 배에 탔지. 인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간 것이여. 인자 일본으로 가서 그때는 여기 사람들은 짹신 같은 거 신고. 다른 신이 없어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거기가 일본 높은 데가 추워. 눈이 오고, 나가사끼 유다가와라고 하는디. 거기는 갔지 차 타고. 차가 꼬불꼬불 한디 열로 가야 한디, 숙소라고 지어놔터만.

숙소에서 인자 인원점검 허고 밥 줘서 밥 먹고. 거기서 인자 그렇게 생활을 하지. 낮에는 일 허고, 거기 가서 인자.

삼 년간을 계약을 하고 갔어. 토공도 있고, 물자 같은 거 실어 날르는 거시지 수송도 있는디. 그러고 있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인자 삼 년 계약을 했는데 삼 년이 되었던 말이여. 근데 안 보내 줘 그냥.

## • 휴가

휴가를 한번 보냈어. 인자, 휴가 보낸디 헌병이 따라와 인자.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다가 인계하고 가. 달아나분께. 경찰서에다 인계를 하면 인자 지키지 뭐. 꼼짝 못 허고 사흘인가 나흘인가 인자 쉬었다 도로 가.

## • 군속

일본. 일본으로 가가지고 있는디, 가가지고는 인자, 어으. 오노란디가 있었어. 한국 사람들은 인원이 많아. 일본 사람 한 방이면 한 십이 명 십삼 명. 우리는 한 이십 명 넘어 브러. 그런디 밥탕이 있어.

섬나라 놈들은 이 년도 있는디 우리는 사람이 많아도 속에가 쪽 들어 버리거든. 인자 밥 해 먹을라고는 작아갖고는. 사고를 한단 말이야. 이놈들이. 주방에서. 그 사고로 큰 사고로 찌개. 그때 막 긴다란 주먹때기 같은 놈을 깔아놓고 그런 놈으로 막 썰리고 인자 막 큰 사고로 그랬는디 인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헌병대로 가야한다. 헌병대는 시내에 상당히 떨어져 있다. 비는 오고, 헌병대를 찾아 가지. 차들이 그냥 중간에서 사람을 많이 태우고, 헌병들이 온 것이야. 뒤로 돌으라고, 짹 뒤로 돌려서 숙소로 온 것이야 도로. 거기서 인자 누가 이런 짓을 하자고 했냐고 두목사람 누구냐고.

막 개패듯이 패브러 이놈들이 사정을 안 봐. 막. 일본 놈들이. 헌병들이. 그놈들이 이런 짓을 하자고 해서 이랬냐? 그럼 어떤 놈들이냐? 막 개 패듯이 패브러 막 죽는다고. 나는 여기 인자 머리에 여기를 맞아 브렸어. 여기 흑이 막 있어가꼬 있었는데 의무실로 가브렸어. 그래서 치료한테서 맞지는 않았어. 그 두목자도 아니고 하여튼 대학생들 애기들이 그런 거인디, 애기 하나에다가 둘러싸여 브렸어.

#### • 희생자

어. 사람이 순하고 그 사람이 했다고 해 브러. 잘난 놈들이. 그런 게 날마다 인자 뭐 씌여 갖고 헌병대 왔다갔다하고, 날마다. 결국은 맞아서 골병들어 죽었지.

오지리 사람이여 그 오지리 사람이여. 아이고 그런 세월... 그래갖고 인자 한국 사람들을 함께 있지 못 하게 짹 갈라브렸어. 일본 사람 반으로. 함께 있으면 또 큰 사고 난다고.



어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본 사람 반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씩 옮겨 논게 사고 낼수도 없고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만 따라갔지.

그렇게 있다가 인자 이거 해군 선령대 가서 집도 짓고, 그 선령대로  
갔어. 일본 사람들이 간 게 안 갈수가 없고 따라갔어. 저 먼테로 가고  
싶은데 가들 못해. 미국 군인들이 나온게.

### • 태평양전쟁 I

인자 저 대만 가서 인자 이번에 가면 죽은거인게, 살든 못하거인게  
구경이나 허고 가자고. 이제 대만 가서 구경 며칠 하고. 전시에 간게  
인자 살 생각은 못 허지. 대만 구경 사흘간 대만서 놀고. 멀리 갈 수가  
없어.

인자 필리핀 민다노 섬으로 갔지. 한 쪽 산 밑에다가 배 놔두고 물자  
를 실어 날랐지. 저 산 밑에. 비행기가 안보인데. 안들킬라고.

근데 인자 차들이 대있는데 몰라볼 것이여? 날마다 인자 물자 실어  
날르면서. 배는 안보이지만. 나는 수송병으로 떨어져서 맨 날 실어 날  
르지만 하고. 거기서는 팬이 있었어. 자동차 조수들. 근디 미군이 자꾸  
온다근게 올라와. 전쟁이 날라고.

### • 태평양전쟁 II

하루는 미군이 곧 올라온다고 식량 모든 물품을 가차없이 짚어져.  
산으로 올라가네 인자. 미군이 올라온다고. 안 들킬라고 산으로 올라  
와.

거기는 필리핀 그 산이 높아갖고 날마다 비가 온게 시원해. 여그는



막 뜨거운디. 산에서 요쪽으로 땀기고, 저쪽으로 땀기고. 배에서 막 포를 쏘게 막 땀겼지. 갖고 간거 묵을거 다 떨어져블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인자 비가 와서 근게 찢어져서 맨발로 어이구. 식량이 떨어져 블고 한게로 평야인데로 가서 고구마밭, 배추도 심고 자급을 해. 캐가지고 다시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네. 근데 인자 자기가 캔 놈 자기가 못 먹고 위에 줘브러. 묵고 떨어지면 다시 캐오고. 그지탈을 하고 있다가 일본서 해방 됐다는 디, 통신이 안된게 해방 된 것도 몰라.

### • 태평양전쟁Ⅲ

헌병대가 인자 일본 졌은게 내려오라고. 몇 번 그런 말 듣고는 내려왔어. 싹 총같은 거 내블고 살다가 중대장만 칼만 차고 내려 왔는디. 중간만큼 내려 왔는디, 학교가 있더마. 차에다가 뭔가 많이 실어갖고 있어. 싹 시동을 걸고 있어. 실어다 논 것이 묵을 것이여. 식량. 미국사람들 레시오 그런 거여. 앞에다 갖다놓고 많이 묵으라고. 막 많이 묵으라고 해. 배고픈게 거기서는 바늘 하나라도 다 뺏어가, 손톱깎이도.

인자 차를 타라고 해 많이 묵고. 차를 타라고 해. 저 바다로 가면 배가 되고, 육지로 가면 차가 되고 그래. 나도 처음 봤어. 배맹키로 생겼어. 근데 인자 밑에 바퀴가 달려갖고. 타라 그래서 탄게, 인자 해변가로 가서 텐트를 겁나 길게 쳐놔어. 수백 개 된가. 거기서 인자 인원 배정해갖고 텐트하나에 몇 명씩 해서 쉬라고. 거기서 인자 날마다 묵고 놀지. 밥 묵고 맨 날 놀아. 왜 안보내주고 여기다 두냐고 한게, 배가 안온게 못 간다고.

## • 귀향

한국으로 가는 배가. 배가 안온게 한국을 못가. 배오면 간다고. 제일 바다 가운데가 배가 큰놈이 하나가 왔어. 차가 되고 배가 되고 거기 다고 다 타라 그래. 배에다가 싹 실어. 배에다가 큰 그물을 걸쳐놓고는 잡고 올라가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전부 기어 올라가서 배타고. 배타고 이틀이나 걸렸나, 거기서 일본꺼정 간다.

일본 해군본부로. 요꼬스까라는데. 한국말로로는 횡빈. 요꼬스까여. 일본 해군본부 요꼬스까라고 하면 도쿄 옆에. 거기 온게로 그래도 해군본부에서 사흘간 쉬게 해 줘. 그리고 거기서 히연 담요 모포 한 장 줘. 진짜 털로 만든거. 해군이나 모포쓰지. 그거 한 장씩 줘. 한국 나감도 재미가 없다고 두 조각으로 갈라져갖고.

한국 가고자 현 사람은 가고, 아니면 안가도 된다고 해. 그러지 집에 올라도 못살아. 나는 와본게 제일 나중이나 왔어. 집에 와서 본게. 다 나와블고 일본 외국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블고,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나중이나 왔어. 거기서 설 센다고 떡 쳐가꼬 하고. 뜨끈뜨끈한 설날 하고 일본 놈들.

## • 6.25 한국전쟁 I

인제 와서 보니까 집에 와서 결혼식을 했지 인자. 결혼식하고 살고 있는디 육이오가 터졌다고 그라네? 전쟁을 헌단 말이여. 김일성이란 놈이 밀고 내려와.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인민군들이 잡아가고. 그래서 군에 들어가고(자원입대) 여수 15연대 지원해.

밤낮 훈련만 시켜. 순천역 거서 훈련을 받는다. 저 남원 왔다고 그때

인민군들이 남원까지 와서 여수로 갔지. 여수로 가서 배에다가 창고에 있는 쌀 식량 반찬 같은 거 싣 실치. 배에 못 다 실은 것을 창고문을 열어갖고 민간들 다 갖다 먹으라고 해. 그날 저녁에 인자 싣 배에 싣고 완료해놓고 그날 아침에 출발할라고 헌디, 어찌 안개가 많이 끼어브렸던지 옆에 사람도 안보여.

근데 산물랑이 와서 배에다 와서 포를 썩. 인민군들이. 어찌 그렇게 내려와브렸는가 몰라. 근데 배는 요리조리 틀고 해서 마산으로 갔지 안맞아서. 마산가서도 전투를 해 산을 두고.

저 부산진초등학교로 갔어. 거기서 또 훈련만 받아. 한쪽에선 늘 싸운디. 통 훈련받아. 전장 한번 들어와 가지고 훈련만 받고, 곧 간대 전쟁하러. 근데 유엔군이 연락을 하고 훈련을 시켰는가봐. 유엔군이 한국 땅 밟을때 같이 했다. 미군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싸우고 같이. 어. 유엔군이랑 같이 묵고, 자고. 낙동강 지키라면 같이.

## • 6.25 한국전쟁II

거기가 사상 제2교육대. 거그서 훈련을 받았는디 하루는 그냥 차가 대엿 대 되려나? 짐을 막 싣고 들어와. 싣 나와서 전열하라고 내가 연병장으로 전열을 하는디 각자 총, 피복, 다 싣탄같은거 다 들고는 완전 무장 하고는 군번도 그 사람들이 걸어주고. 케이 군번. 이름도 지가 맨 들어서 불러브당게? 내 이름 비오라고 불러.

미국 애들이. 그렇게 낙동강이 인자 함안 지구에 부산 들어 올라고 집회를 해갖고 있는 인민군 부대를 아주 박살을 냈어. 유엔군 허고 우리 허고 함께. 막 직사포로 때리고 비행기가 때리고 데이다시피 했어.

우리 아군도 많이 죽고 부상도 당하고. 인자 전차 앞에 간디 아따 인민군들이 숨어있다 공격한다 그놈에 많이 당했단께. 부상도 당하고. 그때는 인자 자갈인데 짚뿔 패인데 엮드려서 내가 그리 살았는디 막 싸우고 도로 인자 돌아와. 남은 병들을 찾아서. 부상자들을. 전차를 타라고 한디 딱 잡고 딱 있어야지. 그냥 픽 가브리. 다 떨어져브리. 딱 잡고 딱 엮져 있어야해. 그래가지고 인민군들 요짜 건너온 놈들 죽여 블고 남은 놈들은 전부 거시기로 건너. 대구 쪽에 고리 인민군이 거가 있었어.

고놈들이 부산 들어올라고 낙동강을 건너서 함안 지구에서 집결을 하고 있었어. 그거슬 뵈가지고는 막 유엔군 발 던자마자 고놈들을 없애버렸다네. 근데 낮에 보면 개미새끼는 없고 밤이 돌아오면 이놈들이 인민군들이. 불을테가 없어. 호를 쭉 실탄을 옆에다 해놔어. 막 던지고, 들어오들 못해. 수류탄을 막 던져놔. 그리고 인자 가는 철사 같은 거 있어. 건들면 불써져븐거.

한번은 소가 나와서 불에서 소가 건들어서 불이 켜져 갖고는 인민군 인줄 알고, 알고보니 소래. 검은 대가리가 건들면 불이 켜져 환하게 그래브리. 그렇게 낙동강 전투 끝나고 저 진주로 돌아와서, 진주시내는 인민군 집결지라. 이틀인가 시고 올라간거지. 산청에 이놈들이 인민군들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총을 쏘, 계속 우리는 저 함양으로 해서, 남원으로 해서 올라가. 신이 나서 며칠 주둔했었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자 저 영동 충청북도지 거가. 영동중학교 있고 사범학교 있고 거기서 또 주둔하고. 인민군들이 늘 폴짝 뛰어가고 폴짝 뛰어가고. 냇뒤브리 총 한번 쏘고. 가라고. 어어. 냇뒤브리.

그리고 영동서 며칠 주둔하고 있다가 요래 함안이 아니라 옥천. 영동 밑에 옥천 냇가에서 인제 육사단으로 편입시켜주고. 미군 고문들은 일본으로 들어갔는가. 우리는 한국군으로 편입시켜주고. 계속 올라가네. 북쪽으로. 김일성이 보러.

### • 6.25 한국전쟁Ⅲ

인천 상륙작전, 그게 성공해가지고 계속 올라가 그냥. 평양에서 하루를 잤는가? 차를 타고 계속 올라가. 올라오라고 한 놈이 무너졌는갑서. 그래가지고 저 압록강으로 선발대는 가고. 우리는 후발대고. 후발대는 압록강 거기는 못 갔지.

아이고 막 중공군이 이제 터져나와. 그때 인자 미국서 후퇴 명령을 하고. 중공군이 터져서 포위를 하고. 그래서 모두 포위를 해블고 미군들도 저쪽 서해쪽 서부쪽 바닷가에서 짝 전차 뭐 아무것도 못 갖고나와. 전부 기름 찌꺼워서 태워블고 사람만 인자 헬리콥터로 바다로 실어 날랐어.

무기 같은 건 다 태워블고. 우린 중공군들이 확 나와분께 갈수가 없어. 거기가 평지인지 양쪽에가 산이고. 막 하산해, 그러니까 못나와. 한국군도 포위당해서 아이구메, 죽으나 사나 한쪽을 뚫어야해. 여기서 십오 연대는 한쪽을 뚫고 탈출했어.

아이고, 피난민인지 군인인지 막 섞여져갖고는 임진강 거그서는 이상한 후퇴하란다, 사수한다, 임진강에서 사수한다고 하더니, 어이구, 하면서 순찰을 가보면 불도 못 피우고 열어가지고 목을 것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싸운대.

우리가 육사단 있을 적에, 칠사단이 터진께 짝 다 임진강도 터져브리. 그래서 서울까지 와버렸나. 중공군이랑. 서울까지 들어와 브렸당계.

나는 그때 인자 경기도 광주로 육사단이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어. 나는 거기서 부상을 당해 브렸어. 그 뒤로는 인자 몰라. 나는 육사단이 경기도 광주에 주둔해 있을 때 수색 나가서 부상을 당했는디 그 뒤로는 모른다고.





### 김경남 구술(2017년)

- ☑ 주 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김경남의 생애.
- ☑ 구 술 자 : 김경남(1930년생, 88세) 여자.
- ☑ 조 사 자 : 조준원, 고동실.
- ☑ 조사일시 : 2017년 12월 9일(화) 15시~17시 30분.
- ☑ 조사장소 : 곡성군 삼기면 농소리 김경남의 자택.
- ☑ 조사방법 : 휴대폰과 태블릿을 이용한 녹취.

## 2. 김경남 구술녹취록 - 수정본(2017년)

### • 어린시절

음력으로 칠월 사일. 삼십일 년인가 모르겠어. 나이가 팔십팔 세. 여  
그 태어나기는 반송, 죽곡 반송서 태어났어. 그래갖고 저 세 살 먹어서  
요리 왔다. 삼기로 이사왔어 가족이 다. 세 살 묵어서 월경서 어머니가  
이사를 옵서 따라와서 컸지.

삼기에서 커서 삼기로 왔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봤어 나 세 살  
묵어서, 다섯 살 묵어서 돌아가셔브러 아버지가. 몰라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가 개가를 오셔갖고 살다가 젊은사람이라 혼자 못 산게. 살다  
요리 왔지. 요집으로 시집을 와.

그때 아무것도 없은게 저그 학교를 땡겼구만. 이년제 학교를 맨발로  
땡겼다니까. 그러니 어찌고 살겼어. 신발 절어갖고. 걸어서 짚신 신고  
땡겼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간지를 몰라. 인자 여럿이 땡긴게 그  
때는 영봉 거그서 남자들 둘 여자 한나 그러고 다녔어 근디 그양반들  
커서 졸업해블었어.

## • 강제동원 I

나는 이학년까지 땡기다가 큰애기 공출이 나와갖고 공출갔단게.

누가 뭐 아버지가 없으게 나를 보냈어. 가서 산계로 해방돼갖고 와갖고 시집왔지.

열네 살이 가갖고 열다섯 살에 해방돼서 와갖고 열여섯 살에 여그 왔어. 공장으로 인제 위안부 그런거 말고 가서 인자 광목 짠디 그런거 모집은 갔어도 뭐 난 쫓까난게 못한게. 뭐. 나는 공출을 저그 광주로 옛날에 저그 지사공장, 제국시대에 공출갔당게.

열네 살에 갔은게 해방이 되분게 미국사람들이 터쳐서 나온다그래, 일본놈들은 쫓겨서 가블고. 미국놈들은 막 이만해갖고 사람 다 죽인다고 들어갖고 오지리 여자가 한나 불쌍한 여자더마, 작은아버지가 텔러와서 내가 따라서 와봤지.

옆에서 돈 준다고 광목 주래 돈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돈도 받도안하고 따라서 도망와봤어. 여그 옥과택 성이 거가 있더만, 남편은 일본으로 모집 가 블고 왔는디 고향사람이라고 그렇게 잘해줘는디 죽어브렀는가 몰라, 그양반 덕으로 살다가 왔어. 나는 뭐 저그 언니를 텔러 왔을때 나는 오지리 사람 따라와서 요집으로 왔당게.

## • 가정생활 I

나는 인자 언니 하나 있었어. 엄마 따라오도 안하고 외갓집서 떨어져갖고 시방도 살기는 살았어. 글구 배다른 동생도 있구. 아 여동생 하나 서울에 있어. 딸만 셋이었어. 세 자매. 글고 학교는 이 년 땡기다가 광주로 가브렀당게 졸업을 못했어.

국문은 알아 인자. 그때는 국문도 안배웠는데 맨 일본 히라가나 고런거여. 나 인자 맨발로 땡긴거, 책보에다 둘러매고 거시기 신발도 짚으로 나라갓고 이케 짚어갓고 벗짚으로 엮어갓고 신었다 요말이여. 글고 그때는 고무신이 귀한게 나막신을 신고다녀.

근디 그때 시어머니가 당신 어디 다닐때 신는다고 신발도 못신게 해. 시어머니가 무섭지. 짚신도 그렇게 귀해 그때. 삼을 섞어갓고 좋게 해서 준게 어디 가든 신을란디 당신은 나막신 신고땡김서, 근디 니가 쪼그려서 꼬집고 신고땡기냐고 막 그래.

책은 인자 이학년 올라가든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래. 공부를 할란게 책을 사갓고 공부하고. 큰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했어 불쌍하다고 나를 데려다 오빠들이 갈쳤어, 근디 다 죽어붙어 인공때.

국문 다른건 몰라 일이삼사 그런건 제국시대 써먹은게. 지금은 한 일, 두이, 하나, 둘, 셋 그런갑네. 그때는 일, 이, 삼, 사로 나온게. 백이 야꾸 주, 백 열. 그리고 배웠어. 시방은 그런거 안써본게 잊어붙지. 그때는 농사도 없은게 고생을 했지 남의 일 지어먹고. 개가를 해도 뭇이 없는갑서. 밭이 산이 이렇게 있는데 다 쳤어 영감 할멈이.

아이고 시방도 그 생각이 나. 월경 쪽으로 산이 있어 황토밭이. 그놈을 다 쳐갓고 나락을 송귀 논에서 꺼면 피가 있어, 그놈을 찌면 노랑게 나와, 찌서 피를 묵어 피밥을 해묵어. 모가지가 쭈세 모가지매이로 타 가 찌갓고 털어서 찌어서 밥을 해묵더란게. 그리고 살았어 옛날에는. 어머니 산것이 짠해.

농사가 없는 집이라 논이 없지. 벼는 짝깨밖에 못한게. 아이고. 땅을 이려고 샀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일이냐 그래. 땅도 귀한게. 노인들

이 벌어갖고 땅을 사논게 좋더라고. 그 친정보다는 시댁이 쪼매 낫았  
는다. 아들 하나 딸 둘 막 근디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가. 아이고  
말도 못해.

나는 인제 아들 셋에 시집와서 큰며느리여. 막 어머니가 오셔서 인  
자 어찌서 애기들이 젊어서 시아재들이 죽어붙고, 새 시어머니가 왔  
는다. 아이고. 배다른 시어머니가 다시 왔어. 새 시어머니가 아들 삼형  
제를 낳는다 그 아들들도 다 죽어붙어.

원래 시어머니는 아들하나 딸 둘인디 딸은 어디로 가브렸어. 뭐 그  
때는 아들들 열두 살 먹고 시어매도 죽어붙어 그레갖고 내가 다 키웠  
지. 뭐 곡성 돈변다고 나가브러 자기들이, 그레도 곡성서 살다가 인자  
죽어브렀지 일찍허니. 시아재들도. 수를 못허고 죽어브러. 시아버지  
는 오래 살도 못허고 죽어브러.

우리 시아버지가 그때 나이로는 칠십 잡수고 돌아가셨는가 모르겠  
어, 환갑은 넘겼는다. 잔치도 못해 그때는. 그도 야들 아버지가 기여이  
동네사람들 밧에다가 즐라고 한당게.

#### • 6.25한국전쟁

육이오는 뭐 어찌꺼여 무서서 벌벌 떨었지. 저그 반란군이 쳐들어왔  
네 산이 가시기한게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내가 애기를 보듬었지. 아  
가 울지마라, 막. 괜찮다 울지마라 그럼서 둘레둘레 방에 찌다가 나뉘  
터만 그놈을 뺏어갖고 가브러. 나무로 덮어났는데 찾아갖고 뜯어갔당  
게. 산으로 다시 올라갔지, 늦그릇도 다 둘러갖고 가.

해방된 뒤에 나 시집와서 애기낳고 산디 그랬당게. 가운뎃방서 우리



가 아홉식구가 살았어. 늙은게 어매하고 자고 우리 식구들은 가운데 방에 막 거그서 다 잤어. 또 요쪽 방에는 용수막 사람이 살고. 무서워 갖고. 한데 다 모아갖고 살아. 글고. 큰방에는 작은식구들이 살고. 다 한방서 잤당게. 아 우리 아들 나갖고 그랬는디, 칠십 칠인가여 큰아들이. 글고 저놈을 뜯어다가 배운동댁에 저그 초가집을 지어갖고. 그때는 저 말도 못해. 배운동 집을 떼어다가 짓고 또 새로 지었어 인자.

영감이 목수라서 요놈 지어놓고 죽었어. 돈도 뭐 별도 안허고 학교 같은데나 지으러 땡기고. 옛날 학교. 뭐 인자 사람들 다 죽어블고 살았는가 몰라. 말허자른 같이 ○○이 아부지하고 저그 선생하고 행정덕이모 딸이여 거그하고 금계로 같이 어울렸나, 좋게 살았지.

아이고 여그 와서서 막 반란군이 닭도 흠쳐가블고 저 웃동에까지 새가 터졌어 옛날에는 아주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았어. 시방 살기도 좋고 좋은 세상이여. 인자 1953년에 전쟁 끝나고는 이려고 살았지 어찌.

## • 가정생활II

일정 때는 저그 석곡가는 도로 없었어, 해방되고 길이 났지 그때는 걸어다녔다니까. 석곡도 차가 없었는가 모르겠어 인자 도로가 중간에 나갖고 좋아라 했지.

전기는 인자 침에 호롱불에서 공부하고 머리 횡 붙어브러 그러다가 남포등 있었어, 어디 가도 안꺼지고 들고다니고. 그러다 후라쉬 나오고. 초꽃이가 있으면 지름을 붓어갖고 초꽃이를 만들어서 부으면 불이 환하게 써지지.

아부지는 인자 저그 쎄고 그는디 나쁜놈들이 중간에 돌라가봤어 골

동품 장수들이 어찌게 돌아가나 몰라 맘을 묵었다나봐. 인자 또 발전이 많이 되어부러. 나는 인자 오 남매 낳어 딸하나 아들 넷. 애기들 키울때 뭐 아 몰라 잊어붙어.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었는가 몰라. 큰아들 클 때는 배운동댁 집에서 저그 가래떡이랑 다 가져가블고 몰라 인제 잊어브러서. 큰아들도 국민학교 나왔고 서당 한문 거시기, 둘째는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곡성서 나왔을거여.

셋째는 말을 못헌게, 넷째는 광주서 고등학교 나오고, 의사는 아닌디 병원에 근무해. 각시랑 딸 하난디 신세계 땡긴대. 인자 저그 쉰, 넷인가 모르겠네 양띈게.

셋째는 어릴때부터 말을 못해도 천재여 천재 어찌 잘한가 몰라. 태어나서부터 말을 못했어 어렸을때부터, 근디 학교를 보낼라고 광주를 데꼬갔는디 죽어도 안떨어진다 해.

그래서 디꼬와서 여수로 가라한게 안간대. ○○이가 조께 갈쳐본다고 보내라 그래 보냈더니 뭐 못갈치겠다고 현품이 있어야 갈치지. 그래서 못사줘서 못갈쳤어.

밤에만 인자 이렇게 황토를 맡으면 뭐 한다그래서 막 부엌으로 어디로 다 돌아댕겨 약이 없은게. 태어나서 울도 않고 웅알이도 않고. 귀는 인자 보청기 끼고. 지가 기계를 잘 다룬게 벌어서 살고.

가들은 잘 할거여 새끼들 있고. 다섯을 나서 인자 손녀들은 야물어. 말도 잘 하고. 큰딸도 유치원 선생하고 셋째는 간호대 땡기고 광주서. 간호대 사학년. 둘째는 매장에 들어가서 옷판데 벌어. 넷째는 학교. 대학교 땡기다 휴학해갔고. 광주 보건댄가 모르겠어. 내년엔 갈라고 휴

학했대.

막내딸이 곡성중학교 삼학년이고. 엄마도 말 못해놔도 미련하들 못 해. 그런게 살지. 귀도 안들려. 아들은 보청기로 잘 알아들은디 야는 잘 못알아들어도 영리해. 수화로 해. 다섯이나 된게 인자. 나는 수화 못해.

우리 딸은 인자 서울서 살아. 그냥 벌어먹고 산대. 서울서 만났대. 딸만 둘 낳고 살아. 아들은 안낳고. 큰아들은 딸만 다섯. 순천 옛날에는 보해에서 댕기다가 뭐 그냥 있고. 며느리도 있고. 여워서 외손주도 보고 그랬어. 둘 낳았어 인자. 여그 인자 저그는 딸 하나만 낳고 살아 아들이. 딸 하나 나논게 아들이 못낳게 수술해블고 키워갖고 신세계 댕겨 엄마랑 돌이. 고것들은 걱정없지. 잘 안온디 올때는 뭐 광주놈도 여그 오문 인사하고 저 외갓집 가블고. 둘째도 남매, 넷째도 딸 하나. 딸도 가이내만 둘 낳고. 딸부자여.

### • 가정생활Ⅲ

나는 인자 전동차 타고 댕겨. 옛날에 나무 송그러 가는디 인자 나무를 받아가라고, 그러다가 인자 산에가 불이 나갖고 불이 퍼르르 올라가서 손으로 탁 잡은 단것이 벌벌벌 타고 올라가블잖아. 그러다가 겁쟁이가 놀라갖고 터덕터덕 하다 궁그러브러, 그러다가 탁 해갖고 파상풍이 와브러갖고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안뻗드라져.

아이고. 그른 나 손 조까 편게 심이 하나도 없어 감각이 없어. 파상풍이 와. 딱 오그라진놈을 편게 혈액순환이 안되어갖고 감각이없어 입만 살았어. 나 사십오세에. 안죽고 명이 진게 이려고 살아. 전동차

타고 시방 이려고 땡겨. 어디를 뚫어갖고 쇠를 달아. 그레갖고 누워 있으면 무거운 게로 끄집고 잡아 땡기는 것이 치료대. 그러니까 감각이 조깨 돌아와서 시방 많이 좋아진 셈이여. 한쪽을 못걸어.

영감이 침에 다쳤을 때 얼마나 영감이 골병이 다 들었지. 내가 한번 속을 상한게로, 내가 누구때매 골병 들었냐 그럼 영감이 목구멍에 피가 나고 그랬어. 그렇게 골병으로 고생했지. 영감은 칠십 여섯에 죽었는데. 어머니가 구십네 살 잡셨은게. 불교였지 그때는. 저기서 초상쳤은게, 나만 교회 땡기지. 교회는 저 몰라 솔찬히 되었어 지금. 아파갖고 올해는 통 못나가봤어, 아저씨 살아있을땐 못갔지. 불교 땡겼지.

인자 오래된게 내가 교회로 가브렸어. 하나님한테 믿어본게, 잘되던지 못되던지 믿어본게. 제사는 아들이 지낸게, 큰아들이 모셔가봤어. 막둥이가 간계 순천에 따라가는데 인자 안가도 해 나 늙은게.





**오경섭**

1922년생,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출생



**오경섭 “구술 생애사”  
(2018년)**

## 오경섭 구술

- ▣ **면담주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6·25 한국전쟁.
- ▣ **구술자** : 오경섭(남, 97세), 1922년생,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출생.
- ▣ **면담자** : 조준원.
- ▣ **촬영자** : 임용철.
- ▣ **기록방법** : 캠코더, 카메라, 휴대폰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및 음성녹취.
- ▣ **면담일시** : 2018년 9월 6일(13시 30분~17시).
- ▣ **면담장소** : 곡성군 오곡면 오경섭 자택.

• 어린 시절

면담자 : 아버님.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오경섭.

면담자 : 네. 그럼 연세는? 올해, 올 연세가?

구술자 : 만 구십여 셋.

면담자 : 아. 구십육 세요? 네.

면담자 : 아, [재채기] 아버님 본관이 어디구요, 그 다음에

구술자 : 본관 해주.

면담자 : 본관은 해주시구요.

면담자 : 뭐, 집, 가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구

구술자 : 내가 큰댁이 되어가지고 작은 아들이라. 태어나가지고 그때  
인자 할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었어.

면담자 : 네네.

구술자 : 인자 손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거 양자를 갔대. 양자를 갔는  
디 할아버지가 인자 재산은 있고 일찍 양자를 시켜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손이라도 일찍 볼라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아직 책도 잘 모르는 아이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인자 결혼  
을 시켰지. 인자 어머니는 좀 나이가 아버지보다는 많아.

면담자 : 아!

구술자 : 그런디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때는 인자 할아버지 재산이 있  
는다.

면담자 : 네.

구술자 : 아 이거 이거 할아버지는 그때 수리조합도 있어, 들판이, 우리가 있을 때는 공사를 해서 아는디, 우리 아버지때는 수리조합이 없었어...

그래 와중에 아버지가 땀에 넘어가서 많이 재산을 없애브렸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살림이 좀 곤란해가지고. 나도 배우덜, 갈치덜 못했지 인자.

면담자 : 음!

구술자 : 세간을 많이 없애브렸지. 그래서 큰집에 형님이 거 형젠디 인자 그렇게 살아왔어 어렵게.

면담자 : 음!

구술자 : 초근목피하고 살았지. 참 어렵게 살았어. 그때는 뭐 어디 남의 집이라도 가서 밥 한그릇 얻어 먹을려면 가서 일을 해줘 그날.

면담자 : 음!

구술자 : 살라고. 그런 형편이라. 집에서 우리집에서 그렇게 붙어서 살아, 살았는데. 이 영감 한 십칠 세가 되아브렸어.

면담자 : 음, 그때.

구술자 : 그때 인자 큰집이 인자 남의 송아지라도 갖다가 키워가지고 인자 갈라먹기<sup>159)</sup>로 돈 있는 사람이 송아지를 사주면 우리가 키워가지고 그걸 팔면 그거를 인제 남은 놈을 갈라놔. 그 식

---

159) 분배하기.

으로 인자 그런 송아지라도 키울라고 하면은 풀 같은것도 비어오고 그럼서 살았제. 나무도 비어오고 산에 가서. 그런데 십칠 세가 되었어.

면담자 : 네네.

• 강제동원 과정 I - 곡성에서 부산

구술자 : 그리고 살고 있는 동안에 징용이 징용이 나왔네 인자.

면담자 : 징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구술자 : 징용 가라고 인제는 그때는 데려가, 잡아간 편이제. 데려가서 인자 위에.

면담자 : 누가 데리러 왔어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누가 데리러 왔어요?

구술자 : 그때는 인자 순경들 모도 그때는 그 막, 그으 그기 뭐이 스파이랄까 간첩같이 거시기가 있어.

면담자 : 마을에?

구술자 : 경찰미테 밋대,<sup>160)</sup> 밋대라 그래 옛날에는 그것들이 많에.

면담자 : 음!

구술자 : 사정을 모다 다 알고 보고한단 말이여. 경찰서에다.

면담자 : 음!

---

160) 밀고자.

구술자 : 그래서 데려가봤지. 그때는 저그 북경원이라고 춘장집<sup>161)</sup>이 있었구만. 지금 보건약국.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때가 거기가 아 뭐 데려다가 모아놓고 짜장도 사주고 어찌고 방에다 가다놓고는 지키고 인자 잡고 잡아다가 짜장도 사 줘서. 그리고 있었어.

면담자 : 그때 아버님 나이가, 연세가?

구술자 : 십칠 세.

면담자 : 십칠 세.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자동차나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까지 갔어요?

구술자 : 그때는.

면담자 : 곡성에서.

구술자 : 열차가 있었어 열차. 이것이. 요것이 저 어 그 뭐이야 옆에 경선<sup>162)</sup> 그쪽에로 해갖고 부산까지 닿았어. 일본 사람들이 철도가 대전 고리 대전서 요리 대전서 내려왔어.

면담자 : 곡성에서 대전까지는 어떻게 가셨어요?

구술자 : 아 고리 여기서도 고.

면담자 : 기차타고.

구술자 : 철도가 다 있었어.

면담자 : 아 맞다.

---

161) 중화식당(중국집).

162) 경부선.



구술자 : 요거 만주로 연결한거야.

면담자 : 음!

구술자 : 만주사변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철도하고. 그레갓고 [띠리

링: 전화벨소리]

막 말 마초같은거 허라고 그레갓고 말러갓고 그것도 공출하  
고 인자 하이고!

면담자 : 그 때 가실 때, 곡성에서 같이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구술자 : 아 같이 간 사람이 마을에서는...

우리 마을에서 넷, 김형춘이 우리 마을에서는 네 명!

면담자 : 아 오지리에선 네 분. 그 때 곡성에서 모여서 가실 때는 몇  
분이나 됐을까요.

구술자 : 곡성에서 사방서 모인게로 인자 많지. 많아. 곡성. 저 그때는  
인자 부산가서 타고 인자 일본가서 떨어져서 본계 담양서도  
많이 오고, 저그 익산.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때는 익산군이라고 그랬지. 전라북도. 거그 사람도 많이  
오고. 전라북도 사람 전라남도 사람이 많았지. 갔어.

## • 강제동원 과정Ⅱ -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시

면담자 : 부산에 막 도착했을 때 타고 간 배에 대한 기억이 나세요?

구술자 : 어어! 이름도 알아! 가마쿠라마루<sup>163)</sup> 그때는 부산 부두가 열  
    매 안길었는갑서 클고 길이가 그때 상당히 큰 배여. 큰배.

면담자 : 그 배에서 식사 같은건 어떻게?

구술자 : 그건 여그서 배에 갈때는 밥 안묵고 여그 부산식당에서 묵고  
    인자 그러고는 바로 배안에서는 안먹었지.

면담자 : 전혀 밥을 안 줬어요?

구술자 : 안먹고 뒀제.

면담자 : 몇 일 정도. 걸렸어요? 부산에서.

구술자 : 부산 하관.

촬영자 : 시모노세키요?

구술자 : 시모노세키에서 인자 거기서 모지<sup>164)</sup> 로

    또. 거 우리 갈 때 모지로 틀을 뚫지, 틀을 뚫어.

면담자 : 그 때 일본에 막 그대로 도착해서 내렸을 때 일본에 대한 인  
    상하고 그런 맘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구술자 : 어?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천지 집들이 머  
    그럴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발전이 된 나라라  
    그때, 아! 여그서 인자 그때 모도 신발도 맨 짚신이 같은 거  
    신고 그렇게 안갔어. 고무신 신은 사람도 있는데 짚신을 많

---

163) 부산과 시모노세키 연락선 이름.

164)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모지구(門司区) 모지항(門司港).

이 신고 왔어. 짚신들 많지 인자. 그것들은 지깃답이라고 지 깃답이라고 그것들이. 글면서는 왜 지깃답이라고 했냐면 신 발 거...

그래깃고 인자 숙소로 딱 들어깃지, 부대!

면담자 : 그!

구술자 : 군인 막사맹키로 다 지어깃고 인자 준비를 해깃고 되아깃고 있더마.

면담자 : 숙소가?

구술자 : 강계로 그냥 고 들어가라고.

면담자 : 그 회사<sup>165)</sup>짚아요, 그 회사에 대해선 막 깃을 때 흑시 뭐 회사에 대한 기억 있어요?

구술자 : 응. 가서 인자 무다가와라고 하는디, 무다가와라고 하는디 막가서 며칠은 놀고 인자.

면담자 : 회사에서.

구술자 : 응. 막 가서 인자 모도. 그 사람들이 구경도 시켜주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시도 구경도 허고. 뭐 군대생활하고 똑같아.

면담자 : 응.

촬영자 : 회사가 어디예요? 회사가 어디 회사?

구술자 : 회사? 해군군속.

---

165) 일본 해군.

촬영자 : 예?

구술자 : 해군군속. 그 인자 나가사키 좌세보<sup>166)</sup> 해군 군항<sup>167)</sup> 이야 그  
거. 해군꺼.

촬영자 : 나가사키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지역이?

구술자 : 바다에서 무다가와라고 한데는 조금 산골짜기로 올라와. 산  
골짜. 그래서 인자 가서.

면담자 : 그때.

#### • 일본 강제동원 생활 I - 하루일과

구술자 : 똑 군인생활하고 똑같아. 시간도 군인같이 오후 다섯 시면  
 끝나고.

면담자 : 아침 몇 시에 시작을 하세요?

구술자 : 어허, 오전에 여덟 시.

면담자 : 여덟 시 정도?

구술자 : 여덟 시는 밥 먹고 나가면 여덟시지. 한 여덟 시나 될꺼야.

면담자 : 여덟 시에 시작해서 무슨 일을 막 여덟 시부터 하시면.

구술자 : 수원! 수원을 많이 허지. 수원지를 맨든디 수원지를 만들어  
 가지고 인자 수로 수로를 낸디 공사에 일을 많이 했어. 수로.

---

166) 일본 규슈 나가사키현(長崎縣) 사세보시(佐世保市).

167) 일본 해군 군항.

인자 그 배, 군함같은데 물을 열라고 수원지. 그 공사에서 일을 해.

면담자 : 곡괭이질 하고.

구술자 : 곡괭이질 하고 뭐 인자.

짚풀도 떼 오고.

면담자 : 오후 다섯 시까지.

구술자 : 수족관을 널라고 인자 다듬는거여. 그리고 인제...

이라고 수원지 뚝을 맨든디 맨든디 그거 도비라고 있어. 도비라고. 일본 사람들은 도비라고 삼밭이라고 하고. 나무가 매끈해가지고 나무가 잇는디 그놈을 막 있어갖고 휘어올라가 그것을 비어갖고 또...

말허자믄 풀을...

짚 밑에 떨어지면 그놈 골라가지고 인자 거시기 반세기 나오더락 파 윗선에. 아무리 깊어도 반성이 나오더라고. 반생이 나오면 인자 서서...

튼튼하게 할라고 인자 그런 그런일을 했어.

면담자 :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섯 시 정도 끝난다고 했잖아요.

끝난 다음에는 숙소에 와가지고는 무슨 일 하셨어요?

구술자 : 숙소에 와서는 인자 잠잠지. 쉬고.

면담자 : 네.

구술자 : 쉬고 인자 일할 것은 없어 쉬지.

면담자 : 그게 뭐 감시하거나 뭐.

구술자 : 감시 없어. 물론 감시는 없다고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있

지. 그렇게 심허덜 았았어. 해도 거 저기랑 쫓 군인하고 똑  
같아.

면담자 : 글면 그 인제 쉴때는 뭐 무슨 놀이같은거 안하고 그냥 계셨  
어요?

구술자 : 어, 인자 토요일, 토요일 오전에만 일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쉬어. 다음날 일요일날은 쉬고. 그러니까 매일 저그 미라가  
와 거그 사시하지만 생각하고 동경가서도 놀다오고. 다음날  
놀고 열두 시 안에만 들어오면 되야. 자유가 있어. 자유는 있  
었지.

촬영자 : 고향에 같이 가신 분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구술자 : 응.

촬영자 : 곡성 분들하고?

구술자 : 하아. 놀고싶은 사람 외출하고 인자 그렇게 인자 멀리 간 사  
람들은 친척들이 있는게 그냥 가서 놀다 와. 친척 없는 사람  
들은 시내가서 놀고 시내. 열두 시 안에만 들어오면 디야. 열  
두 시 안에. 와서 인자 열두 시 되믄 점호를 해 인원. 군인하  
고 똑같당게. 불침번 다 있고 주방사령관, 군인하고 똑같아

면담자 : 그럼 그때, 일본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술자 : 아아 거 그사람들도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보급대 그사람들  
은 지금말로 보급대고.

면담자 : 보급대.

구술자 : 아이! 그사람들 많아.

면담자 : 그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 했어요?



구술자 : 그 사람들도 구역 구역 떼 갖고 다 일해.

면담자 : 일 똑같이?

구술자 : 그런 일 도 있고 목공도 있고.

면담자 : 그 일본 사람들하고 조선인들하고 그렇게 차별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구술자 : 한테서 일을 안하고 구역을 따로 띠 갖고 한계로 거시기 식당도 따로 있고, 아 인자 식당 어 식당은 같아. 같은 곳에서 밥만 해 갖고 인자.

• 일본 강제동원 생활Ⅱ - 조선인들의 시위와 진압과정

면담자 : 그럼 뭐 계실 때, 조선인이라고 민족적으로 차별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구술자 : 그렇게 차별한 줄은 몰라. 근께 인자 거시기들은 따로따로 한계 차별이라면 그렇게 현 일은 몰라 그런디 인자 부다가와 란테서 인자 고 아래 오로란테로 또 거시기를 바꿨어. 일세를 바꿔. 교차를 교차를 해. 거기서 인자 오노가 있는디 거기서는 인자 밥땀시 묵을것도 안줘 큰 세멘을 오노에서. 아 이 사람들이 차별이란 것이 식당서 이놈들이 차별을 했당께.

면담자 : 식당에서.

구술자 : 식당에서. 왜 일본 사람들은 인원이 적은디. 한 반에 인원이 몇 명인디. 이 우리 반은 이십 명이고 가들 반은 십오 명인디 식당에 밥이 소복소복해.

면담자 : 아!

구술자 :가들. 우리 식당에는 손이 쭉쭉 들어가.

면담자 :식강?

구술자 :밥통.

면담자 :아 밥통.

구술자 :어어. 글고 인자 우리는 인원이 많은디 밥이 작냐, 이놈새끼들이 뭐라고 그래. 고것땀시 큰 샘이 났어. 큰 샘이 나가지고는 아주 큰 대 샘이 나브렸어. 막 그냥 일본 놈들 앵킨테로 죽인다고 그 질에다가 자갈을 궁뎅이같은 놈을 깔아놔어. 그 놈으로 막 그냥 앵킨테로 그냥 일본 놈들 보기만 하면.

면담자 :아아.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돌로 때려버렸어요?

구술자 :막 몽뎅이 앵킨테로 이 씨벌 안 달아나면 죽어 때리고 죽어. 때려 죽여버려.

면담자 :음!

구술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 애 막 그 상애미라고 어른, 샤깡이라고 하는 어른들. 관리. 그사람도 본부에서 인자 해군 본부에서 인자. 썩간 차를 타고 저그서 나오다가. 막 쫓아간 게로. 마 안 내려놓냐고 큰 샘이 나갓고. 밥땀시. 그레가지고는 인자 저녁에 비가 슬슬 온디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내고는 가만있어서는 안된다. 헌병대한테 들어가서 말을 하자. 헌병대 들어간디, 미리서 알고 전화를 해서 헌병대들 나와. 차를 타고 나와...

본사에서 와갓고는 인자 그 광장에서 광장으로 전부 모여라 글고, 이런 일을 누가 시켜서 누가 두목이냐? 누가 이런 일

을 주동했냐! 두목을 찾아내라고. 누가 그랬냐고! 아! 이거  
개패듯이 한디 소리가 죽는다고. 아 나는 뒤에서 어찌 테꼬  
온 사람이 내 거시기를 요만히 부어갖고 있는께,<sup>168)</sup> 막 의무  
실로 들어가.

면담자 : 의무실로.

구술자 : 의무실로. 상처가 나갖고 심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자 그  
렇게 취재당하달 안했는데 아 막 죽는 소리를 하는디 두들겨  
패븐갑서. 말 하라고. 누가 이런 일을 시작했냐고. 그래가지  
고 이리<sup>169)</sup> 그 대학생들이 많이 했었어. 대학생들이. 우리 마  
을에 홍국열이라는 사람이.

면담자 : 홍국열?

구술자 : 나이가 우리보다 좀 많아. 많은디 사람이 영 순해. 순한디 이  
리 저 대학생들한테 가서 놀아. 그 사람들이 일<sup>170)</sup>은 그 사  
람들이 했는디 이사람이 했다고 그래브렀네 순헌 사람을.

면담자 : 아 곡성 홍국열 그분이 주모자라고 거짓말로.

구술자 : 그사람은 아무 그런 일 헐 사람도 아니고 영리헌디 인자 되  
게 다룬께 말이여 두드러패고 이사람이 그랬다고.<sup>171)</sup> 아! 아!  
그러면 이 사람이 늘 그 뵈이고 헌병대 취조 받으러 땡기네  
두드려 맞고 골병들어갖고 거기서 있을 수가 없은게 내보냈

---

168) 시위도중 이마가 돌에 맞아 많이 부어 있었다고 한다.

169)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시.

170) 주동(主動).

171) 이리 대학생들이 누명을 씌우다.

버렸어. 나와서 죽었어 골병으로.

면담자 : 일본에서 죽었어요?

구술자 : 아니 일본에서 죽을라고 하도 취조하고 두드려패고 해갔고  
는 그래서 골병이 들어갔고는 먹도 못하고 내일 와서 내보내  
뵈어 집으로.

면담자 : 곡성에 와서!

구술자 : 집에 와서 죽었어. 마자<sup>172)</sup> 죽었어 일본 놈들이.

면담자 : 그때 쫓아간 사람들 몇 명이나 됐어요? 경찰서로.

구술자 : 취조?

면담자 : 향의하러 간 사람들. 그때 경찰서로 헌병대로 향의하러 간  
사람들.

구술자 : 아! 전부 다 갔지.

촬영자 : 아. 그 전체적으로 규모가 몇 명이나 됐어요? 공사 현장이.  
일본 사람 몇 명이고.

구술자 : 여러 반인데 솔찬히 많지 인원수가. 한 몇백 명 되야.

면담자 : 조선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구술자 : 조선 사람들은 몇백!

면담자 : 몇백 명?

촬영자 : 일본 사람은?

구술자 :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은 우리하고 해당이 안되야. 한국 사

---

172) 구타에 의하여.

람만 그런 일을 했으께. 일본 사람은 그런 짓을 했가니. 지그  
나라인데.

면담자 : 음!

구술자 : 밥을 밥땀시 그들은 밥을 많이 주고 우리는 작게 준게 배고  
파서 못 살아. 작은게.

면담자 : 글면 그 물자 배급한 것 가지고 불만이 많으셨겠네요.

구술자 : 밥.

면담자 : 밥 말고 따로 의복같은거.

구술자 : 의복같은거 다 같아.

면담자 : 일본하고 같이? 차별이 없고? 근데 단지 식사만?

구술자 : 응 식사만 하루 삼 작 네 대기여 쌀 홉으로. 하루 배급 나온  
것은.

면담자 : 한 사람당?

구술자 : 하루 삼 홉 삼 작이네. 서 홉 삼 작. 그걸 먹고 어떻게 산대.  
한참 먹을 사람들이 일을 하는디 그런게 배가 고파서. 월급  
이라도 조금 줘야 매 뭇 사먹지 배가 고프게.

• 일본 강제동원 생활 III - 조선인들의 노동 환경

면담자 : 월급은 그때당시에 그러면 얼마나 받으셨어요, 한 달에

구술자 : 한 달에 월급이라고 해야 쪼개 몰라 그때 돈으로 몇 원이나 되는가. 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우고 담배가 배급 나오지 근데 인자 먹는거 배고픈게 먹는거 빵같은거.

면담자 : 그러면 그때 그 .

구술자 : 그때 일본서 있을때는 그랬는디 거기서 인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테 모아두면 큰 사고난다고 싹 찢어 놔놔블고 일본 사람 반으로.....

면담자 : 그때가 몇 년도나 됐어요. 천 구백. 해방 몇 년 전.

구술자 : 뭐 잘 몰라.

촬영자 : 해방되게 몇 년 전이에요.

구술자 : 해방?

면담자 : 아버님이 몇 살 때. 열 일곱 살 때 가셨잖아요.

구술자 : 어 일곱 살 때 갔은게 여덟 살 때 정도나.

면담자 : 열여덟 살 때 정도나. 한 이 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그때 그 지도원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관리들. 조선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들.

구술자 : 어, 반장이지. 딱, 군인같아!

면담자 : 그러면 어떻게 반장이랑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구술자 : 어, 반장은 현장에 가면 감제기나 하고 그제 인자.

면담자 : 조선 사람들이 반장하고.

구술자 : 조선 사람이 반장하고 숙소에 와서도 인자 인원 보고, 또 뭐



거시기 군인땡기로 검열이나 인자. 조침 기상 나팔 불고 취  
침 나팔 불고 군인하고 똑같애.

면담자 : 다 조선 사람들이.

구술자 : 하 거 부대에서.

면담자 : 부대에서. 그럼 그 일본 사람들은 다 군인들이. 그랬나요?

구술자 : 아니야.

면담자 : 그 지도원들은?

구술자 : 지도원들도 우리랑 같이 보급대가 와가지고.

면담자 : 일본 지도원들이?

구술자 : 거서 와서 다 여기서 그 일본민이야.

면담자 : 글면 그 조선 사람들이 일본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그런건.

구술자 : 아이고 뭐 감정이나!

면담자 : 그런건 없어요?

구술자 : 감정 낼 거시기도 없고.

면담자 : 그럼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는요?

구술자 : 음! 괜찮은거마냥 내가 볼땐 꽤 아파가지고는 집에서 약을  
한약. 대려먹는 한약을 내가 아파가지고 토질<sup>173)</sup> 토질 그 물  
이 달라가지고는 토질로 고생을 했어. 근디 이자 내가 그놈  
편지를 집으로 했더니 집에서 약을 지어 보냈어, 한약을 뭐

---

173) 토질병(풍토병).

어디 대려먹을 수가 있어야지. 서푸라고 그때는 장작을 때서  
달아서 스토프<sup>174)</sup>라고 있어. 거기 인자 그 뭐야 그것이?

면담자 : 음!

구술자 : 문 연 것이 수위, 문 수위!

면담자 : 문지기 수위.

구술자 : 수위가 인자 스토프 그놈 있어. 이것 좀 주전자에다가 대려  
달라고 하면 인자 대려주고 내가 아픈게 요놈 좀 대려달라고  
하면 인자 대려주고 그랬어.

면담자 : 잘해줬구나 그래도.

구술자 : 하 일본 사람도 좋은 사람은 좋아.

면담자 : 거기 그 일하다가 보면 규칙이 있을거 아니에요.

구술자 : 규칙이 다 있지.

면담자 : 그 규칙, 규칙 여기는 사람들 있을거 아니에요. 그럼 그 규칙  
이 보통 어떤규칙 이었어요.

구술자 : 규칙이라 하면 그 시간.

면담자 : 근무시간!

구술자 : 외출나갔다 와도 시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 쪼깨라도 그러  
면 몇 번이나 늦게 들어온 사람은 기재를 해놓고 다음 한 번  
은 용서해준갑서 다음에 또 그러면 인자 처벌.

면담자 :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아요?

---

174) 휴대용 가열기구.

구술자 : 두 번을 그런일 있으면은 처벌을 해.  
면담자 : 어떤 처벌을 받아요?  
구술자 : 처벌은 이제 기합같은거.  
면담자 : 기합. 두들겨맞거나 그런건 없고.  
구술자 : [빠따 때리는 시늉]  
면담자 : 빠따맞고. 빠따맞고. 기합맞고. 음.  
구술자 : 해군 본디 거시기가 있어. 며 강제로 사람들이.  
면담자 : 그런건 없고요. 강제로 하는건 없고요.  
구술자 : 강제로 하는건 없어.  
면담자 : 규율 위반하는 조선 사람들 많아요?  
구술자 : 더러 있지.  
면담자 : 더러? 뭘로 어겨요 그분들은.  
구술자 : 음!  
면담자 : 무슨 규율을 어겨요?  
구술자 : 아 인자 술먹고 들어오고.  
면담자 : 아 술 먹고.  
구술자 : 한국 사람인게 술먹고 거시기만 해.  
면담자 : 술먹고 술주정.  
구술자 : 떠들고.  
면담자 : 떠들고? 고성방가 하고. 주로.  
구술자 : 불침번이 있는게 숨은채로 들어와. 잠 안 자고 인자 잠 잠자  
는데 취침하는 나팔을 불어. 인자 불침번이 들어왔다가 술이  
나 먹고 오고 그래.

촬영자 : 어르신은 안그러셨어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어르신은 안그러셨냐고.

구술자 : [웃음] 나는 그런짓은 안했어. 그러다가 인자 막 그냥 한테  
모여가지고 사고난다고 와서 짝 갈라놓고. 일본 사람 반으로  
줘어다놓고.

면담자 : 반을 나눠버렸어요?

구술자 : 응 반을 나눠버렸어. 한국 사람은 한 데 모으면 사고 난다고  
[웃음] 근게 한국 사람 무서라 한갑서.

면담자 : 그때 남아가지고 일본 사람하고 있을 때 일본 사람하고 사이  
는 어땠어요? 같이 반을 같이하면.

구술자 : 일본 사람하고 친구같이 뭐 그런거 없어.

면담자 : 서로 다투거나 감정있거나 그런건 없어요?

구술자 : 그거 뭐 감정 가질 필요도 없고 감정 가질 것도 없고. 조금  
서로 거시기가 없어.

면담자 : 일본 사람들도 규율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  
데 똑같이 조선사람 대하는 것 같이 규율 어기면 똑같이 했  
어요.

구술자 : 하, 법이 다 있음게.

면담자 : 아 법에 맞춰서 조선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

구술자 : 그때 저 내가 그래갖고 가서는 인자 일본 가서는 있는디 거  
기서 인자 갈려가지고 짝 분산이 되어뵈어 한국 사람하고 짝

어디로 사방으로 기블고 나도 인자 그때는 오노<sup>175)</sup>란디와 다  
니가와<sup>176)</sup>란테 로 들어왔어. 거기도 수원지야. 요쪽은 무사  
가와라고 하고 요쪽 골짜기는 다리가와라고 한디여. 오노에서.

면담자 : 네.

구술자 : 고리 왔는디 일본 사람 반에 나허고 대판 제일동포 한인하  
고 돌이야. 일본 사람 반에가. 근디 오노에 있는디 아니 다리  
가와에가 있는디 선령대 실수 이따이라고 일본말로 조선말  
로 선령덴디. 실수 이따이라고 저 전방으로 간다고 그래 인  
자. 일본 사람 반이. 그 반이 다. 우리는 인자 일본 사람들 간  
대로 만 따라댕기는디 나는 안간다고 했는디 따라간 것이야.  
근게 인자 몇 일 있다가 그때는 전쟁이 붙어갖고 있어.

면담자 : 음!

#### • 태평양 전쟁 I - 대만

구술자 : 대동아 전쟁. 전쟁 먼테로 간다고 그렇게 고리 가기로 되었  
다고. 셋셋사이로 가리로 했다고. 거기있다 간다고 인자 날  
짜가 다한게 와서 인자 군항에서 해군 군항에서 거그서 배를  
타고 뜬단 말이야. 모든 준비 다 해갖고 배에 다 싣고 인자  
해군하고 같이 타. 해군 군속이라, 해군 설령대라 해군하고  
함께 가서 모든 설비를 다 해줘야해야.

175) 일본 군마현 동북부에 위치한 지명.

176) 다니가와다케(谷川岳, 일본 군마현과 니가타현의 경계에 있는 삼국산맥의 1,977m 산)를 지칭.

면담자 : 음!

구술자 : 의무실이고 뭐이고 준비를 다 해줘야해. 근디 인자 우리 반  
은 수송부로 떨어져갖고는 나는 가도 그래도 편히 있었어.  
자동차 조수로 따라다녔으께.

면담자 : 자동차 조수로?

구술자 : 자동차 조수로.

면담자 :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구술자 : 배를 타고 배를 타고 전쟁 전방으로 먼디로 간다고 했는디  
미군들이 밀고 나온다고.

면담자 : 안가고?

구술자 : 못 들어간다고, 대만으로 상륙했어.

면담자 : 아 대만으로? 군함을 타고 대만으로 가셨어요?

구술자 : 거 물자 실은 배하고 함께 대만 태남항.<sup>177)</sup> 거기는 태남항이  
있고 대북은 서울이라.

촬영자 : 근께 중국 밑에 대만이 아니라 태남?

구술자 : 태남.

촬영자 : 중국 밑에 대만이, 태남?

구술자 : 중국 대만!

면담자 : 아 중국 대만으로 가셨어요? 그 군함은. 어떤 군함? 수송함?

구술자 : 물자 싣고 그 해군허고는 태남항에다 대놓고는 인자 우리는

---

177) 대만의 타이난시(台南市)의 항구.



가쁜 죽는게로 구경이나 하고 가자고 일본 사람들이.

면담자 : 일본 사람들이?

구술자 : 책임자가. 그래가지고 저 대북<sup>178)</sup> 그때는 인자 대만 서울이  
대북이야. 간계로 맨 기와집이여 그때 우리 갈때는.

면담자 : 음!

구술자 : 아파트는 없고 맨 기와집. 지금은 텔레비 나오면 맨 고층빌  
딩. 그때는 다 기와집. 차도 쪼깐허니 우리 여기 집보다 더  
작은거 멩키여 사람 타고 멩기는 기차가. 기차가 쪼까내. 거  
그서 막 바다에다가 수박을 한 차 갖다가 서로 막 깨묵고 재  
미있게.

면담자 : 조선 사람 일본 사람 같이.

구술자 : 어. 그래서.

면담자 : 돈은 요?

구술자 : 재밋쓸때야.

면담자 : 그때 돈을 썼을거 아니에요.

구술자 : 돈은 다 부대에서 내.

면담자 : 아 부대에서 다 해주고?

---

178)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臺北市).

• 태평양 전쟁 II - 필리핀 민다나오

구술자 : 다 해주고. 재미지게 놀다가 갓는디 가다가 못 들어간다고  
필리핀 인자 민다나오 섬.<sup>179)</sup> 민다나오가 필리핀 나라에서는  
제일 커 섬이여.

면담자 : 그때가 지금 그 일본으로 징용을 가져가지고.

구술자 : 응!

면담자 :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까지 가신거예요?

구술자 : 응! 그지.

면담자 : 징병이 아니라?

구술자 : 징병이 아니라 인자 그때는.

면담자 : 해군 노무자로?

구술자 : 해군 스시이따이 라고 선장배로. 해군. 해군으로 가 배에 짐  
싣고 가갖고는 우린 인자 수송부로 떨어졌단게 그 반이.

면담자 : 응!

구술자 : 편히 있었어. 보급하러 땡김서 말에 있는 것은 기사 운전수  
가 일본 사람 조그만하게 재미있다(웃음). 하루 두 차례씩 배  
를 저기 큰 삼 미터 바위 트랭이에다 대 그거를. 보급을 하루  
두 차례씩 싣고.

면담자 : 필리핀 민다나오 갔을 때가 아버님 연세가.

구술자 : 그때가 우리가 들어가서 삼 년. 만기를 마치고. 삼기 삼 년

---

179) 필리핀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루손 섬 다음으로 큰 섬이다.

만기로 갔거든 우리가. 그래서 삼 년이 되었은게.

면담자 : 열일곱 살 때 가셨을 때 삼 년 만기로. 스무 살 때 나오는 걸로

구술자 : 우리가 일본 막 가서 삼 년간을 마쳤어. 삼 년 됐응게 보내도  
라고 집에 갈란다고.

면담자 : 일본에서.

구술자 : 어 일본에서.

면담자 : 저기 민다나오 가기 전에.

#### • 일본 강제동원 생활 IV - 휴가

구술자 : 우리 영사관에 가서 그랬어 인자 집 갈란다고 삼 년 만기 되  
었응게. 가만있으라고 가만있으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영사관에서 말이야. 일을 시켜갖고. 몇 일 있었응게 거기서  
휴가를 한 번씩 줘 집에 휴가 한 번 왔다가 삼 년 만기 마치고.

면담자 : 휴가 갈, 휴가 오실 때 저기 뭐 교통수단은. 교통편은?

구술자 : 도로 하카다와<sup>180)</sup>에서 배타고 여그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  
서는 기차타고.

면담자 : 기차타고 대전으로 와서.

구술자 : 기차타고.

면담자 : 여기 와서 며칠 있다가 가셨어요. 휴가를 며칠 받으셨어요?

구술자 : 아 휴가는 한 엿새 있었지. 아이고! 거짓다 여기 와분게 그때

---

180) 일본 규슈 후쿠오카(福岡)의 하카다항(博多).

는 다.

면담자 : 음. 나이가 드셔가지고. 성장해버리니까. 막 오셨을 때 휴가와가지고 곡성에 오셨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구술자 : 여기 가도 못해.

면담자 :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어요, 막 곡성 오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구술자 : 마음이, 온게 집에서 가기는 싫은디 안 갈 수가 없어. 경찰서에서 지키고있어.

면담자 : 경찰서에서 감시.

구술자 : 저 갈때부터, 올때부터 다 연락을 해갖고는 그 경찰서에 경찰들이 뭐 경찰복 입가니 사복입고. 몰라. 다 지켜. 따라와.

면담자 : 부산에서 올 때부터 사복 입은 경찰들이 감시 남몰래.

구술자 : 모른들 멍키로 손님들 멍키로. 경찰복을 입으면 다 알아볼 거 아니, 그렇게 있다가 일본 가서 인자.

면담자 : 휴가비는요?

구술자 : 휴가비 없어.

면담자 : 돈 한 푼도 안 받고?

구술자 : 휴가비는 아니고 즈그가 여그 실어다 줘.

면담자 : 아 여기까지 데려다 줘요? 안내원이 있네요. 그니까 부산에 막 도착하면.

구술자 : 돈을 안내고 왔어. 그때 여기는 해방되었다고 거시기는 돈을 안 받아. 한국에 와갖고 인자 우리 휴가 올때는 그때도 돈을 안 줬어. 일본 사람들이 다 낸갑서.

면담자 : 글면 배 탈때에도 일본 사람들이 태워주고 부산에서 내려

서 기차 탈 때에도 일본 사람이 누가 같이 일본 사람이 온  
건 아니고.

구술자 : 같이 오지 않고?

촬영자 : 증 같은거 있어요? 증. 증을 제시를?

구술자 : 증은 있지.

면담자 : 증을 제시를 하면 무료로 타게 해줬어요?

구술자 : 그런거 그런거 증은 있어.

면담자 : 탈 때 막 기차를 탈 때 표가 없으면 기차를 못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구술자 : 어 증은 다 뱌인게로 다 받아 증. 군속.

면담자 : 식사는요? 일본에서 곡성까지 올 때. 몇일 걸리던가요.

구술자 : 식사는 내가 그때 그 전에는 해방되었다고 거리거리 그냥 막  
그냥 밥을 해줬는갑드만 근데 아 나 나올땐, 아 휴가 올 때?

면담자 : 네.

구술자 : 휴가땐 내가 사먹고 왔지. 내 돈 내고.

면담자 : 음!

• 태평양 전쟁 II - 필리핀 민다나오 반란군 생활

구술자 : 다음에 들어가서 인자 들어와서 인자 저그 인자 해방 된지도 모르고 광복된지도 모르고.

면담자 : 민다라오!

구술자 : 통신이 안 된게로 일본으로 일본서 졌다고 손 들었는데 광복이 떨어졌는데 통신이 안 돼 몰라 일본이 졌는지 어땠는지 몰라.

면담자 : 민다나오에서?

구술자 : 제일 늦게 나왔어 내가.

면담자 :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나올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알고 나왔어요?

구술자 : 아이고! 거기서, 말도 못해. 반란군이 되어브렸어. 미군들이 올라와가지고는 미군들이 상륙해가지고는 우리가 큰 산으로 올라갔당게 산으로. 달아나브러써 우리도. 근데 인자 저그 양식들 쪼금씩 짙어지고 간거 산에서 떨어져본게로 굶어죽게 생겨서 밤으로는 인자 숨겨 나와서 고구마를 모두 캐 캐갔고 가네. 사방대 보초서고 말이야. 들에서는 막 고구마를 캐갔고 와 산 올라가. 고것도 각자 캐왔다고 한데로 모아놓고는 쪼까씩 끼니만 묵고 예! 산에서는 날마다 안개가 끼가지고 뭐 끼려먹고 연기가 나도 몰라. 안개가 확 끼가지고. 거그는 날마다 산에다 높인게 비가 와. 앉아있으면 거머리가 올라와. 근게 어디 가면은 나무라도 셔갓고 거시기를 지어야 해.

면담자 : 그때 그 산으로 인제 저기 도망갈 때. 그때 그거는 해군 군인

들이랑 같이 도망간거예요?

구술자 : 아! 그러지!

면담자 : 근게 노동자나, 해군 군인이랑.

구술자 : 그때 한국 사람 요 덕산 사람<sup>181)</sup> 있었어. 제일동포 한 사람 하고 나하고 저그 일본 사람 반애가 있음게로 한국 사람들은 어디가 있는지가 몰라. 비행장, 머 보수허고 작업을 한다는 말도 있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일본 부대에가 있음게 한국 부대는 뭐을 허는지를 몰라

면담자 : 음!

구술자 : 금께 둘이는.

면담자 : 아버님, 조금 쉬었다 할까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구술자 : 물 큰눔 여기 있어.

• 태평양 전쟁 III - 필리핀 민다나오 해군 수송부 생활

촬영자 : 일본에서 온거죠? 휴가는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필리핀으로 가신거죠?

촬영자 : 여기 보고 이야기 하세요!

면담자 : 아버님 그 민다나오에서. 그니까 이제 지금 비행장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해군 비행장이예요, 공군 비행장

---

181)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이예요?

구술자 : 아니야. 우리는 수송부.

면담자 : 수송부? 비행장에서의 수송부?

구술자 : 그 예, 해군, 해병단갑서.

면담자 : 부대 이름이 뭐예요. 근무했던 부대 이름이. 기억나세요?

구술자 : 아! 며, 부대 이름도 잘 모르고.

면담자 :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가신거예요?

구술자 : 그러지.

면담자 : 그 근무하면서도 부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구술자 : 잘 몰라. 한국 사람이라. 그때 일본 놈들 거시기 비밀 거시기라.

면담자 : 아.

구술자 : 어리고.

면담자 : 그러면, 거.

구술자 : 거시기 부대가 의무대도 있고 수송부라고 하지만 자동차도 고치는 기술자도 있고 여기서 운전기사 수송부대가 있어. 그 부대가 거 어느 부대는 몰라. 나는?

면담자 : 그 저기 민다나오에서 숙소는 어떻게 했어요?

구술자 : 아 숙소는 따신대라 우리가 거시간대는 집이 하나 있더라. 거그 이층집이 하나 있어. 거기서 집들이 거기 간계로 마을이 있단말이여. 마을을 점령해가지고 의무대도 들어가고 식당같은데도 들어가고.

면담자 : 아 마을 전체가 숙소.

구술자 : 마을 인자 주인들은 달아나블고. 달아나블고 비워갖고. 점유  
해갖고 사용을 했네.

면담자 : 군인들이랑 일반 노무자랑 마을에서 같이. 일본 사람이랑 같  
은 집에서?

구술자 : 응. 같이.

면담자 : 똑같이.

면담자 : 식사는 , 식사량 의복은?

구술자 : 식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면담자 : 해떡어요? 배급을 받아서?

구술자 : 수송대에서 한국 사람이랑 제일한국 사람, 덕산 사람, 나하  
고 그 부대에서는 우리 둘뿐이 없어 한국 사람이. 둘만 수송  
대로 떨어져갖고. 그런게로 몰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많이 있어 갖는다?

면담자 : 음!

구술자 : 거기는 비행기가 뺏다 글면 떠서 가 갖고는 안 들어와브러.  
그런게.

면담자 : 아 일본 비행기가 떠서 나가면, 출격을 하면?

구술자 : 응 출격을 하면 들어오들 안 해. 가문(웃음) 그냥 어디서 내  
려븐가? 내려븐거제! 인제 미국서 미국 비행기가 오면 가능  
성이 없은게로 인자 그래븐거지.

촬영자 : 사람 신고요?

구술자 : 사람은.

면담자 : 전투기가?

구술자 : 전투기에 사람 둘인가 탄다. 비행기가 가뜩 떠서 나갔다 하  
른 안 들어와브리. 그런게 망한 집이제 뭐.

• 태평양 전쟁 IV - 필리핀 민다나오 미군 포로 생활

면담자 : 음! 그때 그 도망가셔가지고 같이 있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알고 내려왔어요, 항복을 한거예요? 아니면 내려온거예요?

구술자 : 아! 그것은 산이 워낙 골짜기 커가지고 집들이 드문드문 사  
람 많이 살아. 그런데 이제 차길 찌리 한 대 다닐만한 지형이  
있어. 차로 나는 일본군 헌병대 누구라고 일본서 손들어 버  
렸으니까 내려오라고 방송을 해. 마이크로 밤에.

면담자 : 음!

구술자 : 며칠 그래. 아이고. 첨에는 이거이 거짓말인가 그런디 며칠  
그런게 이게 참말로 일본서 손들었는갑다. 싹 총이고 뭐이고  
다 내불고<sup>182)</sup> 중대장이 칼만 하나 차고 내려오고 여그 중간  
에, 학교가 쫓까난게 있는다.

면담자 : 내려오셨을 때 누구랑 내려오셨어요?

구술자 : 일본 사람들이지 뭐.

면담자 : 몇 명이나.

구술자 : 일본 사람들. 한 이백 명 될 것이여.

면담자 : 이백 명.

---

182) 버리다.

구술자 : 그렇게 내려왔어. 싹 산에다가 뭐 총이고 칼이고 다 놔두고  
중대장만 칼차고 내려와. 중간에 내려와 학교 같은 집이 있  
는데 마당에서 차가 서너 대가 쉬어 있고, 인제 거기서 인자  
야! 정렬을 시키더만 아 똥또. 먹을것을 막 미국 사람들이 먹  
는거. 많이 묵으라고 미군들이 많이. 뭐 배가 고프니까 먹지.  
다라이다 뭐를 많이 줘, 많이 묵었냐 묻고 묵었다고 하고 차  
타라고.

면담자 : 총으로 위협하고 그런건 없구요?

구술자 : 아 그런건 없어.

면담자 : 미군들이 위협하고 그런건 없구요?

구술자 : 싹 다 빼블고 중대장 칼도 빼블고 다 몸수색 해갖고 칼 하나  
랑 다 뺏어. 차 타래. 먹은게 있으니까 배가 불러. 차가 배같  
이 생긴 차야. 수위대끄 차라고, 물로 가면 배가 되고 육지  
로 가면 차가 되고 그거여. 싸악 땀지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대에. 싹 타고 여 바닷가에로 가 바닷가로 간디 바닷가에 쭉  
웁 텐트를 쳐놔어. 저. 저기. 고리 가서는 인자 대치를 해갖  
고 천막에 들어와. 천막. 천막에 들어와서 인자 그때 누워있  
제. 때때로 밥만 묵고 놀아, 배가 안 온께 묵고 놀아. 배가 오  
면 타고 갈려고 한달포 오래 있었어.

면담자 : 음!

구술자 : 묵고 놀고 묵고 놀고. 한 번 저 본께 파란 바닷가에 큰 배 한

체가 와. 아 인자 그 배가 기다<sup>183)</sup> 여그 실어. 수위대끄 배에.

면담자 : 수륙양용 배로.

구술자 : 수위대끄 물로 가면 배가 되고. 차가 되고. 차가 몇 대가 인자 막 실어나르고 자꾸 실어가서 인자 배에다 망을 막 쳐놓고는 고놈 잡고 올라가.

면담자 : 올라가.

구술자 : 올라가서 인자 배에 한 이틀? 실었는가? 그 많은 사람들 다 실고 인자 집에 간다. 여 인자 몰라 이틀이 걸렸는가 사흘이 걸렸는가 배 안에서 또 묵고 노네. 그렇게 한 이틀이나 되었나 사흘이나 되었나 인자 그때가 심심할때쯤 인자 도착되었다고 요코스까<sup>184)</sup> 여기가 해군본부.

면담자 : 음!

구술자 : 요코스까 해군본부항에다 대놓고 왔다고, 아! 거기서 해군본부에서 내리니까 인자 애쓰고 왔다고 애쓰고 왔다고.

면담자 : 일본 해군 본부에서. 일본인들이. 타고갈때 그 배는 미군 배였어요, 일본. 그건 미군 배죠?

구술자 : 그건 일본 배고.

면담자 : 아!

구술자 : 전쟁에 갈때는 전쟁.

---

183) 그것이다의 준말.

184) 일본 가나가와현 남동부의 군항(横須賀)이다. 에도시대부터 방어의 거점으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요새사령부와 조전소 등이 있었으며, 지금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육상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다.

면담자 : 민다나오에서 필리핀 올 때에 일본 배를 타고 왔어요?

구술자 : 올 때는 미군 배지.

면담자 : 아 그렇죠 미군 배. 미군 배를 타고 인제 일본 해군기지로 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구술자 : 애쓰고 온다고. 그렇게 인자 쳐도, 저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 지고 온다고 해도 애쓰게 온다고 환영을 해줘. 거그서 해군본부에서 사흘인가를 지냈지. 사흘인가를 지낸게 한국에 나와도 인자 두쪽으로 갈라쳐서 재미가 없다고.

면담자 : 일본 사람들이. 저기 한국 조선 가봐야.

• 일본 강제동원 생활 V- 조선 귀국

구술자 : 가봐야 재미가 없다고. 그런게 인자 갈 사람은 가고 인자 여기 남아도 좋다고. 여그 우리는 인자 일본 반이가 두 사람인게.

면담자 : 음!

구술자 : 일본 사람들이 그냥 집에 안 간다고 하면 지가 테꼬갈라고 인자.

면담자 : 아 일본 사람들이?

구술자 : 응 지그집으로 테꼬가서.

면담자 : 음!

구술자 : 같이 덩기고 속을 알고 금께 인자 알아서 하라고. 아 집이가 오고자 못살아. 집이가 오고자써. 집 간다고. 집 가겠다고 그렇게 인자 모푸. 담요, 담요를 확 큰거 해군 하나씩 딱 싸줘.

갖고가라고.

면담자 : 그것만. 따른 돈이라든지?

구술자 : 그런건 없어.

면담자 :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구술자 : 아이 거기서 인자 집으로 다운꺼지.

면담자 : 그니까 일본 어느 항구로 해가지고?

구술자 : 일본서 인자.

면담자 : 일본 어디에서?

구술자 : 일본 요코스까 행빈이라는대서 기차타고.

면담자 : 배타고?

구술자 : 기차타고.

면담자 : 기차타고.

구술자 : 기차타고 인자 하카다 항구로.

면담자 : 음!

구술자 : 하카다 항으로 와서 거그서 인자 배타고 부산으로 오지. 그  
래갖고 나오고.

면담자 : 인자 그 부산에 막 도착했을 때에는 이제 아버님 이제 완전  
혼자잖아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막 그때 부산 도착했을 때에 부산에 그 저기 뭐야 도착할 때  
맞이하는 사람들은 없었고요?

구술자 : 없어.

면담자 :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고?



구술자 : 애, 젤로 늦게 온게로 환영한 사람도 없고.

촬영자 : 그때가 몇 월이예요. 몇 월에 오신 거예요. 팔 월에 해방이  
됐잖아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1945년 8월에 해방 끝나고.

구술자 : 응.

촬영자 : 어르신 언제 왔냐고. 우리나라에.

면담자 : 해방되고 난 다음에.

구술자 : 그때 그런게 해방. 해방되아서 해방된 그 해에 왔어. 그 달  
에. 그 다음 달에 왔구나.

면담자 : 구월 달에.

구술자 : 제일 늦게 나와서. 해방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거그서.

면담자 : 보니까 그 옛날에 일케 수용소 같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에. 일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구술자 : 환영.

면담자 : 환영해주는 그런.

구술자 : 환영대들이 막 역마다 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막 그냥 식사대  
있다고 했다고 한디 나 올때는 저.

면담자 : 아무것도 없고? 아버님 아무것도 없고 내리니까 마음은 어  
떠시던가요?

• 일본 강제동원 생 VI - 오지리마을 귀향

구술자 : 아! 그냥, 집이 가분게 좋지. 댁이 그냥.

면담자 : 좋아요?

구술자 : 그리고 인제 와서 그냥.

면담자 : 아니 그러면 부산에서 똑같이 기차 타고.

구술자 : 어어. 기차 타고.

촬영자 : 해방되고 오셨잖아요. 휴가가 아니라.

구술자 : 어! 그때.

촬영자 : 해방되고 온 느낌은 없어요?

구술자 : 좋지 그냥 집에 온게 좋지! 집에 와서 인자 또 그냥 몇 년 사는데. 또 육이오가 안티졌는가.

면담자 : 시끄러워서 쉬었다 하계. 방안에서 하계. [소음으로 인해 방안으로 이동]

면담자 : 아버님, 그렇게 해서 인제 곡성 오지리로 왔잖아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막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구술자 : 아 집에 온게 좋지 뭐 다른생각 할것도.

면담자 : 할것도 아무것도 안나시고.

구술자 : 다른 생각은 할 것도 없고. 좋은 맘만 있어, 집이 와서 좋다.

면담자 : 그때 오셨을 때 오지리에는 가족들이나 동네사람들이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구술자 : 아 뭐 살아왔냐고(웃음). 굉장히 거 가서 어찌 어떻게 살아왔냐고(웃음). 그리 친구가 있는디 필리핀에서 죽어봤어. 왜

냐면 거그 인자 산에를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쉬어가지고 낙오가 되어가지고는 뒤떨어져가지고는 뒤떨어졌음게 그 배고픈게 뭐 묵고가자고, 간계로 저 스페인 사람이 농장을 했다고하더만 닭장에가 닭들이 많이 갇혀갓고 닭 문도 안 열어주고 모두 달아나뼉어. 하여고, 어찌 몇 마리 잡아갓고 삶아묵자고. 고놈을 잡아가지고는 이거 뭐야 이거 쇠부탱인가 뭐인가 통에다 그런 통이 있어 그냥 세 마리인가? 세마리. 해갓고 삶았어 그냥 불에다 삶아. 삶아갓고 묵으란게 못묵졌어 빼셔갓고. 연기가 났는갑서. 비행기가 와서 인자. 연기가 나고 연기를 보고는 비행기가 와서는 미국 비행기가 와서 막 쏘아브리. 이리가면 쏘고 이리가면 쏘고 썩, 막 와갓고. 쏘고. 아우! 막 병아리가 이놈이 막 기관포가 그냥 날아댕겨 방에서. 이놈 막 쏘게 거기서 맞아북엇당게 친구 하나가. 김복기라고, 김복기라고.

면담자 : 김복기.

구술자 : 기차마을<sup>185)</sup>에. 옛날에 거기서 국밥<sup>186)</sup>도 하고 거기서 그러고 살았어. 우리 친구.

촬영자 : 같이 가신 분이예요?

구술자 : 탄환에 맞아 죽어브렸어. 달아난 판이라 뭐 나도 죽게 생겨브렸어 인자 부대 찾아가야지 그래갓고 친구가 그때 죽어브

---

185) 지금의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6리이다.

186) 당시 오곡면 오지리 6리에 주막(酒幕)거리가 있었다.

렸어. 아따! 그냥 무섭더만 비행기!

면담자 : 그때 그 시신 수습 같은 것도 못하셨겠네요.

구술자 : 아이 뭐 할 수가 없지.

면담자 : 음!

구술자 : 할 수가 없죠. 달아날 판인디 산으로. 집주인이 와서 뒤에 치웠겠지?

면담자 : 그러면 그 때 수송 그 일 하시면서 일본군하고 미군하고 일케 전투하는 그런 것 보시고.

구술자 : 전투는.

면담자 : 전투가 어떻게?

구술자 : 전투란 허던 안했어. 못해. 산으로 달아났는디 저어 바다에서 함포사격이라고 배에서 막 산에다가 쏘아브러. 포가 막여까지 떨어지고 먼 떨어져갖고는 그렇게 우리가 요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달아나고 그렇게 반란군 생활을.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러다가 해방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늦게. 통신도 안 되고 일본으로 연락도 안 되고. 늦게 그렇게 나왔지.

면담자 : 그렇게 해가지고 곡성을 오셔가지고.

촬영자 : 어르신 일본에서 삼 년 이상 계셨는데, 삼 년 이상 계셨는데 일본말 그 소통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내 친구들끼리는 그냥 하지.

촬영자 : 한국말 하시고, 일본말 다 알아들으시고 하셨어요?

구술자 : 그렇지.

촬영자 : 여기 학교다닐 때 교육을 받으셨나요, 학교다닐 때? 일본의 말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구술자 : 일본말 뭐 자연히 배워져. 상황에 자연히 배워져. 여그서 미국가면 미국말 자연히 배울거야. 그이 보편적이여.

• 창씨개명

면담자 : 그러면 혹시 아버님 창씨개명 하셨어요?

구술자 : 응! 시라카와.

면담자 : 시라카와?

구술자 : 백천 시라카와 일본말로 시라카와 한국말로 백천이야.

면담자 : 백천.

구술자 : 백 천. 흰 백자 내 천자.

면담자 : 그럼 오 백천 경섭?

구술자 : 아니.

면담자 : 그냥 오 백천?

구술자 : 오자가 시라.

면담자 : 아아아아 오를 백천으로? 백천 경섭.

구술자 : 어어. 시라카와 게이서.

면담자 : 글면 창씨개명은 어디서 하셨어요.

구술자 : 여그 있을 때 했지.

면담자 : 열일곱 살 이전에?

구술자 : 여그 있을 때 창씨 여그 있을 때 했어. 창씨를.

면담자 : 창씨개명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누가?

구술자 : 아 우리 총 종중에서

면담자 : 오씨 종중에서?

구술자 : 오씨들이 시라가와를 했지.

면담자 : 아 아버님 의사하고 관계없이 해주 오씨 종중에서 결정을 해서.

구술자 : 오씨들은 시라가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촬영자 : 글면 이제 갔을 때 침에 일본 사람이 왔었다 했었잖아요. 일본 가자고, 뭐 어떤 말을 했었어요?

구술자 : 뭐, 일본 가자고?

촬영자 : 예.

구술자 : 어디를 일본 가자고?

촬영자 : 근게 이제 누가 헌병대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징용?

구술자 : 헌병대로 가자고? 이리 사람들은 대학생들이 마을에가.

촬영자 : 아니 그거 말고. 열일곱 살 때.

면담자 : 그냥 데리고 가버렸대요.

촬영자 : 징집?

면담자 : 그런 얘긴 나왔어 아버님. 창씨개명 하셨을 때 무슨 뭐 마음이 안좋다던지 그런 생각 안드시던가요?

구술자 : 그런 생각 없어. 다, 다 모도 한게로. 조씨들은 다마카오라고 하고.

면담자 : 그러니까 아버님 그 아버님도 그냥 집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었어요?

구술자 : 어어. 다 한게로.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

면담자 : 그때 창씨개명 할 때 오지리 사람들도 막 반발하고 머리깎고

그런 분들은?

구술자 : 단발령?

면담자 : 창씨개명 한다고 반대하고.

구술자 : 아 반대하고.

면담자 : 싸우고 버틴 사람들은 혹시 기억나세요?

구술자 : 그런 사람들은 오지리서, 그 구식을 막 그냥 창체시킨 사람들이 누가. 조씨가문에나 선생 선생님들? 노인, 서당, 선상, 그 땀가?

면담자 : 옥천 조씨.

구술자 : 그래도 결국엔 다 했는디.

면담자 : 여기 오강사 조우식, 조영선, 그분들은 인제 마지막까지 조금 버티시다가.

구술자 : 반대했을것이여!

면담자 : 음!

구술자 : 다 젊은 사람들 따라한 거지 뭐.

### • 결혼

면담자 :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생활하셨잖아요. 육이 오 일어나기 전까지, 글면 결혼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공께 인자. 집이서 그렇게 시집 집이서 그런 생활이지 이토록. 큰집이 인자 이렇게 해서 산계로 아직 제금을 못나.

면담자 : 제금을 못나가서. 아 그때까지도, 아버님 오셨을 때도 그 제



금을 못 나가고 가족들이 큰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구술자 : 어 큰집에서 같이 살았지 결혼도 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뭐 나이가 이십 사, 사 세 땀가 그렇게 결혼을 내 기억에  
서 어른들이.

면담자 : 결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 결혼?

면담자 : 중매?

구술자 : 중매는 어머니가 며느리를 구했지. 어머니가. 저 봉정리  
조씨.

면담자 : 아 봉정 조씨.

구술자 : 어 봉정리<sup>187)</sup> 조씨 집안에서 어머니가 보고 자기 며느리는  
자기가 골라가지고로 장가를 갔는데!

면담자 : 결혼식 날 얼굴 봤어요? 그 전에는 못 보고 결혼식날 처음으로  
신부를 보게 된거예요?

구술자 : 그러지. 아 옛날에는 다 그랬어. 장가갈 때 거시기 뭐 데이트  
란 거는 모르지 지금같이. 옛날로 다 그렇게 장가간다 그랬  
어. 신부 얼굴 개리고 나온디 모르고 인자. 나와 가지고는 결  
혼해갖고 그냥. 딸 한나 생겨갖고 딸 딸 하나 나왔는디 그러  
고 그니까 붙어갖고 살게 되었어 조금 나왔으면 집이라도 지  
어갖고 쪼끔 가도 일반 안식구가 그냥 나가자고 작은 방이

---

187)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라도 나가자고 나올라고 한게 말이야 큰집에서 오래 있는 게 말이야.

면담자 : 음!

구술자 : 잘해줘서 내보낼라고 그래도 안 되고, 나가자고. 넘처럼 그냥. 그래서 그냥 내가 따랐제. 인자 작은방에서 나와서 살았지. 살다가 아니 내가 인자 그렇게 결혼하고는.

면담자 : 따님 낳고, 큰 딸 낳고.

구술자 : 안 식구가 친정에서 있었어 거시기를 안했어 아직. 시집을 안 왔어. 그래갖고 그때 딸이 하나 생겨갖고는 친정에서 함께 키웠지.

면담자 : 그니까 신부가.

구술자 : 그러다가 데려왔지.

면담자 : 신부가 결혼을 해서 시댁으로 안 오고 친정에서 계속 계시다가 거기서 딸을 낳고 인제 저 제금을 하셨네요.

구술자 : 거기있다가 큰집서 오라고 데려왔어. 데려다놓고 본게 제금<sup>188)</sup>을 내줘야 한디 제금을 집을 내준다 어쩐다 하다가 저놈 내줬어 내, 터가 하나 있어. 터를 하나 사 놓은 것이 있어. 거기다 집을 지어서 내준다고 한디 그럴 형편이 자꾸 못되야. 그런게 나가 나오자고. 나왔지.

면담자 : 나와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

188) 분가(分家).

구술자 : 녀의 작은방.

면담자 : 아 녀의 작은방으로. 그리고 계시다가 육이오가?

구술자 : 아니 그것이 빨이 나와서 그것이 그것이 저그 있을 때 내가  
군대 갔구나 친정에 있을 때.

면담자 : 친정에 있을 때 큰 딸 낳고 전쟁이 난거예요.

구술자 : 어 딸 낳고 친정이 있을 때 내가 군인에 가브렸어.

면담자 : 그니까 큰 딸 낳고 육이오가 나니까.

#### • 한국전쟁 I - 훈련병

구술자 : 육이오가 나갔고 모병을 해. 여수 십오 연대가 창설이 되었  
어 창설 했어. 거그서 모병을 한다고. 모병을 해. 근디 나는  
지원을 했어. 내가 외국에 가서도 그렇게 그스겠는데 우리  
한국이 전쟁이 났는데 집에 있다가는 또 인민군들한테 잡혀  
간단말이여. 그래서 지원을 나는 거 모병한테 가겠다고 그래  
갖고 간 것이라. 그래갖고 나이가 많은 것이야.

면담자 : 그때 나이가?

구술자 : 그때 나이가 스물네 살, 시물넷인가 되야. 나이가 많아. 군인  
에 간 나이가 넘었을 때가. 그러게 모병을 한디 여수 십오연  
대로 입대를 모도 했지. 여그서는 여그 친구들도 막 가고. 거  
그 입대를 해가지고 순천서 교육을 받네 순천. 순천 장대에.  
순천서 인자 교육을 받네. 거그서 피병을 온 사람도 있고. 뭐  
빨치산들이여. 피병해갖고 나와갖고는 빨치산 허고. 거그서  
훈련받다가 아이고 거 어디 전주 내려왔네 어졌네, 침에 인

자 여수로 또 내려왔어.

면담자 : 아버님 훈련받으실 때,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구술자 : 아 거기서 매 거시그 뛰고 뭐 돌아라고 그렇게 그렇게.

면담자 : 총은.

구술자 : 총은 안돼, 총은 안돼. 무기는 지급 못 받고~도 무기 없고.

거기서 인자 갔다가 인민군이 전주 내려왔네 어찌네 하고 여수로 갔어. 여수로 들어가서 며칠 있었는데 인민군이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아 그런게 배에다가 모든 짐 뭐 식량이랑 내려와서 묵을 것 신고 인자. 그날 아침 안개가 가득 끼었어 이렇게 해서 여수 신안까지 엑스포 생긴데 안개가 막 끼가지고는 안개가 깨어나면 출발한다고 그러고 인는참에, 신월지구 산문땅에서 배에다 대고 포를 쏘네 그려 인민군이 그세 왔어. 남원을 왔다는 놈이 거기 와서 그래갖고 배가 그냥 이리저리 틀고 저 마산으로 가서. 마산 그 산 거기서 인민군이 고 넘어온다고 경찰부대가 방어를 하고 있어. 그거 지원부대로 좀 내려주고는 부산으로 가. 또 내려주고. 또 인자 우리는 부산으로 갔지.

면담자 : 그 때가 몇 월 달이었어요?

구술자 : 유월.

면담자 : 유월 달에, 유월 이십오일에 전쟁이 나서, 칠월, 칠월?

구술자 : 그런게 칠월 쯤이나 되었는데, 칠월. 칠월 쯤이나 되었어. 마산에다가 좀 내려왔어. 경찰 보고 방어, 방어 허라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인자 남지기<sup>189)</sup>는 부산으로 왔어. 부산진 국민학교에 가서 인자 훈련을.

면담자 : 음!

구술자 : 부산진국민학교 맨! 훈련을 인민군이 곧 내려오는데, 맨! 훈련만 받아. 그런데 이것이 이상해. 부산진국민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조금 있다가 인자 사상 제2교육대 고리 가서 훈련을 받네, 아! 훈련만 인민군이 들어오는데 훈련만 시키냐고 왜 전쟁터로 안 보내냐고 그러제 인자 유엔 미군부대가 인민군이 건너온다 연락을 받고 그랬는갑서.

면담자 : 음!

#### • 한국전쟁 II - 전투

구술자 : 연락을 받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밤낮 훈련만 시키고 그렇게 또 하루는 유엔 트랙이 몇 대가 다 짐을 싣고와서 사상 제2교육대 연병장으로 들어와. 그러니 인자 모도 나와 전열하라고 나와서 전열허라고. 나와서 인자 전열하고 있는게 각자 앞에다가 여 머냐! 저 물건을 내려놔네. 피복, 총, 뭐 별 것 다 내려놓고 완전 무장을 시켰어. 완전 무장을 시켜갖고 차 타라고. 미군들이. 미군이 인자 한국땅에 막 반스를 판이라. 우리도 인자 유엔군이라. 그래가지고 전쟁터로 낙동강

---

189) 나머지.

전장터로 나왔는데 여 함안, 함안가에 인민군이 집결했어 부산 들어올라고 거기가 집결.

면담자 : 음!

구술자 : 첫 전투에 그걸 다 들어냈네 인민군. 인민군 그놈 막 그냥 비행기가 때리고 포가 때리고 고놈들 막 박살을 내블고 부대가 다 디져블고 피해블고 고놈들 막 해체시키고는 밀고 고놈들 없은게 그러제, 뒤로 빠꾸 빠꾸 하면서 전차로 갔다가 막 밀어붙어서 아군들이 어디가브러서 막 분산이 되아브렸어. 아이고! 허! 거그서 아군들 많이 죽었구만 인민군들 때문에. 나도 길바닥에 쪼께 움푹하게 파인 데가 있어 지금은 아스팔트로 했지만 그전에는 자갈 깔아놓고 그런 길이라 움푹하게 패인데가 있어 하아! 거그를 옆드려서 살았어. 하! 아이고!

면담자 : 아 그 파인곳에서 옆으려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구술자 : 어어 그 전차.

면담자 : 전차가 지나가는데.

구술자 : 우리가 그 전차를 앞세우고 호위하고 간단말이여. 인민군 싸우러, 간디 인민군이 언제 곧 미리서 와서 가상<sup>190</sup>에가 배치 가 되어갖고 있어. 싸 대는데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거그서 많이 당해브렸어. 거그가 숨어갔고 있는데 거가 있는지도 모르고 많이 집결 한 놈만 전차로 막 죽여댐서 거그만 있는지

---

190) 길가(노변).

알았는데, 인민군들이 이렇게 숨어있는지를 몰랐어. 그래 갖고 거그서 많이 당해브렀어. 아! 양쪽에서 싸대는데 정신이 없어! (웃음)그래갖고 살았어. 인자 막 뒤로 인자 나옴서 막 어디 숨어갖고 군인들 찾아갖고 본대로 가, 전차를 타라해서 탔는데 아 인자 전차가 빨라. 화 해 다 짝 잡고 옆저있어야지 아니면 여그 가 떨어져브리. 그래가지고 인자 또 여쭙에 인민군이 있다고 그래서 내리라고 그랬어. 내려갖고는 산으로 가서 추격해갖고는 인민군 추격해가지고 산을 올라가는데 아이고! 인민군이 고놈들이 또 있어 숨어갖고 싸면서 여기 미군 아군.

면담자 : 네!

구술자 : 미군들이 이름도 그사람들이 지어브렀어. 비어라고. 내 이름을 비어라고 해브리. 비어라고 불러. 가는디 하나가 부상을 당해서 다리가 달랑달랑 하는디 데리고 내려가라고 나보고 옆고 내려가라고. 그놈들은 고놈 거시간 일은 안할라고 해. 중대장이가 다리 거시기해갖고는 죽은 소리를 한꺼로 중대장 보고 왜? 키 작은사람보고 하냐고 뭐 옆에 있는 막 키 큰 사람이 와서 옆고 가라고. 키 큰사람이 옆고 간게 다리가 땅에 안닿은게로 괜찮는갑서. 그런 예가 있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인자 낙동강가에 원위치로 인자 왔지. 아까 얘기도 요썩은 함안지구고, 저썩에는 상주, 나루터여. 나루터디 여가 참 거시기가 위치가 좋아 강가에는 전쟁이라 이놈들이 얼른 달라붙어서 올라오지를 못해.



면담자 : 음!

구술자 : 인자 요 돌아와야 와서 올라오지 올라오덜 못해. 그것을 우리가 낙동강을 지키고 있었어 높은데서 인자. 한번은 인자 요놈들이 깡맹이<sup>191)</sup>를 지어갔고 온단말이여 강가로, 이것들이 깡맥이를 쳐고 가 고놈 정신쓰라고.

면담자 : 깡맹이를 치고.

구술자 : 고놈들이 인자 뒤에서 올라 올라고 그런 전술을 써. 다 알아 불고있는데 우리가! 참! 아이고! 고놈들 인민군들 하이튼 막 비떨어지고 캄캄한디 노손 병력하고 앞도 안보이고 그럴때 가 제일 좋아해 요놈새끼들이.

면담자 : 음!

구술자 : 낮에는 비행기 있는디 어디서 꿈쩍을 못해. 어디 나무 밑에서 잠이나 자고 있고. 밤만 돌아오면 근께 밤에 정신을 바짝 써야돼. 저쪽 저쪽으로 가서 이동을 해서 거그서 인자 보초를 선디. 골잔에 떨어져서 아래로 내려와서 거가 저수지 저수지가 아니라 강가에 연변 박아논데 지 먼지 이렇게 있어. 요쪽 밑에서 인자 뭐도 있고. 나무들이 맨들, 언덕 밑에가 있고. 나보고 보초 시라고.

면담자 : 음!

구술자 : 아이 제일씩 끝터리서 뿔이 꼭 사람맹키로 옆졌다가 있다가

---

191) 팽과리.

한겨 멍키어. 아이고 이것이 기다냐 아니다냐 하여튼 눈이  
헛보였어. 꼭 사람멍키어 그래서 쏘아브렸지. 아 그랬더니  
미군들이. 어이 뿔했냐고 왜그랬냐고 그래 뿔했냐고. 하이  
에네미<sup>192)</sup>가 저기가 있다고 에네미가.

면담자 : 에네미. 에네미.

구술자 : 에네미. 에네미라고 풀숲에 있다고. 근계로 없어. 보도 와서  
보고, 아니야 근계. 내가 헛봐브렸어.

면담자 : 음. 잘못 보셨구나.

구술자 : 아! 긴장을 하면 그렇게 거시기된당게. 캄캄한디 꼭 사람멍  
키어. 긴장을 해본게 근디 그래가지고는 거그서 인자 안있  
고 요쪽에 와서 우리 인자 거그서 전투가 끝나더라고. 요쪽  
에 함안서 인자 상주로 건너간 다음부터. 거그는 좁아. 강폭  
이. 여그 뭘 백미타 안돼 강변이 좋아 거기가. 그래가지고 인  
자 밀이가 솔이 많이 있고 근디 뽀짝<sup>193)</sup> 가서 거 저걸 바라보  
네, 감시를 해. 아이고! 나보고 가자고 또. 잘 데리고 나를 잘  
데포다닐라고 하대. 또 따라갔어 감시를 해. 내가 기침이 어  
찌 나오는지 아구미, 사람 환장하졌어. 막 구멍이를 파고 저  
기다 주맹이를 넣고.

면담자 : 소리 안들릴려고.

구술자 : 거그서 기침해갖고 발견되면 죽어, 저쪽에서 보고 쏘부디.

---

192) 인민군.

193) 가까이.

아이고! 그래가지고는 인자 그런꼴을 보고 인자 호, 한구덩이에 돌썩 들어가서 보초를 하고. 근디 앞에다가 시리다를 소복소복 쌓고 만약에 던지고 떤지고 막궁그루고<sup>194)</sup> 가 근방은 머리카락같은 철사에다가 쫓까만 건드리면 불이나게, 불이 확 써져블게 가설<sup>195)</sup>을 해놔뵈어. 그런게 어찌를 못해.

면담자 : 음!

구술자 : 큰 비여, 그 비 많이 오고 앞이 캄캄하고 앞이 안뵈인디 아침에 본께 저 밑으로 그놈들이 포복을 해갖고 기어간 티가 있어. 하, 아슬아슬 했어 죽었어 오졌어. 요놈은 아구미<sup>196)</sup> 그런 일을 봤어.

면담자 : 그럼 이제 거기서 전투를 하다가.

구술자 : 거그서 인자 끝났어. 낙동강은. 한국군은 인민군 못막아. 인민군들은 무기도 좋고. 가들 이기들을 못해 한국군은.

면담자 : 그때 지급받은 무기가 뭐였어요?

구술자 : 함께 내가 미군들허고 함께 다넘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

면담자 : 네!

구술자 : 거그서 인자 전투 끝나고는 끝나고 이제 요리, 진주로. 진주로 해서 산청으로 해서 남원으로 해서 전주로 해서 올라가는

---

194) 텅굴고.

195) 임시로 설치함.

196) 감탄사.

디 여 진주가 여그 인민군들 집결지라 집 한가운데 잿더미야 시내, 집 한 채가 없어 재가 되어뿔어. 여그 지리산인게 여그가 집결지라. 쪼끔 있으면 요놈들이 올라가 버리고 잿더미가 되어브렸어. 진주라는데는. 그래갖고 인자 산 지금, 산청으로다가 요놈들이 인민군들이 막바지라 총을 쏘고 올라가 분갑서, 거그서 인자 그러고는 산청으로 저그 운봉으로 해서 요리 남원으로 넘어왔구만.

면담자 : 산청으로 해서 지리산 넘어서 운봉으로 해가지고.

구술자 : 운봉 길로 해서 남원으로.

면담자 : 남원으로.

구술자 : 어어. 길이 고약해갖고. 아주 꾀잘 살아왔어. 어찌 길이 다 꼬불꼬불한디 거기서 내려서 인자 남원으로 해서 실리에 가서 몇일 있다가.

면담자 : 어디 실리?

구술자 : 실리. 전주 밑에 실리. 아 실리가서 몇일 있는데 아! 미군 놈들이, 나쁜 놈들이 부락에 가서 집집마다 수색을 해! 나쁜 놈들인갑다 뭐흘라고 하고 뒤를 따라간게 뭇로 따라오냐고 총을 짚어대네, 아구매! 안따라가뿔어. 총을 쏘르면 그만이여! 음! 요놈들이 뭇 나쁜 놈들 그거냐고 거시기라서. 뭇드게 남의 집을 기웃기웃해.

면담자 : 약탈할라고.

구술자 : 그런게 그것이야. 아이구 여자나 있으면 거시기할라고 할라하고 나쁜 놈들. 그걱정 할라고 내가 인자 뭇 짓을 할라고 모르

줬다 하면서 살살 뒤를 따라가니까 거그는 뭘라 따라오냐고  
그래 아이고.

[웃음] 아이고메! 싸불면 에이고메!

면담자 : 그럼 인제 거기서 어디로 가셨어요.

구술자 : 거기서 인제 저 우에 영동, 그런게 인자 큰 부대는 여그 인자  
거시기 인자 보내브렀는가 어디로 갔는가 해갖고 고문들만  
남았어 고문들. 고문들만 데꼬 인자 우리는 영동까지 왔어

면담자 : 미군부대에서.

구술자 : 어어 미군부대에서.

면담자 : 그 미군부대 기억 나세요? 어떤부대였는지.

구술자 : 이름이 미국 30사단인가.

면담자 : 미국 30사단인가 그쪽.

구술자 : 영동 가서 며칠 있다가 저 아래 옥천, 냇가에 와서.

면담자 : 충북 옥천.

구술자 : 영동 밑에 옥천. 아무튼 냇가에서 인제 육사단에서 편입을  
시켰는가 편입 시켜가지고 들어가봤어 고문들.

면담자 : 옥천에서 미군부대에서 다시 한국군 6사단으로 정식으로 배  
치를 된거네요.

구술자 : 6사단으로.

면담자 : 그때가 몇 월 달이나 됐을까요?

구술자 : 그러고는 인자 갈려브렀지.

면담자 : 그때가, 가을?

구술자 : 가을이여 가을. 그때가 구월인가.

면담자 : 구월 정도에.

구술자 : 구월 그때 음력으로 구월.

면담자 : 가을정도에 인제 정식.

구술자 : 가을이여, 그때가 나락이 노른노른 했어. 영동 가서 본게 애 있는것들이 하나둘 사복을 입고 뛰어가, 속 달아나, 오다가 나락밭으로 들어가고 그래브러 그래서 우리가 저 둘러본디 심심해서 요리 나와서 둘러본디 뱀뒹블지. 뛰어서 잡아가고 하겠어. 뱀뒹블지.

면담자 : 저 인제 6사단 배치받아서 거기서.

구술자 : 6사단 19연대로.

면담자 : 6사단 19연대.

구술자 : 6사단 19연대로 되가지고 낙동강 전투 끝내고 6사단 19연대를 가가지고는 인자 우리 중부전선이여. 중부전선으로 6사단이 중부전선. 요쪽 평양 쪽으로. 하이 저 올라온 인민군이 비쳐야지 싸우지, 없어. 막 이 들어오라고 이놈들이 지금 생각한게 중공군들이 요놈 작전을 내놨어, 터두라고 나오지 말고. 포위작전 할라고. 그것도 모르고 강 더 올라가네 사정 없어. 그리고 우리 추격, 좀 추격해도 없어. 비치들 안해 인민군이 막 차만타고 그냥 밤낮 올라가 막.

면담자 : 차만 타고.

구술자 : 계속 계속 올라가 막 발견되들 안하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인제 평양 비행장에 와서 들은것이었나 글고 또 올라와, 또 올라가 막, 올라간게 인자 우리 선발대는 저 압록강 물을

수통에다 여갓고 묵었다고.

면담자 : 6사단 선발대가.

구술자 : 우리는 후발대는 뒷, 후발대는 그냥은 못가고 우리는 인자 압록강 부근에서 중공군하고 전투 개시 할라고 하는데.

면담자 : 압록강까지는 못가고, 압록강 부근에서.

구술자 : 우리 인자 선발대는 압록강까지 갔는데 하이튼 선발대는 져고, 그냥 가서 있는데 여 우리도 인자 올라간게 이 압록강 거시기에서 중공군이 비쳐. 이놈들이 망 불라고 그랬는가 전투 태세는 아닌디 비치더란말이야. 그런디 인자 압록강 거서 죽으나 사나 거기서 대립하나 볼 판이라 우리는. 싸고 와서 죽는다 있는게. 미국서 후퇴명령을 내렸다고 후퇴하라하네. 1.4후퇴. 후퇴라하고 명령이 내렸다고 후퇴하래. 아이고. 후퇴한게 거그서 포위가 되아브렸어. 중공군이 포위해브렸어. 밤에 나팔을 불어브리. 포위했다고 신호. 아이 우리는 포위해서 다 죽겠네. 한쪽은 뚜러야 죽으나 사나 뚜러야 나간다고. 한쪽을 뚜러야지 뭐 죽으나 사나. 그런디 뚫고 나온디 사람들이 겁나게 죽어버렸어 아군들도 이놈들이 인자 포위했다고 나팔을 빼 빼러 나팔을 불어 포위했다는 신호를. 우리는 포위당해븐게 오라했더니 한쪽을 뚫고 나온디 아군들도 뭐 많이죽고 앞에 밟혀도 죽고 막 그냥 넘어와블고 그렇게 뚫었어. 뚫고 나왔는데 인제 임진강 가까이 도달했는데 인제 날이 뻥허니 새어 날이 새어보니 조금 까끌막 길이어 기진맥진해갓고 걸어가들 못하겠어 힘이 없어갓고. 인민군들이 막



사로잡을라고 산채 잡을라고 쫓아와 뒤에서. 선발대가 뒤를 본게 곧 잡히겠더라 아군이 곧 잡혀. 아이고! 조정을 해 조정 사격을 해브렀네, 해 그놈들이 맞아갖고 떨어져서 연기가 폴 폴 나네 모두다 쓰러져갖고 아! 우리 아군들도 용감한 사람이 썩브렀어. 곧 걸어가떨, 곧 잡힌다해도 돌아보들 못하고 좀 돌아봤어 그랬더니. 곧 잡을라고 따라왔는디. 고놈들이 씨러져서 연기가 폴폴, 선발대가 보고 썩브른것이야. 그래갖고 임진강까지 인자 왔어. 아니 인자 임진강서는 후퇴 없다고 여그 사수한다고. 인자 그렇게 알았지. 거그서 인자 임진강에서 죽을 줄 알았지. 남쪽에 7사단인가 우리가 북쪽이 6사단인가. 인자 여그서는 사수한다고. 우리는 중화기 중덴디 썩썩 포병이여. 그때 추워서 사십도가 되었다고 아이고! 추워서 우리는 그래도 멀리 불이라도 피워서 썩고, 부락에 가서 숨같은거 떼다가 발 띠 띠 감고 신고 그런디 여그 전방에 호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쩐가 순찰을 한번 해보자고, 가보자고, 그래갖고 아이고 불도 못 피우게 하나까 땡땡 얼어갖고 불쌍해서 못 봐. 동상 환자가 겁나게 나브렀어. 그때 남쪽이 한쪽이 터져브렀네 7사단 한쪽이. 그래갖고 서울까지 내줘브렀어. 그래갖고 인자 우리 6사단은 경기도 광주, 광주쪽으로 후퇴를 해갖고 거그서 인자 주둔을 해. 주둔을 했어. 주둔하는디 인자 하이! 반장이 수색 수색 나가자고 나를, 나를 부르네. 수색나가자고. 수색을 수원지 수색을 한번 나갔단말이야. 중공군들이 어디만치 있는고 수색. 요놈들이 위에서 숨

어갓고 있다가 쏘아브렸네. 금계 군인이라든 문자 발견 못하면 죽는것이여 즈그한테 발견. 내가 먼저 발견해야 살지 그리안하면 죽어. 숨을때 어디가 있는줄 알아야지. 쏘아브거여 다리를 맞아브렸어 쪼끔 여기를 맞았으면 죽어븐디 아 어디 갈란게 못가곤킨어. 아이! 다리가. 다리가 덜렁덜렁. 덜렁덜렁 요놈이 여그를 맞아갓고 요리, 요리 맞아브렸네 다리가 덜렁 덜렁해브리.

면담자 : 그러니까 여기<sup>197)</sup>를 맞아서, 요쪽으로. 아!

• 한국전쟁 III - 부상과 야전병원

구술자 : 다리가 툭.

면담자 : 다리가 떨어져서,

구술자 : 요놈 요놈. 툭 끊어져브렸어.

면담자 : 여기서 요리를 맞고, 요쪽으로. 관통해서.

구술자 : 요그 다 끊어져갓고 덜렁덜렁 다리 짧아.

면담자 : 아 그래서 다리가 짧아요?

구술자 : 어어. 다리가 짧아 요놈이.

면담자 : 부상당하기 전까지 관찮았는데?

구술자 : 어어 여기 잇어짐서 짧아져브렸는가. 다리가 요만치 부서 갓고는 수술을 못헌데. 부기가 빠져야 험다고. 그래갓고 야

---

197) 구술자의 오른쪽 다리(정강이).

전병원으로 후송이 되어갔고 대구 제일병원으로가서 조금  
또 있었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담배 한보루씩 선물  
주더마.

면담자 : 부상병들한테.

구술자 : 위문 와서.

면담자 : 아! 이승만 대통령이 병원으로 위문을 와가지고 이승만대통  
령 봤어요?

구술자 : 이승만 대통령.

면담자 : 얼굴 봤어요? 대통령?

구술자 : 하. 대통령 직접 와서.

면담자 : 이야기 하셨어요? 대화는 안하셨죠?

구술자 : 애쓰고 있다고 그러지.

면담자 : 이승만 대통령이.

구술자 : 드러누워서 아파 드러누운지는 알아야지 되 갖고 옆에서는  
알아서 수고했다고.

면담자 : 이승만 대통령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구술자 : 좋았지.

면담자 :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대통령 그때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구술자 : 아 어떤 생각이(웃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대통령  
명령에 따라 죽고살고.

면담자 : 밋거나 그런 생각 안들던가요.

구술자 : 그래서 거 있다가 다리가 붓고 거시기해서 저 부산 3육군병

원 본원에 본원으로 갔지 요리 후송이 되어가지고. 거그서  
인자 치료를 오래걸렸어 붓기가 안 빠져갖고는 수술을 못한  
다고.

면담자 : 대구병원하고 부산병원하고 그때 막 환경은 어땠어요 치료  
환경은?

구술자 : 치료는 하여튼 군의관들이 애썼어. 막 다리 끊어지고 사람이  
병실을 잘못들어와 무서서. 막 그냥 그런게 벌벌 떨어.

면담자 : 군의관들이. 다리 떨어지고 치료해달라고.

구술자 : 눈에 불을 켜든게. 다리를 도려낸 사람도 있고 허리를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아프다소리 막 쟁알대갖고 나도 하우! 요러  
고만 있었는데. 아이고 붓기가 빠져야 된다고 군의관들 아이  
구미! 고름을 냄새로 맡아보고. 애썼어.

면담자 : 침대 막사로만 하나씩 쪽.

구술자 : 쪽.

면담자 : 막사로. 건물 안돼있고?

구술자 : 그거 그거 뭐 중학.

면담자 : 아 병원이 아니라.

구술자 : 뭐 중학, 고등학교.

면담자 : 학교 건물을.

구술자 : 응 학교 건물을.

면담자 : 건물을 병원으로.

구술자 : 학교 건물을 주 점령해갖고.

면담자 : 병원으로 썼구나.

구술자 : 응 그때는.

면담자 :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

구술자 : 학교 교실에서.

면담자 : 누워 계셨던거네요. 침대로 누워 계신거예요 아니면.

구술자 : 대강당도 있고 그때 학교가 뭐 학콘가 고등학콘가 큰 학교.

면담자 : 기억 안 나시고.

구술자 : 용두산 꼬터리. 그 자갈치 시장 있는디 거.

면담자 : 그래서 인제.

구술자 : 거그서 인제 치료.

면담자 : 치료하시고.

구술자 : 치료하고 이제 집에 나왔지.

면담자 : 근데 그때 인제 막 1.4후퇴해서 내려오실 때, 그 잠 같은 경  
우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할 때, 막 내려올 때.

구술자 : 아 1.4후퇴때?

면담자 : 그냥 막 그냥 산에서 그냥 잤어요?

구술자 : 아 피난민인지, 군인인지, 몰라 막 뒤에서 끌어갖고는 길이  
팍팍 매갖고 피란민인지, 군인인지, 막 그냥 암튼 내려왔지.  
우리는 인자 임진강까지 와갖고 스톱 막사 지어갖고 거기서  
사수한다고.

면담자 : 거기 막 섞여서 내려올 때 그 이케 이제 부대는 부대들끼리  
또 모여서.

구술자 : 어. 부대들끼리 이케 막 집단으로 내려오덜 못했단게 피난민  
이 막 섞였단께.

면담자 : 그럼 어디서 집결하라고 그래요?

구술자 : 어. 인자 거그서 인자 선발대가 임진강까지 다 보이니까 임진강에 후퇴 절대 여기 사수하지 후퇴는 없다 그렇게 명령을 해뵈어 임진강까지.

면담자 : 그럼 이제 임진강에서 후퇴하실 때 부대에서 뭐라 그랬어요. 같이 후퇴 안 하고 어디서 집결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구술자 : 그때 인자 우리 6사단은 임진강서 후퇴할때는 경기도 광주.

면담자 : 아 그럼 경기도 광주까지 같이 이렇게. 후퇴.

구술자 : 광주. 광주서 주둔했지 6사단.

면담자 : 글쎄 인제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받고 곡성으로 바로 오신거예요?

구술자 : 어. 부산 3육군 병원에서 인자 수술하고 집으로 왔지 인자.

면담자 : 치료는?

구술자 : 우리 곡성은 분회가 없어. 창설도 안 되었어 분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분회가, 우리가 인자 나와갖고 창설을 하고.

면담자 : 분회가 뭐예요?

구술자 : 지금 지회지 우리들.

면담자 : 아 부상병? 상이용사? 그게 없어서.

구술자 : 우리 나올 때 없어.

촬영자 : 글쎄 집에다간 언제 알리셨어요. 다쳤다고 집에 안 알리셨어요?

구술자 : 알릴 때? 집에 알릴 때? 병원에 있을 때 오는 사람은 부모가 뭐 해갖고 와서, 나는 집에 알리도 않았어. 알리도 안 했어.

면담자 : 그러면 저기 곡성에 와가지고 그 인제 신부가 알게 됐네요.

다친 것을.

구술자 : 나는 집에 알리도 않고 인제 여그 수술하고 집이 집이로 왔

지. 온게 인자 거시기를 짓고 네 발 짓고 온게 이거 뭐(웃음)

기분이 그리 좋았꺼여? 집안 식구는? 병신이 되어갔고.

촬영자 : 딸도 있었다매.

구술자 : 뭐 거시기 책을 줌서 이놈을 재대장으로 뺏을 군에 가서 보

이면 포상을 받을 것이다. 군에 가서 봐이면 뭘 보상 해줘?

면담자 : 제대.

구술자 : 그때가 한참 거시기가 좋들 못했어.

면담자 : 다리가.

구술자 : 병신들 그 대우를 안해주고 보조를 안해준게 어찌게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런게 막 땡깡을 부리고.

면담자 : 아! 그래서 막 거칠어졌구나 무서워지고.

구술자 : 그게 좋들 못했어.

면담자 : 그 제대신고는 해야되잖아요. 제대 신고는 어디서 했어요?

구술자 : 제대 신고는 인자 군에다 해야지.

면담자 : 그니까 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병원에서 제대신고를 했어요?

구술자 : 거기가 보조를 거시기를 받아야 산계 군에다 해야지.

면담자 : 그니까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군대 6사단으로 복귀를 안

하고?

구술자 : 아냐.

면담자 : 6사단으로 가셨죠?



구술자 : 원대복귀 한사람들은 경상, 경사 이런 쪼끔 어디 다친 사람들, 손꾸락, 다리가 성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 복귀를 해도 우리같이 다리가 끊어져블고 중상자는 안돼.

면담자 : 그럼 중상자들은 병원에서 집에 가라?

구술자 : 그러지.

면담자 : 제대증 하나만.

구술자 : 제대증 하나만 해주고.

면담자 : 병원에서 끊어줘서?

구술자 : 어. 제대장만 한나 이놈 해주고 보상 거시기를 받을 것이다, 보훈을 해줄 것이다, 하고 와봐야 뭐 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면담자 : 그때 인자 부상당해서 곡성에 오셨을 때 신부랑 딸이랑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구술자 : 뭣이?

면담자 : 아무생각이 안 들어요?

구술자 : 걱정이.

면담자 : 무슨 걱정.

구술자 : 아니 인자 내가 병신이 되어브렸으니 먹고살 일이 걱정이지. 그렇게.

면담자 : 그래가지고 그때 막 오지리를 왔을 때 곡성도 전쟁통이잖아요. 오지리도 어떤 상황이던가요. 막 시끄럽고 난리도 아니고.

• 한국전쟁 이후 가정생활

구술자 : 내가 인제 그때 왔을때는 공비들,<sup>198)</sup> 공비들이 산에서 밤으로 내려와서 여기는 못된 자식들이 많이 부락에서 있었어 저 지금 뭐인가 (옥설) 그때 나쁜 놈들이 부락도 망치고 그러네! 몇 놈들이 생겨갖고. 뭘 빨치산<sup>199)</sup>이나, 뭐이나, 그놈들, 그놈들.

면담자 : 그 사람들하고 좀 다투시고 그러셨어요?

구술자 : 빨치산 그 자식들 경찰들이 잡을라고한께로 부락에서 있들 못허지 낮에는. 밤에는 헛간 어디 거시기한데 와서 그러고. 경찰들이 잡을라고. 숨어서 살았는가 그 사람들.

면담자 : 저기 거.

구술자 : 공산당이라고 그놈들.

면담자 : 군번은 기억하세요?

구술자 : 군번은 알지.

면담자 : 군번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원원오 쓰리세븐 파이브 세븐.

면담자 : 원 원 오.

구술자 : 오, 쓰리 세븐.

면담자 : 쓰리 세븐.

구술자 : 파이브 세븐.

---

198) 6 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게릴라(빨치산).

199) 유격전을 수행하는 비정규군(非正規軍) 요원의 별칭.

면담자 : 파이프?

구술자 : 세븐.

면담자 : 세븐. 일일오삼칠 오칠?

구술자 : 일일 공.

면담자 : 일일 공. 원원 제로? 쓰리 세븐?

구술자 : 아니. 원원 오.

면담자 : 오. 아 오가 제로구나. 일일 제로 쓰리 세븐 파이프 세븐?

구술자 : 어.

면담자 : 일일공삼칠오칠. 총은 어떤 총을 그때.

구술자 : 엠원.

면담자 : 엠원. 총번 기억하세요?

구술자 : 총 번호? 아이고.

면담자 : 그때는 뭐 그런거는 없구요.

구술자 : 있어 있는디 총 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디 뭐시.

면담자 : 그때 같이 자원입대 동네에서 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닌가요?

구술자 : 있지.

면담자 : 그때 몇 분 가셨어요? 자원입대.

구술자 : 시콰야, 한, 둘, 시, 네, 넷? 다섯, 다섯, 5명인가 보네.

면담자 : 다섯 명. 다섯 명이서 살아서 오신 분이 몇 분이예요. 전쟁  
다 끝났을 때.

구술자 : 전쟁 끝나고 어, 전쟁 끝나고 아니 다섯 명이 왔는디.

면담자 : 아 같은 부대로 가신 분 계세요?

구술자 : 같은 부대로?

면담자 : 아니 뭐 다.

구술자 : 다 해체.

면담자 : 다 해체 그렇죠.

구술자 : 응. 해체됐어. 근디 인자 집이 와서 봤는디 다 죽어브렸어.

면담자 : 아! 그러니까 다섯 분 중에서 혼자만 살으셔서 그것도 인제 이렇게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혼자만 오셨네요!

구술자 : 다 죽어브렸어. 혼자만 왔어. 음에도 아는 사람 있어신디 삼기도 있고 다 죽어브렸어. 우리 함께한 사람. 나하고 함께한 사람 다죽어브렸어.

면담자 : 아 그러면 이거 말고요, 그때 민다나오 같이 동네에 가서가지고 죽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 사망하신 거 동네에 와가지고 가족분들한테 직접 말씀 하셨어요?

구술자 : 어 거시기.

면담자 : 다른 분이 안 전해줬을거 아니에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아버님이 직접 전해주셨어요?

구술자 : 어. 내가 성한테 직접 전해줬지.

면담자 : 아.

구술자 : 여그 안살아. 서울서 살거야.

면담자 : 지금은 인제. 그때는 오지리서 살고.

구술자 : 그때는 여그서 살았지.

면담자 : 뭐 그때 사망하니까 그때, 그때 이케 그 민다나오에서 죽었다고 말하니까 믿던가요?

구술자 : 아이 믿지 하든. 죽었다고. 내가 말하는데 안 믿을 수가 있나  
같이.

면담자 : 그때 죽었다고 말을 할라고 하니까 어떠시던가요 그때. 말  
전할라하니까.

구술자 : 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촬영자 : 그럼 다리 다치셔갖고 치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덜 나  
셨을거 아니에요 다리가.

구술자 : 나?

촬영자 : 네. 그때 곡성 와가지고. 제대 해가지고.

구술자 : 재발이 돼서.

면담자 : 재발이 돼서?

구술자 : 재발이 돼가지고 조선대학서 재수술을 했지. 조선대학 의사.  
조소령 이라고 군의관이더마. 조소령이.

면담자 : 광주에 가서 조선대학교에서 조소령이라는 군의관한테 재  
수술을 받으시고?

구술자 : 재수술을 했어.

면담자 : 그리고 인제 곡성에 오셔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리가 다치셨는데.

구술자 : 아 생활이란건, 고놈 완치가 되어서 도로, 도로 일 해묵고 살  
았지.

면담자 :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인제, 시간이 흘러.

구술자 : 인제 아픈데가 뿔어갖고.

면담자 : 아버님, 시간이 흘러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 청구협정 하

잠아요. 김종필 총리가.

구술자 : 그렇게 그것이.

면담자 : 그때 보고 계셨을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시던가요? 한일협정에 대해서는.

구술자 : 고것을 이제 데모를 청와대에 가서도 하고 우리가 어이 인제 박정희하고 김종필이하고 타다가 다 경부선 철도좀 내서 다 어떻게 포항제철에다 줬다 하던가? 그래갖고는 내노라고 청와대에 가서 데모도 하고 우리가 그런적도 있어. 이제 좀 보상좀 하라고. 이것이 서울서 저 아는 사람들은 그때 돈을 받아갖고 부자가 되어버렸다고 들었어.

면담자 : 일부는? 아.

구술자 : 청구금. 일본 청구금 타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그서 직접 받아갖고 그때는 큰 돈이라고 하더라. 그래갖고 다 부자가 되어버렸어. 우리같이 인자 시골에서 모르고 온 사람들 그 돈 지금 일 년에 팔만 원 나와.

일 년에 팔만 원.<sup>200)</sup>

면담자 : 일 년에 팔만 원.

구술자 : 일 년에 팔만 원. 이게 돈도 아니고 이자식들이 그런짓을 하고 있어.

면담자 : 지금 이천십팔 년 현재 일 년에 팔만 원.

---

200) 추후 확인한 결과 구술자의 착오였다(정부로부터 1년에 80만원을 받고 계셨다).

구술자 : 일 년에 팔만 원.

촬영자 : 명목이 뭐예요?

구술자 : 말도 아니지.

면담자 : 어떤 명목, 어떤 명목으로 줘요.

구술자 : 그 명목으로 주지.

면담자 : 강제동원 피해 보상으로 해서 그 명목으로 해서 팔만 원?

구술자 : 그런 명목으로, 아이고 말도 아니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자식들이.

면담자 :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대한 보상금 그런 대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구술자 : 거 일본 사람 그것을 목을 거시기를 정해갖고 준 것이 아니  
라 떠놓고 그냥 줘본것이어 그니까 다 줘버렸다고하고 일본  
사람들 잘못이어 요것은.

요것은 징용 거시기라고 목을 정해서 딱 쫓으면 말이 없을거  
인디 덮어놓고 막 그냥 쥐갖고는 인자 일본서도 다 쫓다고  
몫 다 쫓다고 하지. 떨고.

면담자 : 그 우리나라가 뭘 피해보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 해준거  
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나라에서.

구술자 : 나라에서?

면담자 :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구술자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면담자 : 예 아버님같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구술자 : 지원이란 것은 보상이라고 그것을 뭐 보상하고 음.



면담자 : 아무튼.

구술자 : 청구금을 다 타다다가 써부렸다 그것이지.

면담자 : 예에 그게 꽤빚하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거죠?

구술자 : 그거때때 이거 팔만 원도 원래 용산 우리 이거 거시긴디 사  
무소가 있어. 그사람들이 애써서 이것이 유일하게 나와. 그  
리안하면 이것도 순전히 없을거인디. 발견을 해갖고 내노라  
고 그래싼게 이것도 명목으로 준거여.

면담자 : 아버지 제가 칠십 년대 강제동원 청구권, 이천 년대 한국정  
부진상규명법, 그다음에 뭐 천구백칠십 년대 피해보상하고  
이천 년대 피해보상 봤는데 뭐 의미가 없네요, 팔만 원 주고  
있는데.

구술자 : 어어. 그런게 말이여.

면담자 : 뭐 칠십 년대나 지금이나 일 년에 팔만 원인데, 제가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 그랬는데.

촬영자 : 어르신 다쳐갖고 보훈대상자시죠.

구술자 : 아니 여기는 군인으로 한거여.

촬영자 : 그니까 그 보훈.

면담자 : 아니, 그 보훈 대상자가 아니시죠?

촬영자 : 육이오때 다치셨는디.

구술자 : 유공자.

면담자 : 유공자지. 징용이 아니라 육이오 때에.

촬영자 : 지금 다치시면 보훈병원 가시고 그러시죠?

구술자 : 응.

면담자 : 아니 그니까 다리 다치신거는 징용이 아니고 육이오때에 대

한 이것은 징용이랑 관계없이 육이오때 참전한 걸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고 계신거죠.

구술자 : 응.

촬영자 : 그거에 대한 혜택들은 많이 그래도 있죠?

구술자 : 대통령 그 청구권 징용해간 돈이 육만 원 받는단거야 지금.

면담자 : 그럼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금 바꾼다면 일본 징용 갔다온 군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술자 : 아니 더 줘야지. 타먹은 사람들은 말고 그 사람들은 서울 아는 사람들은 그때 탈 때 받아브렸다 기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어브렸다 그래. 상당히 많이 줘브렸는갑서. 다 살 만치 줘브렸는갑서. 그런게 그 말한사람 타다가 김○○이는 제주도 쓸때가 없어서 밀감밭을 다 사놓고 그지탈을 하고 우리같은 사람돈으로. 그런게 하여튼. 그 지금 박○○나 이○○이나 미련한 사람들이야. 돈 많이 갖고 세금내도 계속 부자가 될거인데 뿔하게 더, 돈을 그 쓸 줄도. 그니까 돈을 하늘로 갖고 올라갈거여 외국에다 많이 거시기 했을것이어 외국에다가 유치해냈을거여 지금. 그 돈을 뿔헐라고.

면담자 : 지금 막 녹음하고있는데. 마을방송에서 울리는 소리 때문에 잘 안들릴 것 같아요. 그 아버님. 인제 그렇게 징용 갔다 오시고 육이오때 자원해서 참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버님, 우리 그 우리 인제 손주도 있고 자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 거 아닌가요. 그 말씀좀 해 주세요.

구술자 : 나라가 이만치 되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하여튼 모두가 정신차려가지고 나라,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잘해가지고 골고루 선진처럼 그렇게 만들어야돼 정치가. 그런. 그런 정치가 되어야지 문재인 대통령 그 식으로 나가야제. 보훈신문을 미리 봐도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한것 같애.

면담자 : 그러면 우리 그 인제 나라는 그렇게 하고 그답에 우리 손주랑 우리 인제 아버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해요.

구술자 : 아이고 근게 정직하니 뭐, 정직하니 살아야, 하여튼 사람이라는 것은 정직하니 살면 살 수가 있는거여. 건강. 건강하고. 정직하면 살아. 첫째는 건강해. 건강만 하면 내가 안가져도 건강만 하면 노력하고 살 수가 있네.

면담자 : 아버지 마지막으로 그 일본, 그 일본 징용 갔다온 것을 한번 지금 떠올리시면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이 드신가요.

구술자 : 고걸 떠올리면. 하[한숨] 왜 나는 일본 사람들이 나는 나쁜놈들이라고 봐. 우리 아무리 거시기 나라가, 나라가 첫째는 우리나라가, 모도 잘못이지. 국력을 길러야한다. 국력을 못기른 탓으로 우리가 징용을 갔다오고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 첫째는 넘 탓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걸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 내가 잘못된 것이야. 우리나라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징용을 갔다온 것이야. 선조, 할아버지 왕들이 모두 국력을 길렀으면 이런 일은 없으니까. 첫째는 국력이야. 국력이 돼야. 이대로. 평등하니 골고루 다 잘사는 법을 만들어야해. 근데 나는 그런다. 나는 영토 없는 세상을 살았

기 때문에 국력이여 국력. 국력을 기르면 자연히 국민이 잘 살수가 있는 것이여. 더 그 도둑질거 같은거 그런거 하지 말고 정직허니 국력을 키우고, 그거 통 필요없는 것이여 결국에는 똑같애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결국은 똑같애 국민이 다 같이 갈라든 다같이 정직허니 국력을 길러야 써. 나라사랑을 해야돼.

면담자 : 알겠습니다. 아버님.

구술자 : 나는 헐 말도 없고. 그런 [웃음].

면담자 : [웃음] 아니 이렇게. 장시간 아버님 말씀 들어보면서 아! 아버님같이 이렇게 인제 뭐!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랑 임감독<sup>201)</sup>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구나 해서 아버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술자 : 감사하게 생각해야해!

면담자 : 네!

구술자 : 우리다 감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산것도 참 감사히. 감사하게 생각. 하나님께서 이렇게해준거여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이 지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잘하든 다 잘살게 될거야!

면담자 : 감사합니다!

구술자 : 어! 그래!

---

201) 영상 촬영자.



**김경남**

1930년생, 곡성군 죽곡면 반송리 출생



**김경남 “구술 생애사”  
(2018년)**

## 김경남 구술

- ▣ **면담주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6·25 한국전쟁.
- ▣ **구술자** : 김경남(여, 89세), 1930년생, 곡성군 죽곡면 반송리 출생.
- ▣ **면담자** : 조준원.
- ▣ **배석자** : 정삼수.
- ▣ **촬영자** : 배숙영.
- ▣ **기록방법** : 캠코더,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촬영 및 음성녹취.
- ▣ **면담시간** : 2018년 9월 9일(9시 30분~11시 30분).
- ▣ **면담장소** : 곡성군 삼기면 김경남 자택.



• 가정과 유년기

면담자 :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구술자 : 성함이?

면담자 : 네.

구술자 : 김경남.

면담자 : 아, 그러면 연세는요?

구술자 : 팔십팔 세요.

면담자 : 아, 팔십팔 세요?

구술자 : 어, 음.

면담자 : 아, 어머니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술자 : 태어난데는 저 반송<sup>202)</sup>서 태어났어.

면담자 : 반송?

구술자 : 어, 죽곡 반송.

면담자 : 그때 그 어머니 부모님들은 뭐하시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실래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어, 어머니, 우리 엄마, 아버지 어머니요. 부모님들, 가족에 대해서. 죽곡.

구술자 : 모르지.

면담자 : 아니 그 죽곡 친정, 친정 어머니랑 아버지 무슨 일 하셨어요

---

202) 곡성군 죽곡면 신흥리.

그때?

구술자 : 노동자지.

면담자 : 그냥 노동자? 그럼 친정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자매  
들은?

구술자 : 아 어려서 돌아가셔서 몰라!

면담자 : 어려서 몇 살 때나 돌아가셨어요?

구술자 : 세 살.

면담자 : 어 아버지가! 그럼 어머니는?

구술자 : 음, 어머니는 몇 살인지 모르지.

면담자 : 몇 살 때 돌아가신지 몰라요?

구술자 : 나 어머니가 몇 살에 돌아가신지 몰라! 잊어버렸어.

면담자 : 어, 그러면 그때 죽곡에 사실 때, 형제간들은요, 형제자매는.  
몇 남 몇 녀.

구술자 : 딸만 삼 형제.

면담자 : 딸만 삼 형제! 어머니는 그러면 몇째예요?

구술자 : 음, 가운데.

면담자 : 둘째! 음, 그러면 그때 집안 형편은 어땠어요?

구술자 : 뭘 알간디. 세 살 먹은 애가 뭘 알아.

면담자 : 글면 세 살, 몇 살 때까지 죽곡에 살았어요?

구술자 : 죽곡에서! 몰라! 다섯 살 때 살았는가. 잊어버렸어.

면담자 : 음, 그럼 죽곡에서.

구술자 : 동생을 낳은께, 동생을 거기서 낳으께로 다섯 살 살았는가  
몰라!

면담자 : 어어. 그럼 죽곡에서 언제까지 사셨어요?

구술자 : 언제까지?

면담자 : 어.

구술자 : 금계 다섯 살 때 떠나.

면담자 : 어디로?

구술자 : 저 월경.<sup>203)</sup>

면담자 : 삼기?

구술자 : 삼기 월경.

면담자 : 삼기 월경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다섯 살 때 삼기로 왔어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누구랑 왔어요?

구술자 : 엄마 따라 왔제.

면담자 : 엄마 따라서.

구술자 : 엄마 재가<sup>204)</sup>하여 왔응께 따라 왔지.

면담자 : 아 엄마 재가 왔어요! 음 글면 여기 재가 한 집 그 형제간들  
은요? 가족들은? 기억나세요? 재가 한 집은 어땀어요?

구술자 : 몰라! 아들 삼 형제던가.

면담자 : 음.

구술자 : 아들만 사 형제등가 딸도있는가 봉계 딸도있는가 잊어 부렸  
어 인자.

---

203) 곡성군 삼기면 월경 1리.

204) 재혼.

면담자 : 그랬어요?

구술자 : 다 죽어본게 있어 부렸어.

면담자 : 그 재가하셔가지고 새로운 그 양아버지잖아요? 양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사이에 애기, 동생들은 혹시 낳어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새로 결혼하셔가지고 애기 낳아요?

구술자 : 나?

면담자 : 아니 아니, 엄마가.

구술자 : 낳지.

면담자 : 낳어요? 그럼 밑으로 또 동생 있네?

구술자 : 동생 있지.

면담자 : 몇 명?

구술자 : 한 명.

면담자 : 한 명? 음 지금 살아있어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어디서 살고 계세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지금 어디서 살아요?

구술자 : 월경 2구 행정.<sup>205)</sup>

면담자 : 아! 거기서 살고 계세요? 음, 글면 여기 월경으로 와가지고.

---

205) 곡성군 삼기면 월경 2리.

구술자 : 행정으로 왔어.

면담자 : 저기 양아버지는 뭐하셨어요?

구술자 : 노동자였지.

면담자 : 그냥 노동자? 농사를 안짓고?

구술자 : 일 잘하지.

면담자 : 일도 잘 하시고? 잘 대해주셨어요?

구술자 : 몰라!

면담자 : 기억 안나서? 그 소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텐 다니셨  
어요?

구술자 : 국민학교도 저그 2학년 댕겼어.

면담자 : 어디 국민학교.

구술자 : 근촌.<sup>206)</sup>

면담자 : 근촌?

구술자 : 근촌 그 학교<sup>207)</sup> 2학년짜리, 2학년까지 있거든 졸업이.

면담자 : 아아 그때까지 딱 2학년까지만 다녀요?

구술자 : 어 2학년. 인공<sup>208)</sup> 때라, 2학년 댕기면 졸업을 해.

면담자 : 어 어.

구술자 : .....그때는.

면담자 : 글면 졸업하고 이제 더 공부할려면?

---

206) 곡성군 삼기면 근촌 1리.

207) 당시 삼기면 근촌마을에 세워진 간이학교이다. 지금은 폐교된 곡성군 삼기남초등학교 전신이다.

208) 일제를 인공으로 착각하였다.

구술자 : 졸업타고 더 갈라면은 몰라! 어디로 가는가.

면담자 : 어머니는 2년 다니시고.

구술자 : 2년 댕겼지.

면담자 : 음 2년 다닐 때 무슨 공부 하셨어요, 뭘 배웠어요?

구술자 : 일본글을 몰라?

면담자 : 일본 말 배우시고.

구술자 : 그때는 일본말만 한다.

면담자 : 한국말은 안 가르치고?

구술자 : 한국말은 안 히고 일본말만.

면담자 : 음 그러면.

구술자 : 글도 한국말은 어찌고 배워갖고 한국글을 하지 그리안하면  
일본글만 배운게 아무것도 몰라.

면담자 : 음 글면 그때 일본글은 좀 아시겠네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일본말은 배워서 좀 아시겠네요.

구술자 : 잊어버렸어.

면담자 : 다 잊어버리셨어요? 2년 동안 학교 다닐 때 뭐 혹시 막 기억  
에 남는 일 있어요?

구술자 : 없어요, 몰라!

면담자 : 2년때.

구술자 : 째까 댕기다가 나가 브렸어.

면담자 : 음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 있어요?

구술자 : 네?

면담자 : 그 선생님. 선생님이 대한 흑시 기억나신 거 있어요?

구술자 : 없어.

• 강제동원기에 관하여

면담자 : 선생님도 기억이 없으시고.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2학년 마치고 뭐하셨어요?

구술자 : 시집왔제.

면담자 : 시집왔어요? 저기 그 광주로 일하러 광주로 일하러 가셨다 했잖아요.

구술자 : 광주로 일 가갖고 인자 거 인공 때.<sup>209)</sup>

면담자 : 근께 그 공출 하셨다 했잖아요.

구술자 : 공출<sup>210)</sup>한다고 광주로 보내갖고 광주서 쪼께 살다가 시집와 브렸지.

면담자 : 근데 왜 공출될 때 어뜨케 보내 왜 어머니가 일케 선정이 돼서 갔어요?

광주로 일하러?

구술자 : 부모가 없응게.

면담자 : 부모가 없으니까?

구술자 : 부모가 없응게, 불쌍한 사람들 인자 일하러 보냈나봐. 내 생각에 큰집에가 있어나서.

---

209) 일제 강점기를 인공(6·25 한국전쟁)으로 착각하셨다.

210)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용어이다.



면담자 : 아 큰집에 있어서? 마을에서 보냈어요 아니면 면에서 보냈어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마을에서 보냈어요, 면에서 보냈어요?

구술자 : 아 면에서 보냈겠지.

면담자 : 면에서?

구술자 : 몰라!

면담자 : 그때 가실 때 어디로 모아서 갔어요? 곡성 사람들만 다 모았어요?

구술자 : 몰라! 다 잊어버렸어.

면담자 : 잊어버렸어요? 광주로 갈 때 일케 딱 공출돼갖고 광주로 갈 때, 동네에서 같이 간 사람은?

구술자 : 같이 간 사람 없어요. 저 연계<sup>211)</sup>에서 하나, 나 한나, 저 수산<sup>212)</sup>서 하나, 근디 세 명인가 갔는디 다 도망와브렸어 그 사람들은.

면담자 : 그 사람들은?

구술자 : 나는 만나갖고 못 나오고 살았지 거그서.

면담자 : 그때가 우리 어머니 몇 살 때 그랬어요?

구술자 : 열다섯 살.

면담자 : 열다섯 살 때? 음. 광주까지 갈 때 이게 다 모아서 버스타고

---

211) 추후조사 결과 지금의 곡성군 삼기면 연봉마을(괴소 1리)을 착각하시고 구술하셨다.

212) 곡성군 삼기면 수산리.

갔어요, 아니면 트럭.

구술자 : 몰라!

면담자 : 그냥 걸어갔어요?

구술자 : 버스타고 갔겠지, 어찌.

면담자 : 버스타고? 음. 그 공장 기억나세요? 광주.

구술자 : 지사공장.<sup>213)</sup>

면담자 : 무슨 공장이요?

구술자 : 지사 그 당목 짠 공장.

면담자 : 아 자떡?

구술자 : 당목.

면담자 : 당목?

구술자 : 당목, 그리고 베, 당목 그 베짜는.

면담자 : 베짜고? 어. 그 회사 이름 공장 이름은?

구술자 : 그 지사공장이라고.

면담자 : 지사공장이라고?

구술자 : 몰라! 알기로는 지사공장이라고.

면담자 : 막 공장에 도착했잖아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그때 막 공장에 도착했을 때, 열다섯 살 때 공장 막 갔잖아  
요? 막 갔을 때 그 공장 막 갔을 때 그 공장 어떻게 생겼는지

---

213) 당시 가네보방적 전남공장으로 지금의 전방(주)이다.

기억 안 나세요?

구술자 : 몰라! 다 잊어브렸어.

면담자 : 그러면 공장 막 갔을 때 공장에서 주로 어떤 일 하셨어요 우  
리 어머니는?

구술자 : 첨에는 고 실로 매진거, 실 매진거 하고.

면담자 : 실로 매진거?

구술자 : 어? 실로 매진거 여기다 띠고 어찌게 하고 딱 매달기더만 실  
매지고.

면담자 : 그리고 실 매진거 다음에 그리고 무슨, 그리고 어떻게 일하  
셨어요?

구술자 : 나는 뭘 일도 안 하고, 어리다고, 뭘 일도 안 하고 그런거 신  
바람<sup>214)</sup> 하다가 그냥 해방 되 갖고 나와봤지.

면담자 : 글쎄 그렇게 신바람 할 때 잠은 어디서 잤어요?

구술자 : 게꼬 모여서 자.

면담자 : 공장 안에?

구술자 : 공장 안에서 기숙사가 있음게. 다 모여서 자 공장 큰 애기들  
이 그 선배들이 있음게, 거 선배들이 오지리<sup>215)</sup>서도 왔고, 수  
산서도 왔고, 글게 선배들 따라서 허다가 어찌 몰라! 어찌고  
되았는가 잊어브렸어.

면담자 : 어 글면, 몇 시 부터 일해가지고, 몇 시 정도에나 끝났어요.

---

214) 심부름.

215)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보통? 그 공장 일하시는 분들 보통 아침 몇 시 정도 일해가지고 언제정도 일을 끝나고 쉬었어요?

구술자 : 몰라! 잊어브렸어, 지금이랑 같을거여.

면담자 : 금까 한 해떠서 여덟 시 아홉 시정도 일해가지고 어둡기 전에?

구술자 : 그럴거여.

면담자 : 음 그러면 기숙사에서 밥은 어떻게 드셨어요.

구술자 : 밥 챙겨 묵었지.

면담자 : 배식을 해줬어요? 아니면 해먹었어요?

구술자 : 음?

면담자 : 식당에서 전체로 그 공장에서 밥을 만들어서 줬어요? 아니면 그 따로 따로 모여서 같이 밥 해먹진 않았죠?

구술자 : 안 해묵고 딱 주면 묵었어.

면담자 : 그 음식들은 어땠던가요? 밥은?

구술자 : 몰라!

면담자 : 기억이 안나요?

구술자 : 어찌게 살았는지, 모두 어린게, 열다섯 살인게 몰라! 잊어브렸어.

면담자 : 음. 일본 사람들 있던가요? 그때 공장에.

구술자 : 가자마자 해방 되아브렸어.

면담자 : 가자마자?

구술자 : 가자마자 일 년인가 살고 해방 되어브란게로 미국 사람들이 나오면 무섭다고 해산게 도망 와브렸지.

면담자 : 왜! 미국 사람들이 오면 무섭다고?

구술자 : 몰라! 무섭다고만 미국 사람들은 사람도 크고 코도 크고 무  
섭다고. 밤에, 그때 오지리 큰 애기 하나가 나이 많이 찬 큰  
애기가 하나 있어. 그 큰 애기가 작은아부지가 델러 왔어.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사람 따라서 그냥 와브렸어.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사람 덕분에 왔지!

면담자 : 그냥 저 공장에 있으니까 오지리 작은아부지가 데리러 오니  
까. 저도 데려가주세요 했어요?

구술자 : 응! 따라와브렸지.

면담자 : 저도 그냥 가라고 하던가요? 공장에서?

구술자 : 아니 도망왔지! 금께.

면담자 : 아 도망왔어요?

구술자 : 아. 금께로 안가고 남아서 당목<sup>216)</sup>도 몇 통씩 주더라고 고놈  
도 누가 위에서 추켜드러서<sup>217)</sup> 어린께 누가 유제서<sup>218)</sup> 돈 준  
다고 도라고 해서<sup>219)</sup> 주고는 고런 것도 받도 않고 무선께!<sup>220)</sup>

면담자 : 돈도 안 받고?

---

216) 되게 드린 무명실로 폭이 넓고 바닥을 곱게 짠 피륙의 하나.

217) 나서서.

218) 이웃에서.

219) 물건을 넘겨주라고.

220) 무섭다.

구술자 : 무선께!

면담자 : 돈도 안 받고? 그냥 쥐불고? [웃음]

구술자 : 하.

면담자 : [웃음] 해방된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공장에서 알았어요?

구술자 : 녀<sup>221)</sup>이 한끼로. 녀 따라서 했지.

면담자 : 일하고 있는데?

구술자 : 몰라! 잊어브렸어.

면담자 : 누가 뭐 그 해방됐다고 말허던가요?

구술자 : 잊어브러.

면담자 : 해방된 그 기억도 만나서? 음 그 인제 그 작은아버지 따라서  
왔잖아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작은아버지 따라서 왔잖아요, 오지리 올 때 그럼 여기 삼기  
월경으로 오신거예요?

구술자 : 응?

면담자 : 여기 큰집으로 다시 오신거예요?

구술자 : 엄마집으로 갔지 엄마.

면담자 : 엄마집으로? 음 그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반갑게 잘 맞이해  
주던가요?

구술자 : 물론 반가웠겠지.

---

221) 타인.

면담자 : [웃음] 혹시, 그 옛날에 공장에서 일할 때 막 기억이 막 일본  
사람들이 막 좀 잘못된 사람 때리고 그런 건 없었어요?

구술자 : 없어.

면담자 : 없었어요? 따뜻하게 해줬어요?

구술자 : 세상 좋고 착실합니다.

면담자 : 아,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기억이?

구술자 : 어. 일본 사람 좋고 다 좋아. 다 좋은 사람들이야.

면담자 : 아아. 그.

구술자 : 오지리 큰 애기도 하나 있다가 나이가 과년<sup>222)</sup>찬게 좀 있다가  
작은 아버지가 여운<sup>223)</sup>다구 텔러왔어, 열여덟 살 먹었는데. 근디 그 사람 덕분에 열여섯 살, 먹었는데 나도 그 사람  
덕분에 따라와브렀지.

면담자 : 같이 간.

구술자 : 열다섯 살에 와갖고 열여섯 살에 여기 시집와브렀어. 그때는  
큰애기들도 오래 못 둔다고 여워브리갖고.

면담자 : 그때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삼기 수산 사람이랑 같이 갔다했  
잖아요. 일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안 만났어요?

구술자 : 아 그 사람은 도망가뵈당게.

면담자 : 오자마자 도망가뵈어요?

구술자 : 미리서, 미리서 도망가브러.

---

222) 혼기.

223) 결혼.



면담자 : 저 공장 가서?

구술자 : 저 공장 가기는 같이 갔는디 도망가브러.

면담자 : 음. 삼기 수산 사람 이름 기억나요?

구술자 : 아니, 몰라유.

면담자 : 그러면, 그렇게.

구술자 : 어려서 험 일이라 몰라!

면담자 : 그 저기 공장에 일할 때 이렇게 그 일케 책임자가 한국 사람  
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었을거 아니에요.

구술자 : 일본 사람 있는가?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나오고는 와브렸음  
게 몰라!

면담자 : 그냥 일본 사람들만 기억나고.

구술자 : 그냥 일본 사람들 있었겠지, 잊어브렸어.

면담자 : 음. 글면 공장에서 일할 때 막 곡성 생각.

구술자 : 응?

면담자 : 곡성 생각 많이 났을거 아니에요.

구술자 : 곡성 생각난지도 모르고 빨<sup>224)</sup>로 살았어 빨로.

면담자 : 공장에서?

구술자 : 철이 없음게.

면담자 : 공장에서 옷 같은건 어떻게 해주던가요?

구술자 : 몰라! 옷도 줬는가 어쨌는가.

---

224) 생각 없어.

면담자 : 기억 안 나시고요?

구술자 : 옷 찢겼지라.

면담자 : 글면 거 곡성 올 때 뭐 타고 온 자동차 같은 거 기억나세요?

        뭐 타고 왔어요, 작은아부지랑?

구술자 : 금계, 오지리, 오지리 저 작은아부지라고 글마, 그사람이 조카딸 여운다고 텔러왔어.

면담자 : 음.

구술자 : 글서 그 사람 차타고 따라와뵈당게.

면담자 : 아 그 작은아부지가 차를 가져왔어요?

구술자 : 밤에 야, 밤에 차 타고 따라와브렸어, 아무것도 안갖고. 금계 당목도 안 도망가고 있다고 당목도 많이 주더마. 근디! 그 옆에 사람이 아줌마가 돈으로 준다고 치워더래. 근디 그런 것도 받도 안 허고 그냥 냅, 따라와브렸어.

면담자 : 그럼 그 작은아부지 차 타고 삼기로 오고 그 작은아부지는 오지리로 가고.

구술자 : 삼기로 데려다주고 나는 오지리로.

면담자 : 아니 그니까 어머니는 삼기로 오고, 그다음에 그 작은아부지는.

구술자 : 오지리로.

면담자 : 오지리로 가고. 그 이후에 작은아부지나 혹시 그 오지리 처녀 만난 기억은?

구술자 : 못 만나.

면담자 :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구술자 : 못 만나 성도 몰라!

면담자 : 성도 몰라요? 아. 그럼 인제 곡성 막 와가지고, 열여섯 살?

구술자 : 열여섯때 시집와브렸어.

면담자 : 오자마자?

구술자 : 하, 설 세고 사월에.

면담자 : 음. 저기 곡성 왔을때는 그럼 겨울이었어요?

구술자 : 어?

면담자 : 공장에서 나올때가 언제정도 나왔어요, 가을에 나왔어요, 추  
수할 때 나왔어요, 눈 올때 나왔어요, 곡성 도착할때가.

구술자 : 몰라! 잊어브렸어.

면담자 : 음. 그러면 막 와가지고 글면 열여섯에 결혼했잖아요. 결혼  
했을 때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구술자 : 어디를.

면담자 : 결혼. 신랑을, 중매를 누가 했어요?

구술자 : 중매 한 사람이 있지.

면담자 : 동네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셨어요?

구술자 : 몰라! 이제.

면담자 : [웃음] 글면 결혼해가지고 어디서 사셨어요.

구술자 : 여기서 살았지라.

면담자 : 여기 농소<sup>225)</sup>에서? 음 글면 그 신랑은, 결혼한 신랑은 뭐하셨

---

225) 곡성군 삼기면 농소리.

어요? 결혼하셔서?

구술자 : 목수.

면담자 : 목수하고, 인제 자녀분들은 어떻게 낳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몇 남 몇 녀.

구술자 : 오 남매.

면담자 : 오 남매?

구술자 : 예.

면담자 : 아들 넷.

구술자 : 아들 넷, 딸 하나.

면담자 : 어 그러면 큰딸? 큰아들?

구술자 : 막내.

면담자 : 딸이 막내?

구술자 : 예.

면담자 : 아들 넷에 딸이 막내?

구술자 : 아들이 넷째까지 있고 딸이고.

• 한국전쟁에 관하여

면담자 : 음. 그러면 그리고 막 결혼해서 사시는데 이제 육이오가 났  
      짱아요.

구술자 : 몰라! 잊어버렸어.

면담자 : 육이오도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나셔. 음. 육이오에 대해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구술자 : 육이오는 말도 못 해 무서워갖고. 무서워갖고 육이오는 말도  
      못해.

면담자 : 막 그 육이오 났다는걸 어떻게 아셨어요.

구술자 : 저녁이 돌아오면 무서워서.

면담자 : 음.

구술자 : 벌벌 떨고.

면담자 : 음 피난 갈 생각은 안하셨어요?

구술자 : 식량 같은 거 어따 감추느라고 정신없고.

면담자 : 식량을 왜 감춰요?

구술자 : 돌라간께<sup>226)</sup>

면담자 : 음 누가요?

구술자 : 반란군<sup>227)</sup>들이.

면담자 : 반란군들이? 마을에서 많이.

구술자 : 마을도 와서 막 돌라가. 밥 그릇 같은 것을 돌라가고. 저 건

---

226) 훔쳐가다.

227) 빨치산.

너 살 때 밥그릇도 다 돌라가블고, 쌀도 찌다논게<sup>228)</sup> 돌라가  
블고.

여기와서는 그런거 안 겪어봤어. 저 건네살 때 그랬고.

면담자 : 건너 어디요?

구술자 : 저 건너 마을이 있었어. 쪼까느니,<sup>229)</sup> 산 밑에라.

면담자 : 음 학교 밑에?

구술자 : 저 건너에.

면담자 : 음, 그때 왜 피난 갈 생각은 안했어요?

구술자 : 피란? 피란을 어디로 가.

면담자 : 음. 그 반란군들 봤어요?

구술자 : 반란군을 여 와서 쌀 한번 돌라가더마 쌀.

면담자 : 음 마을로는 반란군들이나 북한군들은 마을로 안왔고요?

구술자 : 그 사람들은 안보고, 반란군이 한번 와갖고 우리 큰아들,  
○○을 막 나서, 와갖고 애기가 울어짖게 이제 막 난 것이  
울어짖 것을 내가 인자 요러고 안고 있던게로, “아가! 아가!  
울지마라! 괜찮아! 아가! 울지마라!” 글더라고.

면담자 : 반란군이?

구술자 : 반란군들. 근디 그때 쌀 쪼까 쪼다놔더니 초가집이라, 쪼까  
쪼다놔더니 강 고놈 갖고 가블더라고.

면담자 : 음.

---

228) 밥아 짚다.

229) 쪼그마한.

구술자 : 그리고는 요리에 와브렸어.

면담자 : 음 이쪽으로 와브렸어요?

구술자 : 와갓고는 그런 꼴은 안 당하고 살았어.

면담자 : 그때 그 반란군들 총 갖고 있던가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총, 총. 반란군들.

구술자 : 총은 안 보고. 총은 보도 안 허고 반란군들은 무서워서 쳐다 볼 수도 없어. 애기가 울어싼게 “아가! 아가! 우지마라! 우지 마라!” 글지. 인제 나중에 본게 방에 쪼다가 나무쪽에다 불 떤데다 나뒀더니 고놈 가져가봤더랑게. 그리고는 와갓고는 그런 꼴은 안 보고 살았어.

면담자 : 근데 그 반란군 있을 때 그 반란군한테 마을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있어요?

구술자 : 마을 사람 죽어?

면담자 : 예. 반란군들이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적 있어요?

구술자 : 안 죽었어.

면담자 : 그런건 없고?

구술자 : 한나. 그 여수 반란사건.

면담자 : 네.

구술자 : 그 도망 와 갖고 있는 사람 하나만 죽었지.

면담자 : 아 저 그, 여수.

구술자 : 반란사건에, 거가 있었는갑더만 그랴꼬.

면담자 : 군대가? 부대에가?



구술자 : 몰라!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인가. 그 사람 하나만 데꼬나와갖  
고 저그 마을 가운데서 죽여브렀더라고.

면담자 : 반란군들이?

구술자 : 아니.

면담자 : 경찰?

구술자 : 아니, 반란군들이 안죽이고 경찰들이 죽여브렀지. 반란군.

면담자 : 아 반란군이라고?

구술자 : 어 총 쏘냐 안쏘냐 금께, 쏘다고 금께. 죽여브렀는갑서.

면담자 : 음!

구술자 : 그사람 하나만 죽였어.

면담자 : 사람들 본데서?

구술자 : 어?

면담자 : 사람들 본데서 죽여브렀어요?

구술자 : 그사람 하나만 죽어..

면담자 : 음. 그래도 그 반란군들 말고 혹시 우리 군인들이나 미군들  
보고 곡성에서 본 적 있어요? 마을에서?

구술자 : 몰라! 아무것도 몰라!

면담자 : 음.

구술자 : 병력<sup>230)</sup>이 흐린게 다 잊어블고 몰라!

면담자 : 음, 육이오 끝났다는건 어떻게 알았어요?

---

230) 기억.

구술자 : 예?

면담자 : 전쟁이 끝났다는건 어떻게 아셨어요.

구술자 : 몰라!

면담자 : 몰라! 그냥 살다보니까?

구술자 : 몰라! 나이가 들어갖고 다 잊어브렀구마.

면담자 : 음. 그 어머니. 혹시 그 1965년에 우리 그 김종필 총리가 박  
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요렇게 그 보상받은 협정 맺은거 아  
세요?

구술자 : 그런 것도 잊어브러서 몰라요.

면담자 : 몰라요? 음 어머니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 공출하셔가지고  
일을 하셨잖아요. 글면 그 보상을 받을 생각은 안하셨어요?

구술자 : 보상 받을 생각도 안하고 오지리 사람 작은아부지가 조카딸  
데리러 온 바람에 따라와브렀다네.

면담자 : 그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 사람들한테.

구술자 : 안 받아요.

면담자 : 왜요?

구술자 : 뭘 받아.

면담자 : 그 일한 품삯이랑 받아야지.

구술자 : 아이고! 그러면은 잡아가라고? 무섭게! 말도 못해 도망와  
갖고.

면담자 : 아니, 지금, 지금, 지금. 그 일본 사람들한테 그때 일 하고 그  
품삯 못 받았던 분들이.

구술자 : 몰라! 잊어브렀어.

면담자 : 돈 주라고 요구를 현재, 그 일본 사람들에게 해놨거든요 정부에!

구술자 : 몰라! 아무것도.

면담자 : 어머니는 지금도 일 한 품삯 같은 거 받을 생각은 없어요?

구술자 : 몰라! 안 받아!

면담자 : 음.

구술자 : 도망와본 사람이 어디서 받겠어요?

면담자 : 아. 생각, 지금 생각해보시면 그때 일 한 게 뭐 억울하거나  
그런 생각 안드세요?

구술자 : 찌까난게 몰라! 나이 열여섯 살 먹은게 뭘 알아.

면담자 : 지금, 지금. 우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 보면. 뭐.

구술자 : 다 잊어버렸어.

면담자 : 속상하거나 그런거 없구요?

구술자 : 속상한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살았어.

면담자 : 그러면.

구술자 : 옥과댁 성 밑에 있어갖고 옥과댁 성이 잘해줘서 그 사람 덕  
분에 살았지.

면담자 : 옥과댁 성?

구술자 : 오지리 사람 남편이 일본을 가셨는디.

면담자 : 네.

구술자 : 그 공출을 갖는갑더만.

면담자 : 네.

구술자 : 그래갖고 남편이 오셔갖고 그 사람이 마누라 델러온 덕분에,  
마누라 데려갔는디 또 인자 마을 사람이 큰 애기 하나가 나

랑 같이 있었거든. 그래 큰 애기 시집보낸다고 작은아부지가  
텔레왔어. 그 덕분에 따라와브렀단게.

면담자 : 음!

구술자 : 근게 돈이고 뭐이고 아무것도 안받고 따라와브렀어. 밤에.  
도주 한 셈이지.

면담자 : 거기서 일할 때 막 저기 친하게 지낸 사람들 기억 같은건 없  
구요?

구술자 : 다 잘해줘요.

면담자 : 어떻게 잘해줘요?

구술자 : 잘해줘. 같이 일한사람들도 잘해주고, 쫓까난게. 열여섯 살  
열다섯 살 먹었쑈께. 열다섯 살 먹어서 와갖고 열여섯 살에  
여기 시집와봤단게.

면담자 : 음!

구술자 : 열다섯 살 먹은게 뭘 알아 시방 우리 손녀보다도 더 어릴거  
여. 근게, 그때 사람들은 더 어리석잖아! 지금 애들보다 아무  
것도 몰라!

면담자 : 음. 글른 일 년동안 지내실 때 친하게 지낸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친한 언니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구술자 : 친한 언니들?

면담자 : 어. 공장에서

구술자 : 몰라!

• 장년과 노년기에 관하여

면담자 : 다 잊어버렸어? 음. 그러면 어머니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가장 그 이케 막 내가 가장 좋았다.

구술자 : 좋았다, 머시 좋아.

면담자 : 좋았던 기억은 어떤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구술자 :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면담자 : 아니 지금까지 사시면서. 손주 태어난거? 아들 결혼한 거?

구술자 : 생각 안나!

면담자 : 안 나세요? 음. 그럼 어머니. 해주하고 우리 손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구술자 : 뭐 이야기를 해,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

면담자 : 잘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구술자 : 뭘 할 이야기가 있어야지. 잘 되란 말이나 하지 뭐. 착 하니 잘되란 말이나 하지 뭐 할 말은 없어.

면담자 : 글면 평상시에 손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라 그래요?

구술자 : 뭐라고 이야기 해 지들도 잘 해븐께! 할 말이 없어.

면담자 : 잘 해준가요?

구술자 : 잘 알아서 해준께!

면담자 : 어. 지금 같이 사시는 아드님은 몇째예요?

구술자 : 셋째.

면담자 : 셋째? 아드님하고 우리 며느님이 잘해주신가요?

구술자 : 예! 잘해줘.

면담자 : 효자?

구술자 : 응!

면담자 : 아들이 효자? 효자 같아요?

구술자 : 아들? 말 못하더라도 잘해줘.

면담자 : 음. 아드님이 말을 못하셔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머느님은?

구술자 : 다 말 못해.

면담자 : 다 말 못하시고? 그냥 언어 장애가 있으시구나?

구술자 : 예!

면담자 : 수화 할 줄 알아요?

구술자 : 수화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살아!

면담자 : 음. 그러면 아드님 밑에 손주는?

구술자 : 딸만 다섯이여.

면담자 : 딸만 다섯?

구술자 : 예!

면담자 : 오! 지금 여기 셋째 아드님 밑으로 딸 다섯?

구술자 : 예! 글도 딸들이라도 다 건강한게 복으로 알아야지.

면담자 : 그럼 지금 아드님이랑 손주들이랑 막 사는거 이렇게 행복하  
세요?

구술자 : 예!

면담자 :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막 몸도 불편하시고 그럴건데,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희조

1930년생,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출생



**홍희조 “구술 생애사”  
(2019년)**

## 홍희조 구술

- ▣ **면담주제**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6·25 한국전쟁.
- ▣ **구술자1** : 홍희조(남, 90세), 1930년생,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출생.
- ▣ **구술자2** : 임이순(여, 82세), 1938년생, 곡성군 검면 남양리 출생.
- ▣ **면담자** : 조준원.
- ▣ **촬영자** : 이진호.
- ▣ **기록방법** : 캠코더,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한 영상촬영 및 음성녹취.
- ▣ **면담시간** : 2019년 10월 2일(10시 30분~12시 30분).
- ▣ **면담장소** :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홍희조·임이순 자택.

•가정에 관하여

면담자 : 자 아버님 이렇게 편하게 보시구요! 편하게, 편하게 보세요!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2 : 함자! 함자!

면담자 : 이름.

구술자 2 : 한자로, 국문으로 말고.

면담자 : 한자 말고, 이름, 이름, 이름이 아! 아버님! 앉으세요!

구술자 1 : 가만있어봐!

면담자 : 아니! 아니! 괜찮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1 : 아니! 한자를 내가.

면담자 : 한자 말고. 이름! 이름!

구술자 1 : 이름을 그런께 한자로.

면담자 : 아니! 한자 말고 그냥 이름을 여쭙본거여요!

구술자 1 : 흥 회조.

면담자 : 흥 회 조.

구술자 1 : 예.

면담자 : 조국 할 때 조.

구술자 1 : 예.

면담자 : 흥 회 조 아버님.

구술자 1 : 예.

면담자 : 그리고 지금 연세는요?

구술자 2 : 연세.

면담자 : 나이는요?

구술자 1 : 나이? 열여섯.

면담자 : 지금. 지금.

구술자 2 : 지금 나이, 지금 나이, 시방 지금 나이. 지금 나이.

면담자 : 지금 몇 살이에요?

구술자 2 : 시방 몇 살이냐고!

구술자 1 : 지금? 구십.

면담자 : 아 지금 구십. 아버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술자 1 : 어디서 근무했냐고?

구술자 2 : 어디서 태어났냐고 낳을 때. 낳을 때 어디서 낳냐고?

구술자 1 : 아! 어디서 낳냐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곡성군 오탁면 묘천리.<sup>231)</sup>

면담자 : 오탁면 묘천리, 묘천리에서.

구술자 1 : 번지는 잘 몰라.

면담자 : 번지는 잘 모르시고.

구술자 1 : 인자 어리니까 넘 어려서 나와본께 몰라.

구술자 2 : 아버지가 얼마 돌아가셔블고, 어머니하고 같이 삼서 형제  
간이 사 형젠디.

면담자 : 형제간이 사 형제.

구술자 1 : 열일곱 살 묵어서 아버지 돌아가셔블고는 인제 몰라.

---

231) 지금의 곡성을 묘천리이다.

면담자 : 그 형제간이 사 형제시라구요?

구술자 2 : 사 형제. 딸 하나, 아들 셋.

면담자 : 사 남매에 몇째? 몇 번째였어요?

구술자 2 : 큰아들.

구술자 1 : 큰아들.

면담자 : 글면 사 남매에서 만이.

구술자 2 : 예. 예.

면담자 : 아 그러셨네요.

구술자 1 : 누이동생.

면담자 : 누이동생 있고, 그러면 집안 형편은 어떠셨어요?

구술자 2 : 아이구배! 말 할 수도 없지! 인자 아버지가 돌아가셔블고.

어머니 혼자 살았싱께! 어머니가 뒷좀 해갖고 온께로, 시  
집온께, 나 스물한 살 묵어서 죽동에 시집왔네요! 여그 왔  
네요.

면담자 : 어머니도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촬영해요! 자 편안하게! 네!

두 분이 같이 말씀해주세요. 조금 붙으세요 네 조금만 더 붙  
으세요.

구술자 2 : 나는 발을 여 쪼까 해야되네요.

면담자 : 예. 편안하게 계세요 편안하게 계세요.

구술자 2 : 깜빡 거스간게.

면담자 :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시집오시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셨  
다고요.

구술자 2 : 예. 스물한 살 묵어서 요러고 왔어요.

면담자 : 어머니 함자는 어머니 이름은?

구술자 2 : 이름은 임 이순.

면담자 : 임.

구술자 2 : 이 순.

면담자 : 순신할 때 순. 임이순.

구술자 2 : 예.

면담자 : 순. 지금 연세, 나이는?

구술자 2 : 팔십둘.

면담자 : 팔십이 세. 친정은 어디세요?

구술자 2 : 겸면.<sup>232)</sup>

면담자 : 겸면 어디?

구술자 2 : 남양리.<sup>233)</sup>

면담자 : 아 겸면 남양리! 어! 그리고 친정은 몇 남 몇 녀?

구술자 2 : 시남, 친정은 오 남매.

면담자 : 오 남매에 몇째예요?

구술자 2 : 내가 넷째.

면담자 : 아 넷째. 그리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 혹시 아버님 함자는?

구술자 2 : 임 시숙. 김, 술.

면담자 : 임, 귀예요 기예요?

구술자 2 : 기술이.

---

232) 곡성군 겸면.

233) 곡성군 겸면 남양리.



면담자 : 기술?

구술자 2 : 예. 임 기술이.

면담자 : 기술할 때 기술? 임 기술이었지요. 그담에 몇 살 때 시집오셨  
다고요? 언제 결혼하셨다고?

구술자 2 : 스물한 살.

• 강제동원기에 관하여

면담자 : 스물한 살 때. 그러면 제가 인제 두 분께. 질문 할 때, 그냥  
편하게 아버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어머님께서 말씀해주셔  
도 됩니다. 어, 아버님이 인제 징용되셨잖아요! 징용. 끌려가  
셨잖아요! 일하러!

구술자 2 : 징용갔다고! 징용갔다고! 징용 당신! 징용갔냐고! 징용갔  
다고 안그랬어!

구술자 1 : 이이!

면담자 : 몇 살때 가셨어요?

구술자 1 : 열여섯!

면담자 : 열여섯 살때 그때 가실때에 뭐! 이케 무슨 영장 같은게! 나와  
서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잡아서갔어요?

구술자 2 : 어찌고 갔냐고?

구술자 1 : 어찌고?

구술자 2 : 예. 뭇이 나와서 갔냐? 그냥!

구술자 1 : 영장이 나와서!

면담자 : 아 영장이 나와서!



구술자 1 : 군에서, 곡성군에서 그때게는 인자, 저 자네들은 모른다.  
왜냐하면 무조건 동네로 나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동네  
로 나오면, 그냥 약자들! 잉!

구술자 2 : 약자들! 약자들!

면담자 : 네. 약한 사람.

구술자 1 : 근게 인자 지금도 세상이 글지만! 그때는 뭐여, 우리집에  
먼 까딱도 안해! 그런 왜정시대! 고!

면담자 : 농사가 많으면 안 잡아갔습니다.

구술자 2 : 없는 사람들!

구술자 1 : 근게! 좀! 가난하게 산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들도 그냥 중  
국으로 보내블고 말이여! 그랬단 말이여!

면담자 : 그래서 아버님이.

구술자 1 : 군대들이 아까 여수항에 거그서 근무할때도 뭐여! 열세  
살! 열세 살! 묵어서 가서 할때도! 이 곡성에서 한 삼십 명  
갔는다! 중공군<sup>234)</sup>들이 와서 보급 요로코 매다가 또 이 짐  
을 실으면 큰 배로 갔다 싣고 그레갓고 인자, 일본으로 가  
고 말이여. 아주 지그들이 석탄 같은 것도 또 가서 지름 빼  
갓고, 뺨놈을 막 한국으로 오고 근디, 차도 갓고, 가고 쌀도  
갓고 가고 그렇게.

면담자 :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셨다고요.

---

234) 중국인을 중공군으로 표현하셨다.

구술자 1 : 근게 인자, 아까 북한에 있을 때도, 솔직허니 우리 아들들  
식량이 없은게, 뭐여! 중국 중국에서 콩 메주콩 사다가 딱  
쌀 한 주먹이나 영 그눔으로 밥 묵고 살았어!

면담자 : 북한으로 징용 가셨을 때.

구술자 1 : 고눔을 가마솥에다 푹푹 삶아갖고 끼니마다 고눔 묵었어.

면담자 : 그러니까 아버님! 그렇게 인제 통지가 나와서 어디서? 모여  
서 갔을 거! 아닌가요?

구술자 2 : 어디서 모여서 갔냐고? 통지가 와갖고 어디서 모여서 갔  
냐고?

구술자 1 : 어 여. 곡성군에서.

면담자 : 어디서 모였어요?

구술자 1 : 곡성 현재 군.

면담자 : 군청?

구술자 1 : 군청.

면담자 : 군청 마당서? 모여서? 몇 명이나 왔든가요?

구술자 1 : 겁나게!<sup>235)</sup> 몰라 숫자는! 겁나! 열차로 와 평양까지, 겁나게  
갔어, 말도 못해!

면담자 : 아! 평양까지?

구술자 1 : 열차로 한 칸, 한 칸, 아주 거 몰라! 그래갖고 뭐! 거기 가서  
함바집<sup>236)</sup>을 지어갖고 거시기 했는디! 뭐여!

---

235) 많이.

236) 일제강점기에 토목 공사장이나 광산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숙식을 하도록 임시로 지은 건물을 ‘함바’라고 불렀다(이재운, 『우리말 100가지』, 위즈덤하우스, 2008년).

면담자 : 같은 동네에서는 몇 명이나 갔어요?

구술자 1 : 우리 동네에서는 양이식이!

면담자 : 양.

구술자 1 : 양이식이.

면담자 : 이.

구술자 1 : 식.

면담자 : 식. 또?

구술자 1 : 나.

면담자 : 아! 두 분.

구술자 1 : 응!

면담자 : 양 이식! 그담에 아버님? 양이식씨는 그때 몇 살이나 됐을까요?

구술자 1 : 우리보다 훨씬 더묵었지!

면담자 : 아! 나이를 더 드셨고?

구술자 1 : 아까 유환복이나!

면담자 : 유환복 씨!

구술자 1 : 유환복이나! 양이식이나!

면담자 : 비슷한 또래.

구술자 1 : 양이식이가 좀 더묵었고!

면담자 : 아! 그러며 결혼하셨겠네요. 양이식 씨 결혼해서 끌려갔겠네요! 유환복 씨는 결혼해서 끌려갔는데!

구술자 2 : 결혼해갖고 군대를 갔냐 그말이여! 당신 허고 같이 간사람 결혼을 해갖고 갔냐 그말이여!

구술자 1: 양이식이는 같이 갔지.

구술자 2: 결혼을 했냐! 그말이여! 결혼을 해갖고 갔냐!?

구술자 1: 응!?

구술자 2: 결혼을 해갖고 갔냐!

구술자 1: 제대를?

구술자 2: 아이고!

면담자: 장가!

구술자 2: 결혼식을 하고 갔냐 그말이야! 마누애가 있었냐!

구술자 1: 아! 양이식 씨도 결혼을 안했어.

면담자: 아! 안했어요.

구술자 1: 근께! 몇 살 차이 안냐!

면담자: 군청에 모였을 때 누가 나왔는가요? 군청 이렇게 관리들이?  
직원들이?

구술자 2: 군청 관리들이 있냐 그말이여! 거그 보낼 때 군청 관리  
들이.

구술자 1: 일본놈들이! 했는디!

면담자: 아! 일본, 일본 사람들이?

구술자 1: 엄청...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여.

면담자: 모아서? 그래서.

구술자 1: 그 사람들.

면담자: 걸어서 곡성역까지 가셨겠네요?

구술자 2: 곡성역까장 갈 때

구술자 1: 걸어갔지

면담자 : 걸어서?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셨어요?

구술자 1 : 기차에, 또 열차가 덩겼잖어.

면담자 : 석탄차.

구술자 1 : 석탄차.

면담자 : 석탄차 짐칸에.

구술자 1 : 열차를 뭐 석탄... 평양까지 며칠 걸렸어.

면담자 : 갈 때 식사는요?

구술자 1 : 가는 막.

면담자 : 평양까지.

구술자 2 : 갈 때 먹을 거, 먹을거.

면담자 : 평양 열차 안에서 밥은?

구술자 2 : 밥, 열차 안에 갈 때 먹을 것은?

구술자 1 : 주먹밥!

면담자 : 주먹밥을 쫓았어요? 끼니때가 되면?

구술자 1 : 아! 그때게 뭐 내 형편없는데, 거그서 주먹밥도 다행인줄  
알지!

면담자 : 그러면 아버님 평양까지 갈 때에 중간에 멈추잖아요. 평양까  
지 갈 때, 중간에 한번, 몇 번 멈추잖아요.

구술자 1 : 그것은 잘 몰라 그것은.

면담자 : 다른 역에서 막 타는 사람들 봤어요? 끌려온 사람들!

구술자 2 : 탄 역에서도 끌려온 사람들 봤냐고?

구술자 1 : 그것은 모르지. 나이가 어리고 잉 거시기 한게 모르는데!  
여튼, 여러 칸 거! 여그 지금 달고맹긴거 맹키로 열차를 달

아 갖고 갔어.

면담자 : 갈 때.

구술자 1 : 인제, 그래갖고 거그서 가갖고 인자 딱 그 일개 분대나, 예를 들어서 일개 군대나 소대로 인자, 딱 딱 반, 반을 땡글어서 잉!

면담자 : 아! 소대로 반을 만들어서.

구술자 1 : 막사에 한 삼십 명이면, 삼십 명. 요리고 딱, 막 강께 한 반을 재냈더만 한 반을! 그래갖고 인자 뭐! 일반 일 소대, 이 소대, 삼 소대, 요로코 밥 많이 지어놓고 인자, 밥을 해서 인자 묵고.

면담자 : 그때 감시하는 사람들은요?

구술자 1 : 응.

구술자 2 : 감시 현 사람들.

면담자 : 감시! 감시!

구술자 2 : 감독 현 사람들!

면담자 : 관리 감독, 감독.

구술자 1 : 관리 현 사람들이, 그것은 황해도 사람인디! 정 머시기, 정 간디. 그사람들이 거시기 지휘를 허지 통술을 했어. 딱 딱 분배를!

면담자 : 그래가지고 뭐 때리거나 그런거 없어요?

구술자 1 : 아! 그런 거는 없어!

면담자 : 아! 때리지는 않고요?

구술자 1 : 하아! 그런 일은 없고, 인자 일을 시간되면 일 허고. 인자.

면담자 : 어떤 일 하셨어요?

구술자 1 : 글고 와서 인자, 점심 묵으로 오고, 점심 묵고, 인자 또 가고, 저녁에 와서 자고.

구술자 2 : 뭘 일 했냐고! 뭘 일을 했냐고! 일! 일!

구술자 1 : 그거 막, 거, 거시기도, 뭐 이어! 철도 맨드는 일. 거와서.<sup>237)</sup>

면담자 : 철도 만드는 곳?

구술자 1 : 거가 철이 안 났더만! 진남포는 났는다. 거기 가서 일도 허고, 그리 안 하면 쇠 놓고 와서 거시기 한다, 가서 지원 허고.

면담자 : 쇠? 뭘 지원을 했다고요?

구술자 1 : 아! 거! 폐품같은 것을 인자 갖다가.

면담자 : 폐품 치우는 거? 그니까 평양에서?

구술자 1 : 일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일본놈들이 하고! 한국 사람들은 노동일 시켰다. 이거제!

면담자 : 그 거기가 평양이었어요? 평양?

구술자 1 : 평양남도!

면담자 : 평안남도.<sup>238)</sup>

구술자 1 : 강서구!

면담자 : 강서군.<sup>239)</sup>

---

237) 현장에 와서.

238) 1896년 행정개편으로 평양부에서 평안남도가 되었다. 대동강유역으로 함경남도, 황해도, 평안북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는 평성시이다.

239) 고종 32년(1895년)에 현을 군으로 개칭하고 군수를 두었으며, 대동군, 용강군, 평원군 등과 접하고 있다. 1978년과 1979년 행정개편으로 용강군과 함께 남포시에 통합되어 남포직할시가 되었다.



구술자 1: 군.

면담자: 평안남도 강할 때 강.

구술자 1: 강 서.

면담자: 서국민학교 할 때 서, 아! 평안남도 강서군에 가서.

구술자 1: 진남포<sup>240</sup>도 있고.

면담자: 네. 거기 진남포도 있구요.

구술자 1: 거그서 일하다가, 내가 진남포도 가고, 고리 갔다, 저리  
갔다.

면담자: 진남포로 일하러.

구술자 1: 진남포는 무지하게 커!

면담자: 포구가, 항구가.

구술자 1: 공장이, 말도 못하게 크게, 일본 놈들이 전부. 금께! 뭐! 내  
가 생각했을 때 일본 놈들이 북한에는 그 농사가 없고 쇠.  
잉!

면담자: 네.

구술자 1: 석탄, 요것이 있음게! 그놈을 파다가, 금께! 거그는 그 공  
장 우리가 내가 생각했을 때, 공장 지대로, 남쪽으로는 농  
업지대 그렇고... 맹글았어.<sup>241</sup>

면담자: 음 음. 진남포에서는 무슨 일 했어요?

---

240) 현재의 북한 남포직할시이다. 1978년과 1979년 행정개편으로 강서군과 용강군 그리고 남포시를 통  
합하여 남포직할시가 되었다. 평양특별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1945  
년부터 1951년까지 진남포로 불리어졌다.

241) 만들었다.

구술자 1 : 아! 내내 했지! 뭐!

면담자 : 똑같이 그냥 잡일?

구술자 1 : 이이! 거스그 하면, 인자.

면담자 :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나 나간 거 같아요? 일하러?

구술자 1 : 아침에 일곱 시 밥 먹으면 가지.

면담자 :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휴식시간은?

구술자 1 : 뭐여! 거시기 하고 저녁 되면. 인자 다섯 시! 되면.

면담자 : 끝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뭐하셨어요?

구술자 1 : 아! 밥 먹고! 자지 글면.

면담자 : 하하하! 뭐! 따로 어디를 놀러간다던지 그런 거 없었어요?

구술자 1 :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그 사람들.

면담자 : 감시해요?

구술자 1 : 어유! 어디가 놀러갈데 어디가 있어! 인제 막 대동아 전장

242)에 즈그들이 죽네 사네 험디!

면담자 : 음.

구술자 1 : 어디 놀러가 어디가 있어! 지금이나 이려고 우리나라에서

근께, 우리나라 8·15 해방 되 갖고 세계적으로 발달됐다.

나는 이려고 생각해!

면담자 : 그러면 그때, 그 일본, 일한 사람들도 봤을거 아닌가요! 일

---

242) 대동아 전쟁(태평양 전쟁의 일본식 명칭이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슬로건으로 대동아공영권을 태평양전쟁의 궁극적 목적으로 선전하였다. 이 전쟁을 서양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동아시아 보위를 위한 자위전쟁,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동아시아 민족을 이탈시키려는 해방전쟁,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다음백과, <https://100.daum.net>).

본, 일한 사람들!

구술자 2: 일본, 일한 사람들!

구술자 1: 몰라!

면담자: 아! 몰라요.

구술자 1: 그런 것은 몰라! 일본 사람들, 일한 사람들.

면담자: 그러면 일본 관리들은 봤어요?

구술자 1: 중요한 일들은 전부. 가들이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동일 시키고.

면담자: 노동일 하고, 일본 사람들 일본 관리들 마주칠 일도 없었겠네요. 만나고 교류하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

구술자 2: 일본 사람들 만났냐고. 일협서<sup>243)</sup>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구술자 1: 하아.<sup>244)</sup> 하지! 서로 보기는 본디! 지그들은 공장 안에서 허고!

면담자: 그 일본 사람들하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구술자 1: 안 해 얘기를, 얘기를.

면담자: 얘기도 안 하고?

구술자 1: 아이! 공장에서 일헌디, 일할 때 말을 뭐! 거 노동일 하고 뭐여! 한가롭게 일할 사람. 뭐! 얘기할 새가 어디 있어!

구술자 2: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열여섯 살 묵었

---

243) 일하면서.

244) 그렇다.

응게.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어찌! 일본 사람들하고 어찌  
상대 해볼 거시기도 아니지!

구술자 1 : 나이가 어리니까! ...곡성에 여기 김개식이라는 사람은!

면담자 : 김 누구요?

구술자 1 : 김개식이 김개식!

면담자 : 김개식?

구술자 1 : 이잉! 그 사람은 나보다 한 살 덜 묵었는데! 거그는 곡성  
응, 곡성 거시기도 각, 면별로 갔거든! 그리고 나는 오곡면  
으로 갔거든 근데! 인제 나이가 어린 사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여!

면담자 : 아! 그러면 김개식 씨는 열네 살이네요!

구술자 1 : 뭇을 했냐면 그 뭐여 이 양이식이라는 사람이 말이어, 야  
물았서<sup>245)</sup>

면담자 : 같은 동네여서 가신 분!

구술자 1 : 나 한동네서 둘이 간는다, 야물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이  
나는 뭇을 시켰냐면 연장, 도구들 감시를 했어. 연장 창고  
를, 창고지기!

면담자 : 아! 연장 같은 거 창고를 감시하는 지키는 역할!

구술자 1 : 그 물건 같은 거 쟁여놓고, 열쇠를 맡고, 그 내주고 들여주  
고 그랬어.

---

245) 명석하다.

면담자 : 그 진남포에서 강서군에서.

구술자 1 : 네.

면담자 : 그러면! 폐품 치우고 그런 일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구술자 2 : 폐품도 치우고 그런 일도 했다고 안 했냐고?

구술자 1 : 어디?

구술자 2 : 뭣을 치우고 그랬담서?

구술자 1 : 안 치워! 뭐이 쇠도 놓아갖고 안쪽으로 갖다 쟁이고<sup>246)</sup>

면담자 : 일본 사람들은?

구술자 1 : 못 가지고 갔어 그놈들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철도가 없  
은게! 그래갖고 철도를 내갖고 가지갈라고 하다가 못 가  
지 갔어!

면담자 :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하신 데가 철도 놓는 일을 하셨네요.

구술자 1 : 어디냐면! 저 작은 황해도고! 요 작은 뭐여 강서군 평안<sup>247)</sup>  
평안인디! 거기 두만강이여! 두만강<sup>248)</sup>이여갑고! 두만강,  
두만강 사이에서 쇠를 파다가 놓고 그때는 거 뭐여! 백두  
산에서 그 전기 발전을 했어! 거 세계적으로 최고 발전을  
한다고, 내말은 말은 중국도 다 쓰고 우리나라도 썼다 이  
이거여! 그래갖고 일본까지 그 발전을 가지갈라고 막! 했

---

246) 썩다.

247) 평안남도.

248) 대동강을 두만강으로 잘못 표현하셨다. 대동강은 평안남도 낭림산맥의 서쪽에서 발원하여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황해북도 등을 관류하여 남포직할시(진남포)와 황해남도 은율군 경계에서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길이 441.5km의 강이다.

다고 그래썬고 그러더만!

면담자 : 그때 당시에.

구술자 1 : 고것은! 해방이 되갓고 삼십팔도 선에서 소련군들이 썬!  
뜯어가블었다고 안 해! 내가 말 듣기는!

면담자 : 아버님! 그러면 아버님이 일한 회사가 제가 좀 헛갈리는데  
요! 철도를 놓는 거예요? 아니면 쇠를 캐는 탄광이었어요?  
광산이었어요?

구술자 2 : 광산이냐고? 철도 놓는 광산이냐고? 광산?

구술자 1 : 광산이 아니지! 우리는 인제!

면담자 : 철도 놓는 일어요?

구술자 1 : 아! 철도를 가들이 인제 길을 내갓고 그 거의 다 왔었어!  
거시기까지 공장까지!

면담자 : 아!

구술자 1 : 공장까지 다 와서 인자 그들 가서, 그 사람들이 실어갓고  
실어갈라고 하다가 해방되브렀어!

면담자 :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공장에서 일하신거예요? 그 공장 쇠  
만드는 공장?

구술자 1 : 응! 쇠 녹킨 공장!

면담자 : 쇠 녹이는 공장?

구술자 1 : 포항제철같이!

면담자 : 아!

구술자 1 : 도우를 채도를 빼다가 쇠들을 빼다가 녹카갖고.<sup>249)</sup>

면담자 : 아!

구술자 1 : 일본으로 가져갈라고 했던말이여!

면담자 : 제철이네요!

구술자 1 : 그때! 인자 녹칼라고!

면담자 : 제철 멩키로!

구술자 1 : 녹카갖고 빼놓고 하나도 못가져갔어!

면담자 : 해방돼서 가져갔지 못했구나. 아! 제철이었구나! 엄청! 힘드  
셨겠어요. 그러면 죽으신 분, 죽는 분들도 나오셨겠는데요  
일하다가?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나왔겠는데요 용광로라.

구술자 2 : 중국 사람들?

면담자 : 아니! 아니! 사망한 사람들!

구술자 2 : 사망한 사람들도 봤냐고? 사망!

구술자 1 : 그건 모르지! 인자! 난, 잘, 그런데 인자 거기 일현대<sup>250)</sup>는  
안 하고 나는 창고 관리를 했거든.

면담자 : 네? ...아!

구술자 1 : 근께! 잘 모르지 인자.

면담자 : 잘 모르시게네요.

구술자 1 : 어째! 죽은 사람들 거기 거 봤다고는 허지!<sup>251)</sup>

---

249) 녹여서 제련하여.

250)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있는 노역장.

251) 당시 전해들은 이야기.

면담자 :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구술자 1 : 죽었는가 몰라 나는 이제 항상 창고를 큰 열쇠를 가지고  
이 막 별것 다 있거든.

면담자 : 뭐, 뭐, 있던가요?

구술자 1 : 나 혼자 못헌담<sup>252)</sup>서 죽동에 개식이려고.

면담자 : 예 죽동 김개식 씨하고.

구술자 1 : 이잉! 돌이! 내가 그 사람을, 형님! 나 혼자 벽차서 못헌다  
그래갖고 저사람을 디꼬 했거든!<sup>253)</sup>

면담자 : 죽동에서 온 김개식 씨 그때 한 살 어린 열네살. 김개식 씨하  
고 아버님하고 같이 창고를 지키는 일을 하셨네요.

구술자 2 : 그렇고만요!

면담자 : 창고에 뭐가 있었어요?

구술자 1 : 연장.

면담자 : 연장! 어떤 종류.

구술자 1 : 곡괭이, 삽, 남포,<sup>254)</sup> 남포 팬 거.

면담자 : 남포.

구술자 2 : 남포 팬 것도 있고.

구술자 1 : 거시기 허더마. 이 구녕을 뚫어갖고 이 독<sup>255)</sup>도.

면담자 : 드릴 같은 거.

---

252) 못헌다.

253) 홍희조 본인이 김개식을 직접 추천하여 함께 일하였다고 구술하였다.

254) 도화선 장치를 해 폭발시킬 수 있게 만든 다이너마이트.

255) 돌.



구술자 1 : 구녕을 뚫더만!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그때는 전부 정으로, 망치로 해 갖고 뚫어놓고, 웨이잉 뜯어놓고, 일정한 산악지대에는 고놈을 갖다가. 자! 거 다섯 시 되면! 시간이 끝나면 짹! 사람들 보내블고! 이 고놈을 심지를 넣 갖고 여 발파를 해 갖고 치우고 그랬더만!

면담자 : 발파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용광로도 있고 하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다친 사람도 많고!

구술자 2 : 옛날에는 심지를 넣어 갖고 남포를 썼잖아요.

구술자 1 : 다! 나보다 아버지 또래 된 사람! 성님! 또래 된 사람들도 나 우리가 나이가 영 적었었거든! 그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허고 땡기고 뭐! 갖다 도라면 갖다주고 잉! 그리고 땡겨!

면담자 : 그러면 그 텐트 숙소로 오잖아요! 숙소에서 누구누구 생활했어요?

구술자 2 : 숙소에서 누구누구 잤냐고? 누구누구? 숙소에서 자고 그럴 때 숙소!

면담자 : 누구랑?

구술자 2 : 숙소에서 누구누구 있냐고?

구술자 1 : 거기를 잤냐고?

구술자 2 : 가서 누구누구 숙소에서 살았냐고? 살 때! 숙소에서?

면담자 : 먹고 자고 지낼때요?

구술자 2 : 막사 지어논데서 누구누구 생활을 했냐고?

구술자 1 : 살았냐고?

면담자 : 누구랑?

구술자 1 : 말을 알 수가 있어야지?

면담자 : 아니! 그때 아버지 잠잘 때 옆에 누구랑 잠 잤어요?

구술자 1 : 인자, 요쪽은 곡성면! 저쪽은 오곡면! 헨디! 그냥 들어봐!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인자, 근디 인자 헨! 31개 소대씩! 요로고 해갖고 잤는디!

요쪽 곡성읍에! 김개식이는 곡성, 곡성이고! 나는 오곡면  
인디! 요로코 있는디! 몰라! 저 미산<sup>256)</sup> 사람도 있고, 이! 저  
거시기는 말골<sup>257)</sup> 사람도 있고! 이름을 알 수가 있가디!

면담자 : 그러니까! 저기 전국에서 와도 각 군별로 방을 다 쫓네요!

구술자 1 : 면별로!

면담자 : 각 군! 전국에 있는 각 군별로! 군에서 면별로 배정을 하였  
네요!

구술자 1 : 이잉!

면담자 : 곡성면! 오곡면!

구술자 1 : 반장이 있어! 반장이!

면담자 : 반장!

구술자 1 : 반장이 여그서 반장이 있어! 감시허는 거! 장이 통솔하는  
반장이! 근디! 인자 그사람은 밤쟁이 사람인데! 박 뒤편  
기여!

---

256) 곡성군 오곡면 미산리.

257) 곡성군 오곡면 서봉마을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면담자 : 밤쟁이? 반장 이름이? 모르시고?

구술자 1 : 몰라!

면담자 : 박씨데! 밤쟁이 그니까 학정리!<sup>258)</sup>

구술자 1 : 역전에 김○○ 씨라고 그 뭐이 여관을 했거든 하도<sup>259)</sup> 역  
전 내려간 데!

면담자 : 예. 곡성군 오곡면 곡성역!

구술자 1 : 그 집 사위인데!

면담자 : 아! 여관하고 있던 사위라고!

구술자 1 : 그 사람이 인자 곡성 오곡면에는 관리를 하고! 인자 여그  
는 곡성면은 여그 뭐여!

구술자 2 : 김○○! 김○○이!

구술자 1 : 시방 밑에 모욕탕 옆에 뭐이냐! 김 뭐시기냐? 그 여기 모욕  
탕 옆에 여관했거든! 그 사람이 데려가고! ...금계! 이름은  
잘 모르지!

면담자 : 그러니까 곡성면 반장은! 여기 곡성면에서 목욕탕 옆에서 여  
관하셨던 분!

구술자 1 : 모욕탕 그 옆에!

면담자 : 지금 곡성 목욕탕!

구술자 1 : 근께 지그 어머니가 옛날에 김똥 ○○이라고!

면담자 : 흥!

---

258) 곡성군 곡성을 학정리.

259) 곡성군 곡성을 섬진강 유역의 마을들을 지칭하는 명칭이다.

구술자 2 : 흥○○다고!

구술자 1 : 할머니가잉 이려고 장대한다! 여관을 했어 그 거기서!

면담자 : 음!

구술자 1 : 잘 몰라. 금께 그집 아들이 인자 거시기하구! 판테는 인자  
여 저쪽은 여러개지만은, 각 면별로 했응게 모르지!

면담자 : 그러니까 오곡면 책임자도 곡성역 앞에서 여관을 했던 사  
위가?

구술자 2 : 오곡면 여 거기 관리를 했다?

면담자 : 반장? 반장?

구술자 2 : 반장?

구술자 1 : 이잉!

구술자 2 : 역전에 그 사람이 했냐 그 말이여?

면담자 : 사위가? 사위가?

구술자 2 : 사위가?

구술자 1 : 밤쟁이 사람이 했지!

면담자 : 밤쟁이 사람이 사위라고 안했어요?

구술자 1 : 그네는 우리 반 관리를 했지!

면담자 : 아! 그러면 곡성면 관리는 목욕탕 옆에 여관을 했던 사람이  
했구나.

구술자 1 : 이잉! 그 사람이 곡성 곡성면 반장이고! 여그<sup>260</sup>는 인자.

---

260) 오곡면.

면담자 : 밤쟁이 사람이 했고 오곡사람은!

구술자 1 : 그 사람이! 오곡면은 그 사람이 했고!

면담자 : 아! 밤쟁이 사람이 했고! 박 씨라는! 아!

구술자 1 : 자기 마누래까지 디꼬와서.

면담자 : 부인까지.

구술자 1 : 이잉! 그 사람들은 마누래까지 디꼬와서 인자.

면담자 : 음!

구술자 1 : 방이 따로 있었어!

면담자 : 아아

구술자 1 : 그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은 별도로 살게 방을 딱 해놔더  
만. 집을 지면서 두 사람이 자게. 글면 우리는 인자 우리대  
로 자고.

면담자 : 아아! 얼마 전에 조사한 분이 본인 형님이 그렇게 갔다 왔다  
고 했는데! 어딘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 뭐! 평양을 거쳐서  
갔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아버님이 하신 곳이  
네! 똑같네! 감시자가 따라와가지고 같은 곳이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버님! 그 옷 같은 것은요? 옷! 옷!

구술자 1 : 우리가 갖고 가!

면담자 : 안 줬어요! 거기서?

구술자 1 : 안 줘! 뭐 옷 보따리 갖고 가 갖고가서 이잉!

면담자 : 안 줬어요?

구술자 1 : 뭐 그런것을 줘! 우리가 전부 갖고가서 간게 막! 겨울에  
가!

면담자 : 추운데!

구술자 1 : 아따! 설달에 십이월달에 가! 그때! 인제 막 추워서! 허허  
허!

면담자 : 아버님이 도착했을때가 십이월 설달?

구술자 1 : 눈도 막! 평양에 가든! 바람이! 태풍이! 있응게! 산동네 맹  
키로! 어이가 없 더만!

면담자 : 그때가 몇 년도나 됐을까요?

구술자 1 : 이 소화 이십.<sup>261)</sup>

면담자 : 소화 이십 년.

구술자 1 : 해방이 소화 이십 년에 됐잖아!

면담자 : 1945년<sup>262)</sup>에 가셨어요. 44년<sup>263)</sup>에 가셨구나! 44년에 가서서  
45년 되고.

구술자 1 : 근께 소화 17년<sup>264)</sup>으로는 여수 가! 여수 시방<sup>265)</sup> 저! 오동도  
거그서! 그 중공군<sup>266)</sup>들이 와갖고 있을 때! 그때 거그서 심  
바람하고 다니고 쇠, 쇠 모으고 그랬어!

면담자 : 아! 그러면 아버님 일단 그 인제 강서군에서 일할 때! 그러면  
곡성에서 옷같은 것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  
겠네요! 옷 안 준다고!

---

261) 1945년.

262) 양력 1945년 01월 23일.

263) 양력이 아닌 음력 1944년 12월 10일.

264) 1942년.

265) 지금.

266) 중국인들.

구술자 1 : 뭐라고?

구술자 2 : 옷 안 준다고 갖고 오라고 했겠다고 옷을! 옷을!

구술자 1 : 아! 어!

면담자 : 일하러 갈 때! 집에서!

구술자 1 : 집에서 근게 옷보따리 싸놓구 갔제!

구술자 2 : 옷을 싹 갖고 갔대요.

면담자 : 옷을 갖고 갔다고.

구술자 1 : 다 갖고 갔어.

면담자 : 그러면 일하는 연장만 췌네요!

구술자 1 : 어!

면담자 : 그담에 식사는요?

구술자 1 : 뭐!

면담자 : 밥! 밥! 밥!

구술자 1 : 밥? 콩밥 묵었지!

면담자 : 콩밥이요?

구술자 1 : 막 콩! 저그 저 뭐이! 저 미산 사람 영감이 겁나게 늙어! 늙은 사람이 금계! 그 영감 그사람도 디꼬갔어! 그 영감은 아주 겁나게 노동력이 못흔 그런 영감들도! 일본놈들이! 아 조! 사람을! 막 몰아갖고는 데꼬간고<sup>267)</sup> 그 영감은 밥을 했는디! 저!

---

267) 데리고 가다.

면담자 : 아! 일을 못하니까 밥을!

구술자 1 : 거시기했는디 하는 뭐 내가 금계 한아버지<sup>268)</sup>라고 했어! 그  
영감에게 이제 밥을, 쌀 쪄끔, 쪄끔, 요만치 허고, 고놈 반  
장 허고 반장이 하고 섞으면 맨 콩만 쫓어.

면담자 : 그니까 아버님 쌀을 쪄끔 넣고 찐년거는 반장하고 반장 부인  
만 주고, 먹고, 나머지는?

구술자 2 : 맨 콩이라고 안하요.

면담자 : 콩에다가 그리고 밥하는 사람은 할아버지같은 분이 와가지  
고 일을 못하니까! 밥하는거 시켜블고!

구술자 1 : 헤헤헤!

면담자 : 그러면 그분은 언제 그렇게 오셨을까요?

구술자 2 : 열여섯 살 묵어서 거그를 갔으면은! 어찌고 살았단 것을  
알것어! 그 집안을! 나는 인자 거시그한디 모르지만, 인자  
내가 인자 데리고 온 역사 열여섯 살 먹어서 그런테를 갔  
고! 또! 여수 그런테를 갔다 왔는디 뭐! 그 집안 형편이 어  
찌게 다 알것어!

구술자 1 : 내가! 그러면! 여수서 근무 근무할 때는 진남관<sup>269)</sup> 밑에 여  
관 이층에서 여관방 묵고 살았고 거그는 편하게 지냈구만!

면담자 : 그러면 아버님! 일하면서 돈은 요?<sup>270)</sup>

---

268) 할아버지.

269)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조선 후기 전라좌수영의 부속 관청(국보 제304호).

270) 강서군 진남포에서 노역할 때의 노임(勞賃)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구술자 2 : 돈돈돈! 일험서 돈! 요거 돈?

구술자 1 : 몰라! 나이가 어리게 몰라! 하하!

구술자 2 : 돈은 받기는 받았는디! 얼마 받은지는 몰라?

면담자 : 받았어요? 아님 안받았어요?

구술자 1 : 몰라! 그 그 시방! 반장이 지가 관리를 다 했거든!

면담자 : 반장이 받았구나!

구술자 1 : 근게 몰라!

면담자 :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버님한테는 손에 쥐어준 돈이 한번  
도 없었다고?

구술자 1 : 몰라!

면담자 : 다른 분들은?

구술자 2 : 다른 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면담자 : 돈!

구술자 1 : 몰라! 나도 몰라!

면담자 : 모르고.

구술자 1 : 그것은 몰라! 나는 잠만 자고, 때 대면 가서 창고에 가서 관  
리하고!

구술자 2 : 연장 내주고.

면담자 : 일하다가 보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구술자 2 : 싸움한다 근다 그말이여. 일허다 보믄 싸울수도 있다. 그  
말이여!

구술자 1 : 싸운 사람 허허!

면담자 : 예 그러면 도망간 사람들 없었어요?

구술자 1 : 있다고 봐야지!

면담자 : 그사람들 잡으면 어떻게 했대요?

구술자 1 : 몰라! 근께 도망간 사람 그새 막 감시원들이 있더라. 또 거기서도 근께 도망간 사람도 있어. 도망간 사람 양이식이, 양이식이, 이 사람도 나보러 뭐여! 동생! 나 갈랑 나 갈랑께! 그 사람 야물었어 근디 그 지형을 잘 알더라.

면담자 : 예.

구술자 1 : 나 가야된다고 너 혼자 끝나다라<sup>271)</sup> 있으라고 그러드만! 내 붙잡고 올고! 말이야! 나이가 어린께!

면담자 : 아! 그래서 도망갔어요? 양이식 씨는?

구술자 1 : 인제 너는 근무 여기서 근무하고 만기차면 가라고! 나는 갈란다고 도 도망가블고!

면담자 : 도망가브렀어요! 혹시 아버님을 가실 때 자기는 몇 년이나 일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갔어요?

구술자 2 : 몇 년 이런거로 하고 갔냐고? 계약이!

구술자 1 : 십이월달에, 십이월달에가 갔고! 팔일오 해방돼서 왔고!

면담자 : 그러면 팔일오 해방돼서 일하다가 내려오신거예요. 어떻게?

구술자 2 : 일하다가 해방되아서 내려왔냐고?

면담자 : 어떻게 해방된 줄 알았어요?

구술자 1 : 해방돼서...

---

271) 끝까지.

구술자 2 : 어찌게 해방된지를 알았냐고?

구술자 1 : 아! 그거 방송에 나온게! 중단이 일이 중단이 되는데.

면담자 : 아! 갑자기 일이 중단이 되고.

구술자 1 : 여 저 뭐여! 오키나와에서 원자탄 떨어졌다고 말해 소화<sup>272)</sup>

가 소화가 손들었다고 한다! 공장이 딱 거시기 해블드만!

면담자 : 그걸 누가 말을 해주던가요! 원자탄 터졌다고?

구술자 1 : 그것은 인자 난 모르지! 인자.

면담자 : 사람들이?

구술자 1 : 사람들이 일을 안하고, 공장도 일을 안하고, 인자 일본 사람들이 전부 놀고있고, 거시기 일본 사람들 저우게 산디 높은데서, 전부 놀고 있고 말여. 이잉! 우리도 놀고 있는디, 인자 몰라! 인자 얼마나 됐었던가! 사람들이! 가자고 인자 평양으로! 오니까!

면담자 : 가자고 할 때 어떻게 왔어요?

구술자 1 : 인자 평양으로.

면담자 : 평양까지? 올 때 강서군에서!

구술자 2 : 평양까장 올 때 어찌고왔냐고? 강서군에서 평양까장 올 때?

구술자 1 : 어찌고 왔는지 모르겠네, 통 허허!

면담자 : 기차타고 왔어요? 기차타고 평양까지 왔어요?

---

272) 일왕(日王).

구술자 1 : 기차타고 차를 타고 하여튼.

면담자 : 차로? 차로 평양까지.

구술자 1 : 정 그것은 잘 모르겠어!

면담자 : 하하!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구술자 1 : 그래갖고 평양에 왔는데!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뭐여! 와갖고 인자 그 쏘련 국경에서부터! 요로고 인자 그  
열차를 사람들을 실고오더만! 한국 사람들을!

면담자 : 아! 국경에서부터!

구술자 1 : 한국 사람들은 더 오딜 못했어.

면담자 : 소련 사람들?

구술자 1 : 왜냐믄! 전부 일본 사람들만 타고 내려와뵈어.

면담자 : 아! 일본 사람들만!

구술자 1 : 우리들은 타도 못했어. 열차를 열차는 전부가 칼차고 권  
총 차고 총 있는 놈들이 전부 부산항, 여수 가!

면담자 : 아! 일본, 일본 사람들이.

구술자 1 : 지그 그때도 지그 권력이거든, 근게 전부가 일본 사람들만  
타고 내려와. 우리는 화물차, 화물차 짐칸에서 타고. 그것  
도 짐칸도 처신 못하믄.

면담자 : 그럼 짐칸은 탈 때 어떻게 탔어요? 그냥 무조건 오면 타면 돼  
요! 아니면 순서를 정해놓고 타셨어요?

구술자 1 : ...그래갖고 인자 서울까지 올때도 며칠을 걸렸는가. 몰라!  
오다가 쉬고, 또 인자 서울로 와서 밥은 주더마.

면담자 : 아! 밥은 어떻게 해서 드셨는데요?

구술자 1 : 이이! 밥은 거시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해갖고 주먹  
밥을 줘!

면담자 : 서울역에서?

구술자 1 : 내려온 사람들을 밥얻어 묵을데가 어디가 있가니! 돈이 있  
어 밥이 있어!

면담자 : 내려온 사람들!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

구술자 1 : 밥이 있어.

면담자 : 서울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러 온 사람들, 징용갔다 온  
사람들한테 주먹밥을 줬어.

구술자 2 : 타고 올때게, 거그서 타고 올때게 밥을 주었는가?

면담자 : 서울까지 내려올 때 기차 안에서 밥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술자 1 : 인자 그 사람들이 서울역에 오면, 서울역에까지 ...그저 기  
차 그 쉬는데 오면 밥을 주더랑께!

면담자 : 그러니까 기차역마다 한국 사람들이 밥을 줬네요!

구술자 1 :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주먹밥이라도 주었다고.

면담자 : 아! 그렇군요. 인정이! 저기 일본에서 부산으로 온 사람들은.  
일본에서 부산으로 도착하면 부산에서 밥을 줬대요. 그렇게  
똑같이! 그럼 똑같이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 기차안에서 밥을  
먹을게 없으니까. 기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리고 쉬는 곳  
마다 밥을 줬네요. 아! 참. 그렇게 하셔서 서울에서 곡성으로  
어떻게 오셨어요?

구술자 2 : 서울에서 곡성을 어떻게 왔냐고? 곡성. 서울에서 곡성!

구술자 1 : 허허! 열차타고 왔지.

면담자 : 그래서 기차에서 내려서 집에 오니까. 집에! 집에! 인제 묘촌  
마을로 갔을거 아니에요! 누가 있던가요?

구술자 1 : 아버지 엄마 동생들.

면담자 : 가족들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막 동생들 보니까 무슨 생각  
들던가요?

구술자 2 : 열여섯 살 묵었는디 무슨 생각이 있었냐고?

면담자 : 가족들 만나니까!

구술자 2 : 동생들 본게 자꾸 울었냐고?

면담자 : 네!

구술자 2 : 잡고 울고 그랬냐고? 아버지랑 엄마랑 거기 갔다 와서.

구술자 1 : 허허허!

구술자 2 : 그랬꾸냐!

구술자 1 : 엄마랑, 동생도 울고!

구술자 2 : 그래갖고 인자 또 살면서 고생을 했어요! 형제간들이!

면담자 : 네

구술자 2 :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셔블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게! 또 어  
머니가 그냥 순해 좀 노인이 좀 순해. 소리도 안코 그냥 그  
늘이라고 겁나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그 양반들도 다 풍지박살이 되었어. 여동생은 너무 식모를  
살려 가블고 없고!

면담자 : 그때 당시에 그랬죠.

구술자 2 : 또 요 양반도 옛날에는 녀의 집에 가 살았어요!

면담자 : 네.

구술자 2 : 새경<sup>273)</sup> 얼마 썩인가 받고, 근께! 나 시집올때까장도 념의 집에 가! 념의집서 거스거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고생을 했어요. 나는 인자 뒛도! 모르고. 옛날에 같으면 흥○○ 씨라고 있어쥬? 저 곡성에 대서방<sup>274)</sup> 하는 흥○○ 씨가 참 말 잘 좀 허섯잖아요!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 흥○○ 씨가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친구요.

면담자 : 예 그래서 중신했어요?

구술자 2 : 응! 그래갖고 우리 친정아버지 담서, 내가 요리 시집을 왔어요. 흥○○ 씨 담서 시집을 왔어요! 요기를!

구술자 1 : 흥○○ 씨랑 대서방서 보고.

면담자 : 예. 면사무소 읍사무소 옆에.

구술자 2 : 그렇게 왔서! 내가 저 우리 친정아버지하고! 거스거게 딱 요리. 시방!

면담자 : 그렇게 오섯구나!

구술자 2 : 요려고 가난하게 산디 뒛헌디 몰랐어요! 그때는!

면담자 : 그때는 그렸쥬!

구술자 2 : 부모가 거스거면 온거시로 알았지! 그래갖고 와서 내가 살았네요!

---

273) 농가에서 주는 급여.

274) 대서소(代書所. 대서를 명업으로 하는 곳).

면담자 : 어머니! 아버님 말씀이 아까 하다보니까 여수로도 일하러 가  
셨다고 하네요!

구술자 2 : 네.

면담자 : 여수로 갈때는 징용가신거예요? 아니면?

구술자 2 : 여수로 갈때는 뭘로 갔냐고?

구술자 1 : 열차로.

면담자 : 징용이에요 그것도?

구술자 2 : 징용이야 그것도 징용? 징용을 간다고?

면담자 : 해방 전에? 징용?

구술자 1 : 그것이 징용인가? 말이 보국대<sup>275)</sup>라고 클더만!

면담자 : 그러니까 저 해방 전에?

구술자 1 : 소화 십칠 년인께.

면담자 : 삼 년 전이네요.

구술자 1 : 삼 년 전이지.

면담자 : 그러니까 아버님이 강서군으로 가기 삼 년 전이네요!

구술자 1 : 그러니까 삼 년 후에 인자!

면담자 : 강제징용을 두 번을 갔네!

구술자 1 : 응!

면담자 : 아! 아버님은 두 번을 가셨어요!

구술자 2 : 네.

---

275) 일제가 조선인 학생, 여성과 농촌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1938년부터 “국민정신총동원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에 의하여 조직한 강제노동 단체(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년).



면담자 : 그러면 소화 십칠 년에 갔을 때에도 통지서 영장 같은게 나와서 가셨어요?

구술자 2 : 여수로 갈 때도 영장이 나왔냐고?

구술자 1 : 아니! 그 이장이! 그때는 동장이라 금서!<sup>276)</sup>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이장이 아니라 동장. 거기 영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는 거 지명제로 잉! 거시기 갖고. 요로코! 오지리사람들 우리또래들! 나보다 나이 작은 놈들! 더 묵은놈들! 저기 묘 천에서는 저 둘이 갔어! 유! 유경옥이라고! 그 사람!

면담자 : 유경옥 씨!?

구술자 1 : 경옥이라는 사람은 나보단 다섯 살인가? 여섯 살? 그 사람도 갔어!

면담자 : 유경옥 씨.

구술자 1 : 나보다 다섯 살인가!?

면담자 : 아! 유경옥 씨도 지명으로!

구술자 1 : 여섯 살인가? 더묵었고. 나 허고 한번에 갔지.

면담자 : 예. 그때도 아버님! 똑같이 곡성역에서 기차타고?

구술자 1 : 가서 인자 물 대서! 중국 사람 일한테 자! 물 대서!

면담자 : 군청으로 모여서 군청에서. 똑같이 곡성역에서 여수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여수 어디였어요? 일하는데가 어디였어요?

---

276) 그러면서.

여수는!

구술자 1 : 여수 역전있잖아!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역전 있으면 밑에 오동도<sup>277)</sup>로 간데 있어.

면담자 : 예.

구술자 1 : 거그다 가서 자! 그 오동도 꼬터리까지, 들어간데까지, 철  
도를 맥글어 놓고 그리고 석탄이고<sup>278)</sup> 잉!

면담자 : 배에 실을 거!

구술자 1 : 쇠고, 콩이고, 전부 거 그다 집결해갖고, 중공군들이 중국  
사람들을 여그 거 역전 넘에 가서 일본 사람들! 그 헌병들  
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기마대 그 근무가 있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디 거그다<sup>279)</sup> 함바<sup>280)</sup>를 재갖고<sup>281)</sup> 그 사람들 빵을 일터  
만 중국 사람들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글문 그 사람들은<sup>282)</sup> 쉼 데가 없어! 요만치 빵을 하루 묵을

---

277)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에 속하는 섬.

278) 석탄을 짚어지고.

279) 일본헌병 기마대.

280) 임시로 지은 간이 주방.

281) 짓다(건립).

282) 중국 사람들.

놈을 주면! 목다가 또 수건으로 싸갖고 나가서 묵구!<sup>283)</sup> 그 사이에. 그때 사람 사는 것은 이 인간이 아니여! 개돼지만 도 못하게 살았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하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배가 고파서 생치밥<sup>284)</sup> 묵고! 그렇게 다 묵고! 긍께! 중국 사람들을 크게 대우에 한다고 해놓고서 요만치! 뭐이! 빵을 멩글어서 찌서 주믄! 그 사람들은 뜨건 물로 인자 고놈을 끼니로 삼아서 먹어.

면담자 : 그 사람들은 빵을 먹었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뭇 줬어요?

구술자 2 : 조선 사람한테는 뭇 줬냐고? 당신들한테는 뭇 줬냐고?

구술자 1 : 밥 줬지! 여관에서 살아당께!

면담자 : 아! 여관에서?

구술자 1 : 응! 여관!

면담자 : 여관! 어...

구술자 1 : 진남관 밑에 여관이 있어! 이층인가? 삼층인가? 되더만. 거그서 여관에서 잤어. 우리들은, 우리들은 특별대우 받았지!

면담자 : 아아!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아침에 나가서 거기서 일 하

---

283) 먹다.

284) 익히지 않는 음식들을 생치밥으로 표현하였다.

고, 저녁에 들어와서 여관에 와갖고 주무시고 몇 년을 일했  
어요?

구술자 2 : 여수서 몇 년을 했냐고? 몇 년?

구술자 1 : 몇 년이 아니라! 뭐여! 거시기 그 해 8개월인가!? 9개월!?

면담자 : 8-9개월 일하고 오셨어요! 그때 아버님은 주로 무슨 일 하셨  
어요?

구술자 1 : 거시기 뭐여! 우리들 전부 뒷을 했냐면! 거 석탄으로 불을  
떼갖고 물을 끓이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 사람들 중공군들 물을 갖다주고, 근데 시간있으면 저  
짜에 가서 한쪽은 쇠! 개본놈!<sup>285)</sup> 갖다 놓고! 어뜨고 그랬  
어!

면담자 : 잡일 시켰구나!

구술자 1 : 고놈 가져갈라고!<sup>286)</sup>

면담자 : 일본 사람들도 일했잖아요! 일본 사람들 하는일 은요?

구술자 1 : 몇 시냐고?

구술자 2 : 일본 사람들은 뭇 했냐고? 일본 사람들은?

면담자 : 예. 일본 사람들은 뭐하셨어요?

구술자 2 : 뭇히여! 뭇 일을 혀? 일본 사람들은 뭇 일을 했냐고?

구술자 1 : 일본 놈들 일 안해! 일본 사람들이 일허가니! 한국... 전부

---

285) 가벼운 쇠.

286) 일본으로.

한국 사람들 하제!

면담자 : 나쁜 놈들이네요!

구술자 1 : 기술공들이, 기술공들이 하지! 기술공들이 가서 기계보고!

일헌 사람들 어디가 있어!

면담자 : 감시했어요?

구술자 1 : 일본 사람 내가 보기엔 일본 놈 회장 요고 저 지휘를 허고

글제. 우리들 가면 막 창고가 있는 디! 창고 가면 나는 어

디서 어디든지! 거시기 여수 있을때도 창고 가든 무지하게

많았어! 창고 들어가면 막 사탕 있고, 빵도 있고, 근디 내가

갔다묵고<sup>287)</sup> 말이여! 거그서 그랬어!

면담자 : 괜찮네요! 여수에선! 그 회사 이름 알아요?

구술자 1 : 일본 놈들은 뭐이 무지허게 편하게 살지! 그 사람들 아!우!

우리는 식민지 아인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하인들이여 일꾼들이요! 그때 가들은 세계를 점령, 으잉!

점령하고 이 좌우를 할라고 뭐여, 말데끼 소련하고 전쟁해

갖고, 소련이 이 손들고 세계전쟁이 일어나고!

면담자 : 러일전쟁에서는 소련을 이겼죠. 일본이.

구술자 1 : 그래갖고 해방이 된게 인제. 미국서 근게 우리나라는 반도

맨든게 미국서 맨들어놔잖아!

---

287) 가져다 먹고.

면담자 : 아버님 그때 당시에 여수에서 일하신 회사 이름 알아요? 일  
본 회사 이름?

구술자 1 : 아! 몰라 그런 것은!

면담자 : 그리고 강서군도 회사이름 모르고? 그래도 그거는 찾아보면  
제가 알 수가 있으니까.

구술자 1 : 노동일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은 무엇을 갈채준가!!

면담자 : 그러면 여수에서는 또 저 돈은 받으셨어요?

구술자 2 : 돈 받았냐고? 돈 벌었냐고? 돈! 여수! 여수서! 돈이랑! 많이  
벌어갖고 왔냐고?

구술자 1 : 그때 오십 전 삼!

면담자 : 아! 오십 전!

구술자 1 : 그때게 하루 장정이 내가 알기로는 여! 일꾼 잘헌 사람이  
삼십 전!

면담자 : 하루에.

구술자 1 : 삼십 전, 삼십 전이면 하루전드라!<sup>288)</sup> 일하고 번다고 그랬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디! 삼십 전인가!? 오십 전인가 근디!

면담자 : 아니! 팔 개월을 일했는데 하루<sup>289)</sup> 치 품삯을 줘요? 그러면!  
돈을 안 준거잖어요! 그러면!

구술자 1 : 그때는 십 전, 일 전 가지면 사탕 여, 곡성 저 일본 놈들, 저

---

288) 하루 종일.

289) 일일(一日).

그 점방에 가면 사탕 다섯 개씩 해.

면담자 : 하루에 오십 전씩 줬다고요! 아니면 팔 개월 전체에서 하루 오십 전을?

구술자 2 : 하루에 오십 전씩 줬냐고? 하루에 오십 전씩 돈을 하루에?

구술자 1 : 하루에 금께! 삼십 전인가!? 오십 전인가! 금께!

면담자 : 받았어요? 어! 돈을 그럼 벌으셨네!

구술자 2 : 하하!

면담자 : 거기에서는 돈을 받으셨네!

구술자 2 하하!

면담자 : 아! 괜찮았네요!

구술자 1 : 삼십 전인가!?

면담자 : 여관에서 자고 대우를 받았네! 여수는!

구술자 2 : 저그 평양까지 했던건 보덩!

면담자 : 그러면 아버님 평양가면서 혹시! 돈을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여수에서 받아서!

구술자 1 : 그러재잉!

면담자 : 그거 한번 여쭙보실래요? 평양 갈 때?

구술자 2 : 평양 갈 때 돈 벌라고 갔냐? 그 말이여!

구술자 1 : 아! 지 영장이 나와서 갔당께!

면담자 : 아! 그러죠.

구술자 1 : 여수도 여! 저! 가라고 해서! 우리가 돈 벌라고 간 것이 아니라!! 강제 노동이여!! 강제 노동이여!!

면담자 : 그렇죠! 그런데 여수는 좀 대우가 좋은거죠! 그나마!

구술자 1 : 근께! 열세 살 먹어서 내가 어떻게 갔가니!! 강제 노동이  
여!! 강제 노동!!

면담자 : 그렇죠! 아버님!

구술자 1 : 근께! 평양 갈때도 전부가 누가 갈라고 하가이! 일 허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지! 강제 노동이지!! 가족을 버리고! 가족  
을 버리고 갔는다! 뭐이!! 강! 누가! 지원해서 누구 가! 가!!

면담자 : 그렇죠! 아버님! 그렇게 해서 8·15 해방이 되어서, 곡성에 와  
가지고 결혼을 언제 하셨다구요? 그러면?

구술자 2 : 스물아홉!

면담자 : 스물아홉이면, 6·25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하셨어요?

구술자 2 : 네. 군대 갔다 와서!

면담자 : 아!

구술자 2 : 스물아홉에 결혼헌거여!

#### • 한국전쟁에 관하여

면담자 : 그러면 아버님! 육이오가 육이오가 일어나잖아요! 육이오때!  
육이오때! 마을은 어땠어요? 북한군들!

구술자 2 : 육이오때 북한군들 어쨌냐고? 북한군들 어쨌냐고?

면담자 : 마을에서! 마을에서! 마을 사정은 어땠어요?

구술자 2 : 마을에서!

구술자 1 : 마을에서? 아! 육이오때 마을에서!?

면담자 : 어머님! 아버님! 육이오 겪은 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구술자 1 : 육이오를 내가 스물한 살에 지켰는다!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래갖고 이 년 후에 군대가 내가 그때 나이로서 군대생활을 내가 최고로 일반 군인으로서는 내가 오십육 개월 했네!

면담자 : 아!

구술자 1 : 근께! 항상!

면담자 : 어떤 분은 사십팔 개월 했다고 하던데.

구술자 1 : 육이오가 나갔고, 육이오 전쟁을 오십육 개월이라고 하면!  
이잉! 다른 사람은 말도 못해! 오 년... 육 년 안해!

면담자 : 약 오 년 했네요! 오 년!

구술자 1 : 육이오가 난개! 우리 뭐여! 저 경찰들은 좀 늘렸어. 경찰들이 부산으로 갈라다가 하동 맹키로 태안사<sup>290)</sup> 와갖고는!

면담자 : 태안사에서 전쟁을! 전투를 했죠!

구술자 1 : 처남도! 거그서 참전했는디!

면담자 : 태안사전투!<sup>291)</sup>

구술자 1 : 거그서 근무를! 거그서 빠져나와서. 죽든 안허고! 거그서 시방 살다가 오십에 죽었지! 경찰들이 후퇴해서 태안사로

---

290) 선문구산(禪門九山)의 하나인 동리산파(桐裏山派) 사찰이며,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에 있다.

291) 태안사전투 :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하자 한정일 곡성경찰서장과 300여명의 곡성경찰이 태안사 경내에 작전지휘본부를 설치하고 방어하던 중에 7월 29일 남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압록교를 통과하는 북한군 제603 기갑연대를 매복 작전으로 교전 끝에 북한군생포3명, 사살52명, 트럭4대, 떠발총 70여대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북한군이 반격으로 8월 6일 태안사 작전지휘 본부를 기습 공격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경찰관 48명이 태안사에서 전사한 전투이다.

들어가는디! 고놈들이<sup>292)</sup> 저녁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죽여볼테끼!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여그 뭐, 곡성 왔을 때는! 딱, 뭐, 아! 그때는 공산당 뭐, 공  
산주의다, 민주주의다 파가 갈리고 있어갖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막 양○○ 만으로 뭐 서로 막 좋다고 그래, 그것이 딱, 뭐,  
곡성에는 전부 요것들이 죽동에 와있어!

면담자 : 저!

구술자 1 : 장자<sup>293)</sup> 급들이 전부 양○○이 저 저그.

면담자 : 양○○<sup>294)</sup> 씨가 삼기, 삼기사람이던가? 겸면사람인가?

구술자 1 : 어어! 어디냐 거이 양○○이가 무지하게 이뿌더만!

면담자 : 사회주의자.

구술자 1 : 그 사람이! 여 해방을 했어, 팔일오 해방을, 아이 육이오 구  
월 이십육.

면담자 : 그럼 양○○ 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 씨가 어떤 사  
람이었어요?

구술자 2 : 양○○이가 어떤 사람이냐고? 양○○이가 어떤 사람이냐  
고?

---

292) 북한군 제603 기갑연대.

293) 우두머리.

294) 곡성군 삼기면 출신 사회주의자(빨치산).

구술자 1 : 해방 돼서 공산당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 사람은 경찰들이 뭐여 진급을 해서 준다고 해나도 안허고  
산에서 저 뭐 캐, 채알봉! 거그서 근무하고 지 각시가 갖다노  
른 뭐! 베포밥을 싸다주면! 저그! 베포밥에 넣서 편지가 와!

면담자 : 채알봉<sup>295</sup>이요 양○○ 씨가 숨었던 곳이?

구술자 2 : 양○○ 씨가 숨었던 곳이 어디라고?

면담자 : 아까 무슨 산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양○○ 씨가 어떤 산에  
있었다고.

구술자 2 : 양○○이가 뭇을 어쨌다고?

면담자 : 숨은 곳? 어디 산?

구술자 1 : 아니! 잡을라고 경찰들이! 양○○을!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자기 막 가족들을!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일정시대에 독립군들을 쫓드러 패  
고 그런다고! 지그 엄마다고 글고! 그러테끼! 그때게는 공  
산당 사상 가진 사람들을 경찰들이 잡아다가 거시기 취조  
를 했잖아!

---

295) 곡성군 삼기면과 회순군 백야면 경계에 위치한 668.5m의 차일봉을 지칭하는 지명이다. 곡성군민들  
은 차일봉을 채일봉, 채알봉, 새알봉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6·25 한국전쟁 당시 조선 인민유격대 전  
남 총사령부(빨치산 전남도당사령부)가 있는 백야산과 인접하고 있어 차일봉은 그들의 주요 활동 거  
점지역이었다.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묘촌 가서도 했잖아.

면담자 : 양○○ 씨가 어디사람이에요?

구술자 1 : 아유! 여기 거기 삼기 쪽!

면담자 : 삼기 사람이죠!? 예예 삼기 분들도 양○○ 씨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구술자 1 : 여 그제! 여그! 여그도! 있고 저그 앞에도 있고!

면담자 : 집 앞에도 요? 그러면 양○○씨가 육이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 교촌마을! 아니 묘촌마을에서 살았어요?

구술자 2 : 양○○ 씨가 육이오 전쟁때 묘촌에서 살았냐고? 묘촌리?

구술자 1 : 아니! 양○○이는 아니! 삼기 살았구!

면담자 : 삼기 살았구나! 양○○ 씨 아버님도 만났어요? 본 적 있어요?

구술자 1 : 얼굴 여그서 회관에 가서 육이오때 있었는데!

면담자 : 묘천회관이에요? 교촌회관이에요 묘촌?

구술자 1 : 아! 이 회관!

구술자 2 : 죽동!

면담자 : 아! 죽동회관!

구술자 1 : 죽동회관에 가서 있었어!

면담자 : 양○○이가.

구술자 1 : 육이오때.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육이오때! 인제!

면담자 : 인공 때.

구술자 1 : 여그와서<sup>296)</sup> 저 밥에다! ...내가 본께!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 말도 안해블고! 그냥 얼굴만 봤는디!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거그서 밥묵고 거가 있었어!

면담자 : 외모가 어떤거같던가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양○○ 씨가!

구술자 1 : 이쁘게 생겼어. 얼굴번번!

면담자 : 이쁘게 생겼구나! 건강하고? 사람들 막 괴롭히던가요? 양○  
○ 씨가?

구술자 2 : 양○○ 씨가 사람들을 괴롭게 했냐고?

구술자 1 : 그것은 모르겠어!?

면담자 : 모르시구요.

구술자 1 : 우리도 쫓깨댕긴게 알수가 있가니! 뭐이 거시기, 막, 전부  
도망댕기고 그러 산으로 전부, 다 낮에는 피란 가고! 다 식  
량 갖다가 갖고 가서 산골짜기서 밥해 묵고 살고 그러지!

면담자 : 아버님은 어디로 피난 갔어요?

구술자 1 : 아이고! 뒷산으로.

구술자 2 : 뒷산으로 인자 피란을 댕겼다고.

면담자 : 여기 죽동 뒷산으로?

구술자 2 : 그랬지 인자.

---

296) 죽동 마을회관.

구술자 1 : 동악산<sup>297)</sup>으로.

면담자 : 그러면 동악산으로 피난 가서?

구술자 1 : 거그서! 밥해묵고 있다가 식량 떨어지면 가지러 오고!

면담자 : 음! 그 그렇게 해가지고 육이오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언제  
까지 피난 생활을 했어요?

구술자 1 : 아니지! 그것이 아니라, 인제 고깃들! 거시기 해갖고!

면담자 : 아! 마을에서 양○○랑 다 나가니까! 내려오셨어요?

구술자 1 : 아니! 그 사람들 다 모른다. 그래갖고는 인자, 전부가 인자,  
거 거이 여기 고놈들 공산당 청년회가 있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우리들을 전부 거!머여! 잡아왔어! 잡아다가 뭐라허고 가  
냐면! 밥 그릇하나 숟가락 하나 가지고 뭐여! ...향교!<sup>298)</sup> 행  
교로 오라고!

면담자 : 예. 향교.

구술자 1 : 선생질을 허는 거! 양○○!<sup>299)</sup>

면담자 : 양○○!

구술자 1 : 알지?

면담자 : 예. 양○○ 씨!

구술자 1 : 곡성서 요것이여!<sup>300)</sup>

---

297) 곡성군 곡성읍과 입면 등의 경계에 위치한 735m의 산이다.

298) 곡성향교(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299) 곡성읍 출신 사회주의자(빨치산).

300)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곡성 공산당 청년회 고위간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면담자 : 예. 양○○ 씨가 어떻게 하던가요?

구술자 1 : 양○○가 군청서 여그 오고 그래갖고는!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오라 해갖고 가니까!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주간<sup>301)</sup> 당산<sup>302)</sup>에 가니까! 이승만이 따라갈 사람 이리오  
고! 김일성 따라 갈 사람 요리 오고!

면담자 : 아! 이승만 따라갈 사람, 김일성 따라갈 사람 나누었어요?

구술자 1 : 이잉! 근께 누가 요리가고 저리가 고 해? 그 자리가 가만히  
있었제!

면담자 : 아! 가만히 있었어요!

구술자 1 : 누가 이승만이 따라간다 글렀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누가 김일성이 따라간다 글렀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중간에가 딱! 서서!

면담자 : 아!

구술자 1 : 아!씨! 밥그릇허고 손거락하고 갖고 향교로 오라고!

면담자 : 예. 그래서 향교에서?

구술자 1 : 그래갖고 양○○랑! 고리, 우리 선배들 조○○! 그덜 그때

---

301) 죽안(竹岸)마을 :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를 지칭하는 지명이다.

302) 당산(堂山).

관직이 있는 사람들 다 빼내들더만!<sup>303)</sup>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칼날이 서 있어도! 칼날 서 있어도! 시<sup>304)</sup>가 있더만!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이 친구들은 다 빼, 잉!

면담자 : 빼! 빼줘요?

구술자 1 : 세상에!

면담자 : 그니까 자기 친구들 빼고! 잘난 사람 빼고! ...힘없고 뭐하니까!

구술자 1 : 인자! 맨맨헌 사람들!

면담자 : 만만한 사람들만!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구술자 1 : 그래갖고 인자 보내서, 그래서 인자!

면담자 : 어디로 간지는 모르고? 근데 아버님은 안 끌려갔네요?

구술자 1 : 아! 저그, 저그, 시킨대로 해!

면담자 : 어 어디로 갔어요? 그때, 주간에서?

구술자 2 : 끌려갔냐 그말이요? 당신도 어디로 끌려갔냐?

구술자 1 : 여그 어디! 옥과 갔다가! 저그로 갔다가!

면담자 : 가서 뭐하셨어요?

구술자 1 : 지그들이 여 삼기서도 오고 그래갖고, 난중에는 거시건 사람들은 저리 경상도로 다 디꼬갖지!

---

303) 북한의용군 징집 상황.

304) 사사로움(私).



면담자 : 그럼! 아버님은 끌려가셔서 뭐하셨어요?

구술자 1 : 뭘 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묵고!

면담자 : 밥만 먹고 그냥 따라다녀요?

구술자 1 : 따라 댕겼제!

구술자 2 : 하! 하!

구술자 1 :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도, 사상<sup>305)</sup> 가진 사람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여그서! 곡성 보안대<sup>306)</sup>라고 말이여!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시방! 그 사람들 다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안 가고! 보안  
대, 경찰들, 인민군들, 인민군 경찰들, 곡성 경찰들.

면담자 : 예. 인민군, 경찰들.

구술자 1 : 글서 가들은 여그서 편하게 있었지! 근데, 우리들은 인자  
따라가서 뭐여! 고놈, 그놈들 의용군<sup>307)</sup>에 갔지!

면담자 : 막 때리고 그런건 없던가요? 안때려요? 안때려요?

구술자 1 : 때리던 안터만!

면담자 : 안 때려요?

구술자 1 : 응! 그럴수가 있가디! 그놈들도 다급헌디!

면담자 : 네.

---

305) 사회주의 사상.

306) 8 15 해방 이후 지방의 치안유지 등을 위해 활동한 지방 자치조직들을 일컫는 명칭 중 하나이다.

307) 북한의용군(북한이 6 25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으로 조직한 군대).

구술자 1 : 인자, 그만 통솔하느라고!

면담자 : 그럼. 아버님! 그렇게 해갖고 한 며칠이나 끌려다녔어요? 열  
마나?

구술자 2 : 며칠이나 끌려댕겼냐고? 며칠이나?

구술자 1 : 몰라! 며칠인가! 여하튼 한 보름 댕겼냐!

면담자 : 그러가지고 어떻게 풀려났어요?

구술자 1 : 보름 못되냐!? 보름! 그러다가 인자 상태가 이상헌게! 요놈  
들이 즈그들이 모나 산으로 올라가!

면담자 : 아! 그냥 나누고 가버렸구나. 자기들끼리!

구술자 1 : 진짜! 인민군들은 뭐여! 총가진 놈들은 이! 짹!

면담자 : 북으로 가버렸죠?

구술자 1 : 오란 말! 가란 말도! 안허고 가브러!

면담자 : 아!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들 도망 가버리고?

구술자 1 : 그러가지고 뭐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럴때여! 근게 거시기  
한게, 우리 동네 친구들도! 마니 뭐여! 거시기 거제도도로!  
이잉! 짹혀간 사람들.<sup>308)</sup> 어찌게 됐냐! 구례를 유엔군들이  
구례로 갔는디, 구례로 올라 진격해서 올라갔는디!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 유엔군들에게 못 도망가고 짹혀 갖고! 포로용소가 갖  
고! 거시기현 사람들!

---

308) 거제수용소로 잡혀간 마을사람들.

면담자 : 북한군도 아닌데!

구술자 1 : 지금은 다 죽었는데!

면담자 : 아! 그때 거제로 끌려간 사람들 이름이 뭐예요?

구술자 1 : 누구?

면담자 : 그때 거제도도 끌려간 사람?

구술자 2 : 그때 거제도도 끌려간 사람 이름이 뭐이냐고?

구술자 1 : 거제도까지 끌려갔지!

구술자 2 : 공께! 이름이 뭐이냐고? 끌려간 사람 이름이? 이름?

구술자 1 : 뭐?

면담자 : 이름!

구술자 1 : 이름은 정○○! 홍○○이!

구술자 2 : 한○○이!

구술자 1 : 그 사람들을 인자 다 대학교 나온 놈들이거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데! 인자 거기 가다가, 지그 아버지! 지그 성이랑 공직  
에 있고 그니까! 우리랑은 안갔는다. 난중에! 인자! 북한군  
들이 올라올 때 잡아서 이잉! 그놈들이 인자 디꼬! 저리 디  
꼬! 갈라고 했는갑서! 내가 생각하기에!<sup>309)</sup>

면담자 : 북한으로?

구술자 1 : 북한으로! 디꼬갈라고 하다가 남한 어디! 전주 못가서 잡

---

309) 공산당 청년회 간부들에 의하여 마을에서 북한의용군으로 징집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북한군에 의하여 끌려간 동네 친구들에 관한 구술.

했는가봐!

면담자 : 그래서 거제도로 끌려갔다고요?

구술자 1 : 그래갖고 인자 이 거 포로수용소<sup>310)</sup>로 갔지!

면담자 :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구술자 1 : 인자 포로 수용소 거제도의 그 별자리를 막!<sup>311)</sup>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공산당 사상가진 놈들이 별자를 잡아갖고! 그래갖고 고 며칠간을 거 잡아 가둬논게 탱크로 밀어블라고 했다가! 그 사람<sup>312)</sup> 좌천당해갖고 그래갖고 가서 거시기했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들 아까 자네 말대로 뭐이! 몇 년도에 이! 여! 거시기를 신고를 해야한디!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 동네사람들이 아파서, 둘 다 아파갔고, 병원을 다닌디! 지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거그를, 아버지들이 간계, 북한으로 가게 되어있더레!

면담자 : 아!

구술자 1 : 병원에가 있는디. 이거 우리 아들네들이 남쪽 사람이다! 그랬는디 인자!

---

310) 거제 포로수용소.

311) 1952년 5월 7일 제76포로수용소 소장 F.T.도드 준장이 포로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 되었던 폭동사건이다. 도드 준장은 수용소 측의 잔학행위를 인정하고 석방되었으나, 곧바로 해임되어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았다.

312) 제76포로수용소 소장 F.T.도드 준장.

면담자 : 아! 포로 풀어줄 때!<sup>313)</sup>

구술자 1 : 그래갖고 미군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빼갖고 왔잖아!

면담자 : 아! 마을로 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은 육이오를 그렇게 해서 그 육이오가 다 지나갔어요?

구술자 2 : 육이오를 인자 그래 갖고!

• **군대생활에 관하여**

면담자 : 다 지내고, 그담 육이오 끝나고 난 다음에 군대를 가셨어요?

구술자 2 : 인자 육이오 끝나고 군대를 갔어? 육이오 끝나고 군대를 인자 갔어?

구술자 1 : 그렇지.

면담자 : 아! 그러셨어요.

구술자 1 : 육이오가 안 끝났지!

면담자 : 그러면 육이오 끝나기 전에 영장 나와서 군대를 갔어요?

구술자 1 : 전장을 했는디!

면담자 : 그러면 아버님!

구술자 1 : 전장을 하고 있는디!

면담자 : 전쟁 하고 있을 때 영장이 나와서!

구술자 1 : 전장을 하고 있을 때! 영장이 나왔지.

---

313) 1953년 6월 18~19일 당시 부산, 광주, 논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포로수용소에서 이승만 정권의 주도하에 반공포로 3만 5천여 명을 탈출시킨 사건(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년).

면담자 :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훈련소를?

구술자 1 : 군대를?

면담자 : 예.

구술자 1 : 논산.

면담자 : 논산에서, 논산에서 훈련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배치를 받았어요?

구술자 1 : 팔주, 팔주, 논산에서 십육 주.

면담자 : 논산에서 십육 주, 아버님 군번은?

구술자 1 : 구, 구팔, 끝애가 잘 모르겠네!

면담자 : 구 오 팔 그렇게 나가신다구요?

구술자 1 : 근디! 어! 팔 주 십육 주, 십육 주이고 뭐시여! 이십팔, 팔 주, 팔 주, 팔 주 셋, 팔 주서 세 번.

면담자 : 삼 팔에 이십사, 이십사 주.

구술자 1 : 이십사 주를!

면담자 : 논산 훈련소에서?

구술자 1 : 아니! 시내 사 주는 팔 주는 김해 공군에서!

면담자 : 그러니까 논산에서는 며칠을 훈련받았어요?

구술자 1 : 십육 주.

면담자 : 십육 주 받고?

구술자 1 : 십육 주 받고. 일등병 진급 달고, 전반기 팔 주 받고, 후반기 팔 주 받고, 일등병 진급 받아갖고.

면담자 : 어디로 갔어요?

구술자 1 : 거시기 김해.

면담자 : 김해.

구술자 1 : 김해 공병학교.

면담자 : 공병학교로, 그래서 김해 공병학교에서.

구술자 1 : 거기 가서 또 팔 주 훈련받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래갖고 인자 부산에 떨어졌어!

면담자 : 그 아버님 그러면 주특기가 뭐였어요?

구술자 1 : 육이오 끝났지 인자!

면담자 : 아! 부산 배치 받으니까 육이오가 끝나서.

구술자 1 : 암! 육이오가 끝났어! 인자 요그.

면담자 : 아! 휴전이 됐구나!

구술자 1 : 여그서 갈때는 전쟁을 했는디! 그래갖고 인자.

면담자 : 그러면 아버님! 그 다른 아버님들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육이오때 논산 가니까! 그때 막사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  
때 본인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막사도 짓고 그랬다고 말씀하  
시던데요? 아버님때에! 그때 가실 때는 막사랑! 다 훈련장은  
다 지어져 있던가요?

구술자 1 : 막사는 지었는디.

면담자 : 예.

구술자 1 : 우리가 밥 우리들은 순전 훈련받고 뒤편! 훈련받고 엠원들

고 대검차고! 독!<sup>314)</sup> 요만씩 한놈들 저기 십 리 밖에서 짚어  
지고 왔어!

면담자 : 와 가지고 연병장 깔으셨구나.

구술자 1 : 어어! 훈련 끝나고 짚어지고 와 갖고 고놈을 논산 진흙땅인  
디! 고놈을 통로에다 깔았어! 그때는 세멘<sup>315)</sup>있어! 뭐있어!  
그때는 공병들이 어, 가다를 찌 갖고 짚을 여 갖고 그랬어.

면담자 : 바닥을 다졌다고!

구술자 1 : 벽돌을 그럼 우리 저녁밥 먹고 아홉 시 열 시되면 거가서  
맹글아!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맹글아 노면 공병들이 지어써.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래 갖고 인자 우게는 새!<sup>316)</sup>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갈대 있잖아!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고놈 뜯어다가 느껴 갖고 비오면 새고.

면담자 : 그러면 막사 바닥은?

구술자 1 : 바닥은 인자 말레<sup>317)</sup>로 해놨더만.

---

314) 돌.

315) 시멘트.

316) 비가 새는 막사 지붕.

317) 마루.



면담자 : 네.

구술자 1 : 판자로 거그서 잤지.

면담자 : 예. 그래가지고 지붕 같은 경우는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오면 비가 새고! 그렇게 해서 육  
이오까지 다 끝나시고?

구술자 2 : 여! 군대가서 인자! 손도 다쳐꼬! 요거! 요거!

면담자 : 어머니! 군대가서 여기 손이랑 다쳐 가지고! 부상 당하셨어요?

구술자 2 : 요 부상! 요요요요! 부상. 병원애가 있었어!

면담자 : 어! 군대 있으면서 손가락 부상당하셨어요?

구술자 2 : 예! 요요!

면담자 : 어떻게!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구술자 1 : 뭐! 부산애, 부산근무 했어.

면담자 : 그거 다친 거 말씀 좀 해주세요.

구술자 1 : 기계로!

면담자 : 어떤 일 하시다가?

구술자 1 : 기계로 다쳤어!

면담자 : 공병 일 하시다가?

구술자 1 : 이잉! 기계로!

면담자 : 군대에서.

구술자 1 : 공병들, 공병들 있고, 기공단 있고 또 여 도로 공병단 있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여러 가지여!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것도 인자 나는 건공단<sup>318)</sup>인데. 건공 집을 짓는단, 집을  
짓는단, 건공단.

면담자 : 건공단! 집을 짓는다는!

구술자 1 : 근께 뭐이가? 왜정시대에 부산 범일동 가면 왜정시대에 천  
오백 평짜리 병기창<sup>319)</sup>이 있어!

면담자 : 네, 병기창!

구술자 1 : 일본놈들이 일본 사람들이 지어논 그래 삼천 평, 이천 평,  
이 고래갓고 뭐여, 거그다 오천 평짜리 공장을 다시 지었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거 질때게! 기계로 모터 같은 것이 기계로 돼 있잖아!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때도 미국서 준 것이라! 우리 한국에는 사람이 잡아 땀  
기지만.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런 기계가 돌아가면서 거그서 나무깎다가!

면담자 : 이케! 빙 재고 나무 깎다가!

구술자 1 : 다 ...못에다 걸러갓고!

면담자 : 아!

구술자 1 : 절단 해브렸어!

면담자 : 그러면 인제 그 국군병원으로 갔을거 아니에요?

---

318) 건설공병단(건설 공병 대대로 편성한 부대).

319) 병기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공장.

구술자 2 : 부산 큰 병원에가 있었냐고? 부산!

면담자 : 무슨 병원이요?

구술자 1 : 오육군 병원!

면담자 : 오육군?

구술자 1 : 오육군 병원.

면담자 : 오십육 육군?

구술자 1 : 오 육 군 병원.

면담자 : 오 육 군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그 병원 환경은 어땠어요?

구술자 1 : 뭐?

면담자 : 병원 환경!

구술자 2 : 병원 환경! 병원에가 있을 때!

구술자 1 : 천부 치, 백 명씩 있고!

면담자 : 침대는 그냥.

구술자 1 : 침대는 일개에 하나씩.

면담자 : 어떻게 배정되었다고요?

구술자 1 : 하나씩! 한 사람 씩!

면담자 : 백 명씩하고!

구술자 1 : 백 명이! 일 개씩! 백 명이!

면담자 : 음, 그답에 그 뭐 식사같은 경우는요? 병원에서?

구술자 1 : 식사는 갖다 주지.

면담자 : 갖다 주고? 깨끗하게 잘 받으셨어요?

구술자 1 : 몰라! 그거는 잘.

면담자 : 식판에?

구술자 2 : 몸을 거시기 판에다가, 인자 식판에다가!

구술자 1 : 환자들, 환자들, 환자들인게! 전부 배급한 사람들이 있어.

면담자 : 아! 환자들한테, 환자들이 타 먹는게! 아니라, 직접 배급해주고, 음! 그렇게 해서 얼마동안 입원했어요?

구술자 1 : 팔 개월!

면담자 : 와! 팔 개월! 그리고 다 낮고 난 다음에 군대로 다시 복귀를 했을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대시켜 버렸어요?

구술자 2 : 제대했냐고? 그 말이여!

면담자 : 네. 바로!

구술자 1 : 아이했어!<sup>320</sup> 근데 인자 이 얘길 하자믄! 우리가 시대가 인자 지금 국가에서 부정이 있잖아! 이! 그러대끼 그때는 그 때에는 부정이 많잖아! 근디 뭐라하냐면 나보로고는<sup>321</sup> 공이 요것도 환자도 공상<sup>322</sup>이 있고 사상<sup>323</sup>이 있고 전상<sup>324</sup>이 있고 세 가지로 있어!

면담자 : 그렇죠! 아버님은 공상이죠!

구술자 1 : 근디! 전상하고 공상허고는 해당이 돼!

면담자 : 예. 아버님은 공상이시잖아요.

구술자 1 : 해당이 되는디! 사상은 해당이 안돼!

---

320) 못했다.

321) 나에게는.

322) 공상(公傷).

323) 사상(私傷).

324) 전상(戰傷).

면담자 : 예.

구술자 1 : 내가 외출이나 휴가 때나, 그때는 아무리 팔<sup>325)</sup>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져도 그것은 사상이여!

면담자 : 그렇죠.

구술자 1 : 근디! 요것은 공상은 공상인디! 공사를 하다가 다쳤는디!  
이쪽에 손을 했는디! 제대가 안된디! 국가가!

구술자 2 : 왼손이라고?

구술자 1 : 요 손! 요 손!

면담자 : 오른손이 아니라고?

구술자 1 : 요 손가락하고, 요 손가락하고, 발하고, 그건 해당이 된디!  
요 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면담자 : 그래서 오십육 개월.

구술자 1 : 그래인디! 그래갖고 저 그래갖고 또 전방에 올라갔지!

면담자 : 아버님! 그러면 여기서 부상 등급 못받으셨네요? 지금도!

구술자 2 : 지금 못 받아요! 모냐 또, 오라고 그래서 갔었어요.

면담자 : 그래도 못받으셨어요.

구술자 2 : 안 된다고 또 법이 바뀌진다냐! 어쩐다냐! 저기 또 광주 보  
훈병원.

면담자 : 보훈병원.

구술자 2 : 또 아파서도 몇 번 거기를 가고요! 여기 손땀서<sup>326)</sup> 오라고

---

325) 팔.

326) 손 때문에.

저그 순천, 보훈청에서 여그 또 오라고 했어요. 근디!

구술자 1 : 근께 인자 요놈 하나만, 요놈 하나만 없어도, 연금 해당이  
되는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여!

면담자 : 그렇구나! 지금도!

구술자 1 : 누가 된다고 그래. 된다고 그래. 한 번 다시!

구술자 2 : 또 갔어요! 통지가 와서 가라고 했는디!

구술자 1 : 가라고 그래서 친구 하나가 자기는 혜택을 보고 있다.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여가서 여가서 승터가 있는디.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 담당 의사가 보훈병원에서 해줘갖고 자기는 혜택을 본  
다! 자네는 하고도 된다! 그래서 한 번 해봤더니 안 돼!

면담자 : 안타깝네요!

구술자 2 : 오라고 해서 갔어요! 다시 오라고 해서.

면담자 : 아! 다시 재검한다고?

구술자 2 : 인자 또 재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순천 거시기서 와서 또  
갔어요! 통지가 와서 갔더니 외약손<sup>327)</sup>이고, 또 담당하는  
사람이 또 흥씨더만요!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래갖고 인자 봐준다! 손을 쥐어보라헌디! 엄살을 조께

---

327) 왼손.

떨어야된다! 영감이 하! 하! 짹짹 쥐어본게로!

면담자 : 지장이 없다고?

구술자 2 : 예. 지장이 없다고!

면담자 : 예.

구술자 1 : 지장이 없다고 다음으로 또 법이 바뀌지면 할 수가 있음  
게! 그냥 가시라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왔어요! 근디 시방  
참전용사는 거시기 해요 받아요!

• 조국, 일본, 가족에 관하여

면담자 : 저기! 아버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회담으로 한일협정을 맺으시잖아  
요! 그때 혹시 한일협정 맺은 거 기억하세요! 1965년에 일  
본하고?

구술자 2 : 일본 허고! 박정희 그 사람,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  
통령하고, 일본 허고 뭐! 거시기를 했냐고 그런거를 아냐  
고 물어보구만.

구술자 1 : 박정희 때?

면담자 : 네. 네.

구술자 2 : 박정희 때!

구술자 1 : 그때가 말 듣기로는 요 시방 요 돈을 뭐여! 국무총리하는.

면담자 : 김종필 총리.

구술자 1 : 김종필이허고 해서 정권잡을 때.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요돈을 갖다가 고속도로 내고 뺐혔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

면담자 : 들었죠.

구술자 1 : 우리가 이올테면 노무자 징용 갔다 온 사람들. 돈 보상을  
받아갔고 고타 지었다 허고, 항간에 떠도는 요! 거! 그런  
말로 들었지!

면담자 : 그리고 인제 별 생각은 안 드시구요?

구술자 1 : 근께 몰라! 그런가! 저런가! 인자 그렇다는 이야기지!

면담자 : 그러면 인제 이렇게 쪽 와가지고. 지금 인제 아버님도 그렇  
게 억울하게 징용당하시고 돈도 못 받으시고 그러셨잖어요!  
근데 지금 인제 일본 아베 정부에서 막 그렇게 뭐 안좋은 이  
야기를 하시잖아요!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구술자 2 : 일본, 일본,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어찌고 생각하냐고? 그  
것을 어찌고 생각하냐고? 어찌고 일본, 일본, 일본, 그 정  
부에서, 시방, 허는 것은 어찌고 생각하냐? 그말이여!

구술자 1 : 어찌고 생각하냐고?

구술자 2 : 어!

구술자 1 : 좋제! 일본은!

구술자 2 : 머시 좋아! 일본놈들이!

면담자 : 아! 잘못 알아들으셔서!



구술자 1 : 내가 생각에는 우리나라 그때게는<sup>328)</sup> 내가 어려서보면  
담배 봉초<sup>329)</sup>도 .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께! 시대가 완전 우리나라가 내가 생각하게 발전이 됐  
다! 이겨여!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어려서 우리 할머니 아버지들이 담배 피우는 점땡<sup>330)</sup>에 가  
서 새벽에 기다리고 있네. 잉! 기다려갖고, 문열고, 담배 봉  
초 한 봉 팔다가 뒤에 사람 떨어지고!

면담자 : 아! 담배도.

구술자 1 : 이잉! 근께 그런 시대에서 ...근데 왜냐면?

면담자 : 아! 담배도 없어서 못 팔았구나!

구술자 1 : 하나씩들 담배가 피고자면 그 텃밭에 뭐이냐?

면담자 : 앞사귀!

구술자 1 : 박하 앞사귀 요런 것을 뜯어갖고 말아갖고, 담배를 담뱃대  
에다 피웠어. 그런 시대에 그런 가난허 막 우리나라가!

구술자 2 : 도구로 써갖고 불을 질러서 담배 피웠제. 우리나라가!

구술자 1 : 해방이 되고 나서는 요로고! 요로고! 잘 우리나라가 발전  
이 돼서 우리나라가! 쪼깐한 요만한 나라가! 말이여! 잉!

---

328) 그 시절.

329) 담뱃대에 넣어서 피울 수 있도록 잘게 썰어 봉지로 포장한 담배.

330) 전방(塵房, 가게).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께! 김종필이 허고 박정희하고 말 듣기는 요것을! 내가  
생각 내가 타 다 묵는거 보다도! 국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본께 좋다! 이거여! 나는!

면담자 : 그렇죠!

구술자 1 : 나는 알아! 우리나라가!

면담자 : 음! 음!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대요.

구술자 1 : 이 돈을 받아가다.

면담자 : 음! 음!

구술자 1 : 그 박정희하고 김종필이하고 지가 묵었다면 몰라도! 국가  
를 이렇게 발전해갖고!

면담자 : 네. 경부고속도로도 만들고.

구술자 1 : 아까 쌀도 내가 생각했을 때 자네들은 모른디! 송그면 잘  
돼!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종자가 틀려! 잘 된디! 뭐이여! 목도열병 같은거. 요런 것  
이 약을 못헌께! 짝 죽어블면!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도  
못나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디 이 종자 개량을 하고 외국에서 그 농약, 농약을 헌께!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요 시방 농사 진디! 두 번 세 번씩 해야 묵잖아!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식물이란건 농약 안 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먹어 깨고 콩이  
고 들깨고 전부 아까 나락이고 뭐이고, 농약 안 하면 상추,  
무시,<sup>331)</sup> 배추고 송귀농고<sup>332)</sup> 조금 있으면, 다 뜯어먹어 근  
게 농약 안 하면 안 돼.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께 그만하지 생각이 났다 이거이지. 근테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요러고 발전이 났다. 잉!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지가 거시기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박정희가 그래도 이  
국가에다 일을 해냈다! 나는!

면담자 : 맞습니다!

구술자 1 : 내가 말을 잘못헸가?

면담자 : 아니요, 아니요, 맞습니다!

구술자 1 : 어떤 사람은 민주당에서 거시기한가 몰라도!

면담자 : 독재를 좀 했다!

구술자 1 : 나도 호남 사람이다! 일은 잘헌 것은 잘했다고 봐야지! 글  
제라!<sup>333)</sup>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거여! 종자개량을 해가지고 식량을 말이여! 통일벼 같은

---

331) 무.

332) 심어놓고.

333) 틀리지 않다.

것은 한 마지기에 여덟 가마, 한 마지기에 여덟 가마!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두 가마니도 한 가마니도 못 해 먹었는다!<sup>334)</sup>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게 그거 인자 그리고 나서 와서, 김대중이가! 요시!? 그  
외국 통상을 하자고 몇 년을 걸렸는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래갖고 요것이 시방, 우리도 우리 곡성에도. 외국 사람,  
중국, 미국 사람이 일하러 어떻게 왔지 그리 안 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물물교환을 한게.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게 여기서 곡성에서 서울까지 가면 하우스가 절반 더 본  
다고 봐야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논에가! 그래도 식량이 남은다, 모자란다, 소리는 안 하잖  
아!

면담자 : 안 하죠.

구술자 1 : 그리 안 해?

면담자 : 농사 째, 보리, 안 하고 하우스 해버리는데도 째이 남아돌아

---

334) 수확을 못하다.

가죠.

구술자 1 : 근께, 탄 것을 하잖아! 농민들이!

면담자 : 네, 그렇죠.

구술자 1 : 하우스랑.

면담자 : 네.

구술자 1 : 타산이 안 맞으께.

면담자 : 아버님!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술자 1 : 뭐?

면담자 : 일본, 일본, 일본한테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지금!

구술자 1 : 일본 허고?

면담자 : 일본에 대한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마지막

으로!

구술자 1 : 뭘 생각을?

면담자 : 징용을 다니셨잖아요.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이 드세

요?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구술자 1 : 일본 사람들을?

면담자 : 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본을 보면!

구술자 1 : 일본을 보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무슨 나쁘게 생각하고 뭐! 없써라!!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그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팔일오 해방 되갓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지만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은 내가! 어찌고! 말고! 생각해! 그리 안 해?

면담자 : 네. 맞아요!

구술자 1 : 지그도! 지그 나라를 찾아가지 찾아갔제! 그리 안 해?

면담자 : 그러면 아버지님! 마지막으로.

구술자 1 : 여기 와서 지그들, 일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동약산, 요것도 참 허물어지고 말이여!

면담자 : 네.

구술자 1 : 허물어지고 파괴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묵고 살란게 머리도 못 쓰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디! 저 그 골짜 골짜 원땡이를 해 갖고 흠이 안 들어오게.

면담자 : 네. 사방공사!

구술자 1 : 일본 사람들이 다 해놨잖아! 지금까지도 백 년이 넘어도, 빠지지도 안 해! 독을 요만씩 지게 해 갖고, 지금은 한국 사람들은 독을 깨블면, 여기 빼블고 했산디! 왜정시대에 현 사람들은 여가서 한 자면, 여가서 두 자가 빠져, 그래갖고 싸논게 절대 안 허물어져!

면담자 : 아버지님 마지막으로 우리 손주들한테 하실 한 말씀 해주세요!

구술자 1 : 뭐라고?

면담자 : 손자, 손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떻게 살아라!

구술자 1 : 손자, 어찌고 살았냐고?

면담자 : 아뇨,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아라!

구술자 1 : 어찌고 세상 살아라?

면담자 : 손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술자 1 : 손자들을 어찌고 생각허냐?

면담자 :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구술자 1 : 잘, 아 아무 사고 없이 잘 살면 좋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데! 이 손지들이 다, 근께 지금 내가 구십 살 먹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딴 손지들은 말이여! 할아버지 인자, 안경도 맞춰주고, 눈  
나쁘다고 약도 사주고, 또 안약도 사주고, 돈도 주고, 우리  
큰아들 손지는 저 뭐!

면담자 : 텔런트!

구술자 1 : 텔런트! 뭐이냐! 팔월달부터 9월달까지 그거 방송국!

면담자 : 흥○○.

구술자 1 : 시방! 가가! 거 뭐여 중학교 때부터 뭐여! 어디서 거시기한  
지 몰라도 중학교 때부터 하더만!

면담자 : 아버님! 손자 손주들이 건강하게만 잘 살았음 좋겠어요?

구술자 1 : 인자 대우를 받는 사람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디!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지금 생각하면 둘째 손지는 면도칼도 사서 보내고, 옷도  
사주고, 근께! 대우를 받는 그거이 큰 복이라고 해! 나라는

어떤 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거이 자랑하고 싶으냐면!!

면담자 : 네.

구술자 1 : 팔일오 해방이 되어갖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우리 인자 안  
식구가 인자 계를 해갖고, 한 달에 천 원이면 천 원씩 저축  
을 저 알지?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인자 어머니들이랑 저축을 해갖고, 옛날에는 목고살기도  
거시기 했는디! 저축을 해 갖고, 그놈을 우리 훌훌단신에  
일본에도 가보고, 중국에도 가보고, 이 태국에도 가보고,  
월남에도 가봤지만 뭐여! 일본을 가면 우리나라 한국 돈이  
십 대 일이더만!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십 대나 낮아, 글고 돈도 우리나라 돈은 못 쓰고.

면담자 : 네.

구술자 1 : 근디 같이 기분이 좋은 것은 팔일오 해방 돼갖고 무엇이  
기분이 좋냐면! 중국하고 월남하고 태국간 게! 이! 우리나  
라 돈을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기분이 좋드라 이거여!!

면담자 : 네.

구술자 1 : 우리나라 반도가 이러코! 세상에! 일본은 요런데! 우리나  
라 돈을 쓴다고 기분이 좋더만!!

면담자 : 좋으셨구나!

구술자 1 :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이 됐구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



리를 짜고 해갖고 우리나라서! 세상! 고고<sup>335)</sup> 저! 그거이!  
좋더라! 이거여! 나 죽을 때가 됐는디! 우리 밑에 손들이  
이렇게 살기가 좋더라! 이거여!!

면담자 :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오랜 시간 자리가 좀 조금 불편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335) 그것.



**오경섭·김경남·홍희조  
면담후기**

## 오경섭 면담후기

- ▣ 면담장소 : 곡성군 오곡면 오경섭 자택.
- ▣ 면담일자 : 2018년 9월 6일(13시 30분~17시).
- ▣ 면담자 : 조준원.

### · 면담 환경 및 진행과정, 면담 전 예상과 실제 면담 시 상황, 준비된 질문지의 소화여부 및 확장 여부 등

- 구술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 예비 질문은 어린 시절, 일본 해군군속 강제동원기, 6·25 한국전쟁, 노년과 장년 생활기의 크게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준비하였다.
- 구술자는 면담자가 준비한 예비 질문지의 문항을 거의 빠짐없이 답변하였으며, 나라를 잃은 서러움 때문에 국력을 강조한 말씀에서는 연로한 강제동원피해자의 서글픈 마음이 가슴에 와 닿는 슬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 구술을 마친 후 구술자는 “국력을 길러 도둑질하지 말고 다 같이 정직하니 잘 살아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하셨다.
- 면담이 끝난 이후에 구술자에게 면담자는 “아버님 같은 어른신들의 희생과 노

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면담을 마무리 하였다.

• **구술자의 태도 및 면담 과정의 분위기, 소통의 결 등**

- 구술자의 자녀인 오성태와 친분관계가 있어 구술자의 오지리마을 자택을 수차례 방문하여 친숙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다.
- 이와 같이 면담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구술자와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에 면담과정의 분위기와 구술자와의 소통 등은 매우 좋았다.
- 구술자는 가정생활을 시작으로 곡성에서 강제동원 되는 과정, 일본 나가사키 좌세보의 해군군속 강제 노역생활과 조선인 해군군속 동원공들의 폭동, 태평양전쟁 필리핀 민다나오 참전 경험과 일본으로의 귀환 과정 등에 대하여 9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맑고 뚜렷하게 말씀하셨다.
- 구술자는 강제동원 당시의 경험과 6·25 한국전쟁 참전과정과 전투 등에 대해서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셨다.
-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낙동강 함안 전투와 임진강 전투, 1·4후퇴 당시 경기도 광주에서 적으로부터 다리에 총을 맞아 부상당한 부분에서는 다소 흥분하셨다.
- 연합군과 함께 참전하면서 일부 미군병사의 민간인 약탈을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다.

• **기존의 관련 구술 또는 관련 연구에 대해 차이가 나거나 부각되는 측면 등**

- 2016년 면담에서 강제동원피해자들이 곡성면 소재 중국집 북경원에서 트럭 짐

승칸을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셨으나, 2018년 조사에는 곡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환승하여 경부선으로 부산까지 이동하였다고 다르게 구술하셨다.

- 2016년에 조선인들의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본헌병들이 가한 구타와 고문 등에 의한 희생자 성명을 언급하지 않으셨으나, 2018년에는 말씀하셨다.
-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 민다나오의 참전 경험과 일본 귀국 상황을 2018년 구술조사 당시보다 2016년 구술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구술하셨다.

• **구술 면담의 의의와 한계, 추가 관련 구술의 필요성 등**

-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면담으로 연로한 구술자의 체력이 많이 소모되어 집중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 2015년, 2016년, 2018년 세 번의 구술조사와 함께 구술자와 구술자의 자녀 오성태와의 평상시 교류를 통하여 추가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 **구술 관련 특별사항**

- 구술자는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생존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역 당시의 일본인 노무자와 일본인 지도원 등에 대하여 비교적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셨다.
- 구술자는 17세에 3년 계약으로 강제동원되었으나 노역으로 인한 급여나 휴가비 등은 일체 받지 못하였으며, 휴가 또한 삼엄한 감시 속에 자비로 고향을 다녀오셨다.
- 구술자는 다리에 중상을 입고 부산 국군통합병원에서 전역한 후 고향에서 목격한 빨치산들에 대해서는 욕설과 함께 심한 분노를 표출하셨다.

- 구술자는 6·25 한국전쟁 참전 당시 미군 30사단과 함께 전투하면서 일어난 일부 미군들의 한국 민간인에 대한 약탈 등에 대하여 격양된 감정으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 김경남 면담후기

▣ 면담장소 : 곡성군 삼기면 김경남 자택.

▣ 면담일자 : 2018년 9월 9일(9시 30분~11시 30분).

▣ 면담자 : 조준원.

### • 면담 환경 및 진행과정, 면담 전 예상과 실제 면담 시 상황, 준비된 질문지의 소화여부 및 확장 여부 등

- 면담 전 구술자에게 조사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어린 시절, 강제동원기에 관하여, 6·25 한국전쟁, 노년과 장년 생활기의 크게 4가지 주제로 작성된 예비 질문지를 준비하여 미리 드렸다.
- 구술자는 면담자가 면담 전 미리 드린 질문지의 문항을 대부분 숙지하였으며, 면담과정에서 면담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다.
- 면담자는 구술자가 89세의 고령으로 오래되고 희미한 가족사에 대해 많은 회한이 드시겠지만,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맑은 정신으로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질문을 드렸다.
- 어린 시절 곡성군 죽곡면 반송에서 개가하는 어머니를 따라 이곳 곡성군 삼기면 농소마을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내용을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 구술자는 광주 방직공장에서 노역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되어 오지리 큰 애기와 함께 그의 작은아버지를 따라 차를 타고 삼기면 자택으로 귀향하는 과정을 비교적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 면담자는 강제동원에 관한 구술자의 생각과 그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어 몇 가지 질문을 의도적으로 드렸다.

• **구술자의 태도 및 면담 과정의 분위기, 소통의 결 등**

- 2017년 구술조사 당시와는 다르게 2018년에는 몇 차례 면담을 부탁하였으나, 거절의사를 밝혀서 같은 동네에 사는 친척 정삼수의 부탁으로 면담이 성사되었다.
- 2017년 면담과는 다르게 2018년 면담 도중 “몰라”, “할 말이 없어” 등의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면서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 구술자는 면담과정에서 틈틈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셨으며, 자녀들의 효심에 대하여 매우 흐뭇해하셨다.
- 면담을 마치고 과일 등의 간식을 드시면서부터 구술자는 면담자에게 차분하게 본인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sup>336)</sup>

---

336) 2017년과는 다르게 2018년 면담과정에서 소극적으로 구술하신 이유에 대하여, 추후에 면담자에게 “일본군'위안부'로 이웃들에게 오해받을까봐 걱정이 되어서”라고 말씀하셨다.

• 기존의 관련 구술 또는 관련 연구에 대해 차이가 나거나 부각되는 측면 등

- 구술자는 마을에서 강제동원 된 이유가 아버지가 없어서라고 하셨으나, 2018년 조사에는 부모가 없어서라고 다르게 구술하였다.
- 구술자는 14세에 동원되어 16세에 귀향하였다고 구술하셨으나, 2018년 면담에는 당시 15세에 동원되어 16세에 귀향하였다고 다르게 말씀하셨다.
- 가네가후치공업 전남공장 노역 동료인 옥과성(언니)의 남편이 일본으로 모집(강제동원) 되어 갔다고 하셨으나, 2018년 조사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 6·25 한국전쟁 당시 구술자는 반란군에게 쌀과 닭 등이 약탈당한 피해 사례와 함께 어두운 마을 분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으나, 2018년 조사에는 거의 말씀하지 않았다.

• 구술 면담의 의의와 한계, 추가 관련 구술의 필요성 등

- 구술자는 2017년에 광주 가네가후치공업 전남공장에서 노역한 사실을 구술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 구술조사에는 몇 차례 거부 끝에 면담과 구술조사에 협조하였다. 따라서 구술자는 2018년 조사에서는 소극적으로 면담에 응하였으며, 방어적으로 구술하였다.
- 구술자인 김경남께서 ‘가네가후치공업 전남공장’에서 함께 노역하였다고 진술한 동료 “곡성군 여성 4명과 남성 1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구술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미처 말씀하지 못한 광주 ‘가네가후치공업 전남공장’의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과 급여실태, 생활조건, 숙식상황, 규율 조건, 조선인 차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 구술 관련 특별사항

- 구술자는 “광주 방적공장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한 사실”이 이웃들에게 일본군‘위안부’로 잘못된 알려져 가족들이 입을 피해를 매우 두려워하였다.
- 2017년 구술 도중 그리고 휴식시간과 면담이 끝난 다음날 면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구술자는 “공출여성이지 일본군‘위안부’가 아니다”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강하게 부정하였다. 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2018년에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면담이 끝난 이후에 간식을 드시면서도 걱정하셨다.
- 면담을 마치고 난 이후 구술자는 면담자에게 “늘 배우는 자세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다.

## 홍희조 면담후기

▣ 면담장소 :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홍희조 자택.

▣ 면담일자 : 2019년 10월 2일(10시 30분~12시 30분).

▣ 면담자 : 조준원.

### · 면담 환경 및 진행과정, 면담 전 예상과 실제 면담 시 상황, 준비된 질문지의 소화여부 및 확장 여부 등

- 구술자 자택에서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유선통화와 방문으로 10월 2일 수요일에 구술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 면담자는 면담 전에 구술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으며, 구술자는 구술자료 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자필 서명해주셨다.
- 예비 질문지는 어린시절, 강제동원기, 한국전쟁, 가족에 관하여 등 총 4가지 주제와 30여 가지의 세부 질문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드렸다.
- 노환으로 인한 청력이 너무 약하셔서 대화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인인 신 임이순과 함께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중간 중간 부인께서 통역을 해주셨다.

- 면담자의 육안으로는 구술자께서는 건강하게 보이셨으며, 청력이 약해서서 목소리의 억양은 높으셨지만 발음과 표현력은 좋으셨다.

• 구술자의 태도 및 면담 과정의 분위기, 소통의 결 등

- 면담 이전부터 구술자의 막내아들인 홍○○와 면담자가 곡성서초등학교 동기 동창인 친분관계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 구술자의 죽동리 자택 안방에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면담이 진행되어 구술자와의 소통과 분위기 등은 매우 좋았다.
- 청력이 약한 구술자를 보조해 주기 위하여 부인이신 임이순과 함께 면담이 진행되어 중간 중간 막힘없이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졌다.

• 기존의 관련 구술 또는 관련 연구에 대해 차이가 나거나 부각되는 측면 등

- 구술자는 실제 1930년생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1933년생으로 등록되어 있다.
- 구술자는 태어난 집의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조사해 본 결과 곡성군 곡성읍 묘천리 147번지에서 출생하셨다.
- 두 번째로 동원당한 시기를 16세, 설달 12월이라고 구술하셨으나, 추후 조사 결과 16세, 1945년 1월 23일(음력 12월 10일)로 양력이 아닌 음력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술자가 양이식과 유환복 등 같은 마을 묘촌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성명을 진술하였으나, 추후 조사 결과 양이식은 1922년생 양이석으로 확인되었다.

- 묘천리 1924년생 유환복은 추후 조사에서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피해신고 관리대장에서 명단이 확인되었으나, 이분은 1944년 8월 10일 일본군으로 강제징병 당하여 1945년 10월 귀국하셨다. 배우자인 1928년생 빙애님이 곽성읍 묘천리에 살고 계셔서 2019년 9월 23일 구술 조사하였다.
- 구술자가 말씀하신 묘천리 유환복은 국내 강제동원피해자이며, 군인으로 강제동원된 유환복이 아닌 동명이인 또는 유사한 성명의 피해자로 사료된다.
- 구술자는 평안남도 강서군의 큰 강을 두만강으로 구술하였으나, 강서군과 인접한 강은 두만강이 아닌 대동강이다.

#### • 구술 면담의 의의와 한계, 추가 관련 구술의 필요성 등

- 청력이 현저하게 약해지신 구술자의 약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면담으로 면담자와 부인이신 임이순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발생했다.
- 구술자가 함께 평안남도 강서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고 진술한 김개식, 유환복, 유경옥 등을 일제강제동원자 명부,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피해신고관리대장 등의 관련 문서들을 조사하였으나 명단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조사가 요구된다.

#### • 강제동원에 대한 인식

- 구술자는 “여수도 여 저 가라고 해서 우리가 돈 벌라고 간 것이 아니라 강제 노동이여 강제 노동이여”, “근깨 열세 살 먹어서 내가 어디를 갔다니, 강제 노동이여 강제 노동” 등의 표현으로 13세의 어린나이에 당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서글퍼하시면서 회상하셨다.

- 구술자는 16세에 강제동원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근게 평양 갈때도 전부가 누가 갈라고 하గా이 일허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지, 강제 노동이지 가족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갔는디, 뭐이 강, 지원해서 누가가 가” 등의 직접적인 말씀하시면서 매우 분개하셨다.

#### • 구술관련 특별사항

- 구술자는 일본에 대한 감정을 “일본을 보면 무슨 나쁘게 생각하고 뭐 없써라. 그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은 팔일오 해방 되갓고, 나쁜 짓 한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은 내가 어찌고 어찌고 생각해, 그리 안해!” 등의 표현으로 일본인들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담담하게 구술하시면서 용서하셨다.
- 노무동원은 강제동원 횡수가 “다수”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같은 사실은 “홍희조께서 보국대로 두 번이나 강제동원 당하신 사례”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 구술자는 일본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관련 보상금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내가 타 다 묵는 것 보다도! 국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본께 좋대! 이거여! 나는!” 등으로 조국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 구술을 마치는 맺음말로 “조국의 발전과 후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씀과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소원하셨다.
- 구술자이신 홍희조께서는 애석(哀惜)게도 2020년 9월에 고인(故人)이 되어 작고(作故)하셔서 영면(永眠)에 드셨다.

## 참고문헌

곤도노부오(近藤伸生), 「히로시마(広島) 구레(呉) 해군공창 조선인징용공들에 대한 군법회의 판결을 읽고」, 『한일민족문제연구』, 225-252, 한일민족문제학회, 2013.

서혜선, 「스미토모(住友) 고노마이(鴻之舞) 광산의 조선인 노무자 실태에 관한 연구 (1939~1942년)」,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2013년.

이상의, 「1930~40년대 일제의 조선인노동력 동원체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3년

이상훈, 「강제동원 및 피해보상의 문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10년.

장혜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한 교과서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10년.

정운현, 「일제동원 8백만을 위한 진흥사」, 월간 옵서버, 1991년.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출판부, 2004년.

조원준, 「일본 강점기하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에 관한 실태연구 - 일제말기 노동력 동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2006년.

지영임, 「구술을 통해본 일제하 제주도내 강제동원의 실태와 특징, 사회와 여가」, 『한국사회사학회』, 제7집, 2006년.

하승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구제 -한국정부의 피해보상 내용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성균관대학교, 2011년.



---

곡성군, 『곡성군지』, 2018년.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년.

국가기록원, 『강제동원피해자 명부』, 2020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자료 수집사업』, 2018.

박경리, 『일본산고』, 마로니에북스, 2019년.

박명희, 『이슈와 논점』, 제15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12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항소심 소송 판결문』, 2019년 1월 30일.

사천시, 『사천시사』, 2003년.

이재운, 『우리말 100가지』, 위즈덤하우스, 2008년.

조준원, 『구술자료 수집사업 조사 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 2018년.

조준원, 『2019 곡성군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생존피해자 및 유가족  
구술조사보고서』, 곡성문화원, 2019년.

정혜경,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도서출판 선인,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년.

한국학호남진흥원, 『역사적 사건 인물 발굴을 위한 인문학 기반 및 역사자원  
활용사업』, 2019년.

---

곡성군 홈페이지, <https://www.gokseong.go.kr>.

곡성문화원 홈페이지, <http://gs-culture.or.kr>.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네, <http://contents.history.go.kr>.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

나무위키, <https://namu.wiki>.

다문화방송신문, <https://www.wdmnews.kr>.

다음백과, <https://100.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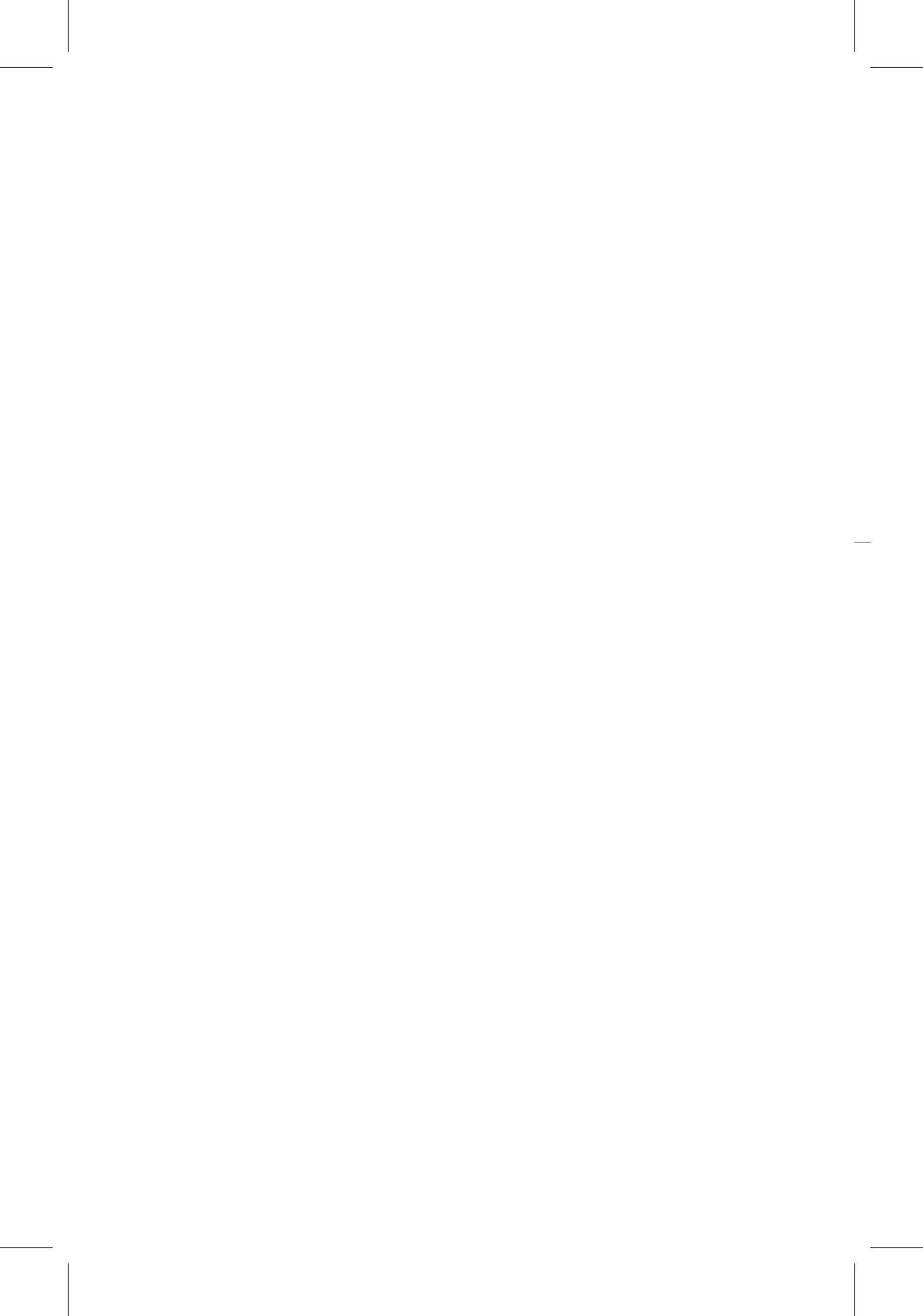
시민의 소리, <https://www.siminsori.com>.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전방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chonbang.co.kr>.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홈페이지, <https://www.kr.emb-japan.go.jp>.





---

■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곡성군 생존피해자 구술생애사

---

인 쇄 2020. 12. 31.

발 행 2021. 05. 15.

발 행 처 곡성군, 곡성문화원

발 행 인 고광운

주 소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855

연 락 처 061-363-0890

홈페이지 <http://gs-culture.or.kr>

편 저 자 조준원

자 문 고광운

감 수 오경섭

교 정 고동실

편 집 배숙영

디 자 인 감디자인 (062-228-2558)

ISBN 979-11-952231-7-6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